

제2회 고천문 워크숍 논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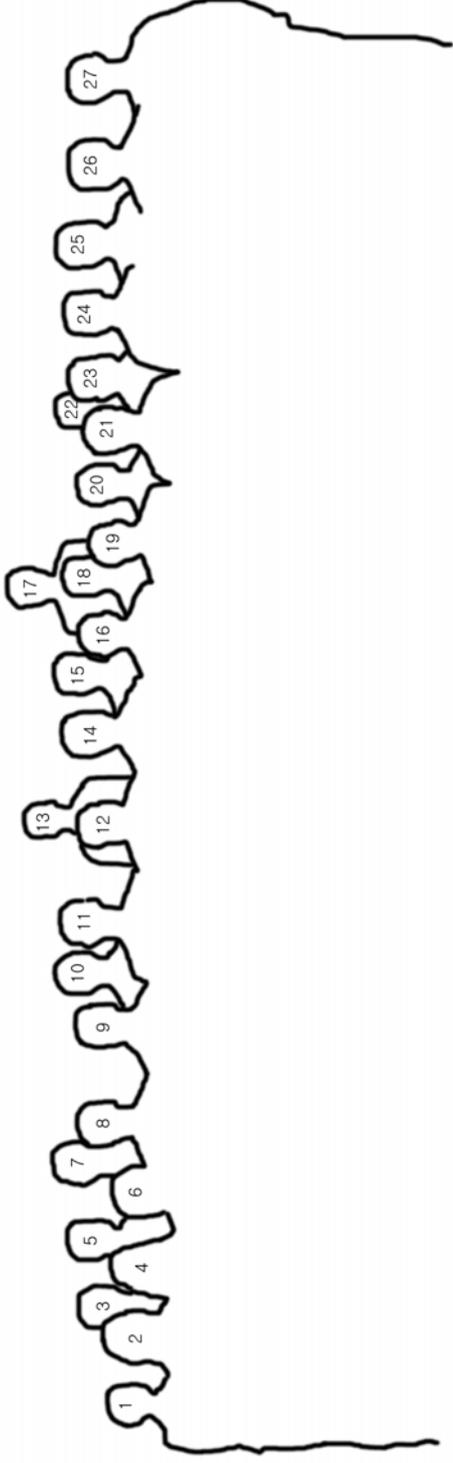
"하늘이 열릴 날, 天文을 얘기하다"

발표일 : 2008년 10월 1일 (수) / 장소 : 한국천문연구원









1. 최현아(경북대학교 대학원), 2. 이지나(KAIST/한국천문연구원), 3. 김상혁(한국천문연구원), 4. 이성은(한국천문연구원)
5. 양홍진(한국천문연구원), 6. 안영숙(한국천문연구원), 7. 이봉렬(국립중앙과학관), 8. 임인성(한국천문연구원)
9. 송두중(한국천문연구원), 10. 이광호(서울대학교 대학원), 11. 박창범(고등과학원/소남천문학사연구소)
12. 박석재(한국천문연구원장), 13. 이기원(한국천문연구원), 14. 이용복(서울교육대학교/소남천문학사연구소)
15. 윤명진(옛기술과문화), 16. 이우백(한국천문연구원), 17. 박영득(한국천문연구원), 18. 최용식(옛기술과문화)
19. 이용삼(충북대학교/소남천문학사연구소), 20. Katsuhide Marubashi(한국천문연구원), 21. 김갑성(경희대학교)
22. 조일현(경북대학교 대학원), 23. 김동준(충북대학교 대학원), 24. 김광동(한국천문연구원), 25. 최규철(한국천문연구원)
26. 김도현(태백산 천체위원회/장성여교), 27. 김상범(쑥 연구소)



제2회 고천문 워크숍 논문집

---

# 하늘이 열린 날, 天文을 얘기하다

---

발표일 : 2008년 10월 1일 / 장소 : 한국천문연구원

## 차 례

개천절 일자(日子) 문제 고찰과 제언 .....	1
박 창 범 (소남천문학사연구소 / 고등과학원)	
고조선의 천문과 북두칠성 .....	13
이 용 복 (서울교육대학교 / 소남천문학사연구소)	
太白山 天祭의 歷史와 祭儀 樣相 .....	32
김 도 현 (태백산 천제위원회 / 장성여고)	
개천절에 남아있는 천문요소와 태백산 깃발 별자리 .....	68
양 흥 진 (한국천문연구원)	
조선의 하늘을 살폈던 서운관에 대하여 .....	83
이 기 원 (한국천문연구원)	
종합토론 : '하늘이 열린 날, 天文을 얘기하다' 발표 요약 ..	100
이 용 삼 (충북대학교 / 소남천문학사연구소)	



# 개천절 일자(日字) 문제 고찰과 제언

박 창 범

소남천문학사연구소 / 고등과학원

## I. 개천절 일자 문제 재론의 필요성

양력 시월 삼일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서 단군의 개국을 경축하는 날이다. 국경일로서의 개천절은 1949년 당시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기로 하고, 그 기념일을 양력 10월 3일로 정한 데에 기인한다. 민간과 종교집단에서는 적어도 구한 말 때 이미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고 기념행사나 제천의식을 하여 왔었다. 또한 적어도 대략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10월에 추수감사제와 같은 축제가 대규모로 열리고 제천의식이 행사되어 왔었다.

나라를 되찾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국회가 민족 최초의 국가 성립을 기념하고, 이 땅의 각지에서 출몰하여 왔던 여러 나라들의 공통의 시원을 밝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법률로서 공인하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날짜를 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먼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당시 정부는 개천절을 양력 10월 3일에 기념하는 안을 내었고, 이를 회부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천절의 일자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여,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변환하여 개천절로 정하자는 안을 수정안으로 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부 안과 법사위 수정안 사이에 서로 타협을 찾지 못하고 논란 끝에 결국 투표로써 양력 10월 3일 안이 가결되었던 것이다.

비록 이 법률이 제정된 지 59년이나 지났지만 그간 학계에서나 정부에서 개천절의 일자 문제를 학문적 논의를 거쳐 다시 고민해보려는 시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sup>1)</sup>. 그런데 당시 국회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시 국회 회의기록을 보면 개천절의 일자를 정하는 방향에 대해 국회의원들 사이에 표 1과 같은 견해들이 있었다.

**표 1. 1949년 9월 21일 제5회 국회임시회의 기록에 나온 개천절 제정 관련 안과 의원 발언 내용.**

	가. 양력 10월 3일 안(정부 안)	나. 단군조선 개국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일자 안(법사위 수정안)
동의 사항	양력일이어야 함	
동의 사항 이유	전 세계가 양력을 씀	문명국가에서 음력과 양력을 병행하기 어려움
이견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군 개국일에 대해 학설이 구구함.</li> <li>2. 단군의 개국은 음력이 있기 전의 일이고 歲首의 불확실 등으로 인해 양력 변환이 불가능함.</li> <li>3. 전문가에 의뢰하여 그 날을 양력으로 환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건국 초에 할 일이 아님.</li> <li>4. 양력 10월 3일이 개국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날씨가 좋고 오곡이 풍성하여 계절적으로 개국을 기념하기에 편리함. 단군이 하필 추운 때에 건국을 하지 않았을 것.</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력 10월 3일은 古來로 지켜오던 성스러운 날로서 輕히 변경할 수 없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해서는 안 됨.</li> <li>2. 음양력 변환은 대략 2천 수백 년 간의 것이 알려져 있지만 曆家에 부탁하여 그 이전의 시기를 수학적으로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음.</li> </ol>

이 기록에 나타난 양측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자는 정부 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현실성과 편의성에 사고의 기본을 두고 있다. 국가 운영을 위해 많은 법률을 제정 반포해야하는 시기에 가능해

1) 1996년 11월에 총무처에서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본인에게 단군개국일자의 양력 환산문제를 의뢰하여 온 일이 있음을 보아 그러한 논의를 정부가 직접 시도한 적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역사 연구의 집적 및 계산기의 발달에 따라 국경일 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상황 변화에 의한 것이다.

보이지도 않는 날짜 변환을 한가로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으며, 양력 10월 3일이 우리나라에서 계절적으로 가장 날씨가 좋고 먹을 것이 풍요한 때이어서 이날이 실제 날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개국을 자축하기에 안성맞춤인 날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단군 개국일을 찾고 음양력 변환을 하자는 의원들의 생각은 개국의 상징성과 전통의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력 10월 3일 개천절’ 결정은 역사와 역법에 대한 지식에 한계가 있었던 국회의원들 간의 불과 하루 사이의 짧은 논의에 의해, 그리고 다수결이라는 비학문적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학문적 재조명과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발표가 이러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나라의 존속기간, 강역, 신화내용 등 여러 연구주제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단군조선의 개국년과 일자 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 II. 단군조선 개국년

본인은 이 발표를 통해 음력 10월 3일을 새로운 개천절로 정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제언을 하기에 앞서 다른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현행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던 원래의 이유 (표1 참조)의 대부분은 이제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들이다. 우선 계절이 좋아서 개국일로 적합하다는 발상은 자의적 주장이어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문가에게 양력환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유효한 상황이 아니다. 다만 과연 단군개국일이 정확히 알려져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인데, 이는 실제로는 이 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안에 있어서 공통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 계산을 통해 음력 초하루(朔日)를 양력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무리 먼 과거까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력으로 한 해의 시작(歲首)을 정하는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면 과거 어느 시점이던 간에 음력일을 양력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단군개국일이 양력으로 환

2) 물론 과거의 음력일을 정확히 양력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단군조선의 건국시대와 같이 역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각을 떠나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기전 2333년에 있었던 초생일을 모두 천체역학적 계산에 의해 양력으로 구하면, 이 중에 시월에 해당하는 초생일은 2-3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산 가능하냐의 문제는 이제 환산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고, 단군개국일의 규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현행 “양력 10월 3일 개천절”은 본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 안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본래의 설득력마저 잃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당시 수정안으로서 제시되었던 안, 즉 단군 개국일을 양력일로 환산하여 이를 개천절로 삼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 단군 개국일을 양력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단군 개국일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국년과 그 해의 일자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단군 개국년은 중국 堯의 즉위년에 대해 상대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단군 개국년을 알기 위해서는 요의 원년을 알아야 한다. 결국 단군 개국일 규명 문제는 1. 요 원년, 2. 요의 원년으로부터 단군조선의 개국년까지의 해수, 3. 단군조선 개국 월일, 이렇게 세 가지로 귀결된다.

표 2. 중국 堯의 원년에 대한 설.

	한국			중국				
요원년	辛丑	戊辰 BC2333	甲辰 BC2357	戊辰 BC2333	甲辰 BC2357	丙子	丁未	辛卯
요25년			戊辰 BC2333		戊辰 BC2333			
요50년	庚寅	丁巳		丁巳				
비고	삼국사기가 인용한 古記	삼국사기 一然. 북송 유서의 설	東國通鑑. 서진 황보 밀의 설	北宋 劉恕	西晉 皇 甫謐, 宋 邵雍			

그런데 요의 원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들이 존재한다. 표 2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받아들여져 사용되었던 요 원년에 대한 설들을 요약한 것이다. 고려시대 일연이 찬한 삼국사기에는 고기(古記)를 인용하며 단군의 개국년을 요 50년 경인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요의 원년이 신축년임을 뜻한다. 일연은 요 50년이 실제로는 정사년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그릇되었다고 주를 달았는데, 이는 요의 원년을 무진년으로 잡은 것이고, 요 원년 무진년 설은 북송 유서의 설을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요의 원년을 갑진년으로 잡는 서진 황보밀의 설을 따르기 시

작하였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설이다. 중국에서는 이 외에도 병자설, 정미설, 신묘설 등이 제기되어 있다. 따라서 요의 원년은 정확히 밝혀지거나 한 가지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몇 가지의 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표 3. 단군조선 건국년 관련 기사 일부.

출전	저자/발간연도	인용서/원기록문(건국년)
三國遺事	一然 (1206 - 1289)/1281?	魏書/與高同時 <sup>3)</sup> , 古記/唐高即位五十年庚寅(唐高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권1
帝王韻紀	李承休/1287	並與帝高興戊辰 <sup>4)</sup> -하권
牧隱集	李穡 (1328 - 1396)	我東方國於唐堯戊辰歲-文彙 권9
高麗史	金宗瑞, 鄭麟趾, 李先齊 등/1454	本國與堯並立 - 권114
朝鮮王朝實錄	1452-1454 (세종실록 지리지)	本國與堯並立 - 태조실록 권1 唐堯戊辰歲 ... 檀君古記/檀君與唐堯 同日而立-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日省錄	조선	檀君之與帝堯並立 - 정조3년
陽村集	權近(1352 - 1409)/1396	始古開關東夷主(時唐堯元年戊辰也) - 권1 應製詩
龍飛御天歌	정인지, 안지, 권제/1445	唐堯戊辰歲 - 권1 제9장 本國與堯並立(檀君開國實唐堯戊辰歲也) - 권6 제41장
歷代世年歌	權暉 <sup>5)</sup> /1436	始開東國號朝鮮 並與帝堯興戊辰
應制詩註	權擘 <sup>6)</sup> /1462	古記/檀君 與唐堯同日而立
三國史節要	盧思愼, 徐居正 등/1476	時唐堯戊辰歲也 - 권1
東國通鑑	徐居正 등/1484	是唐堯戊辰歲也 古紀/檀君與堯並立於戊辰 ... 此說可疑 今按堯之立在上元甲子甲辰之歲 而檀君之立在後二十五年戊辰 則曰與堯並立者非也 - 外紀
筆苑雜記	徐居正 (1420 - 1488)	古記/檀君與堯同日而立
東國輿地勝覽	1530	唐堯戊辰歲 - 권51 평양부
東國史略	朴祥 (1474-1530)	唐堯二十五年戊辰
海東異蹟	洪萬宗/1666	時唐堯二十五年戊辰歲也

3) 高 또는 唐高, 唐堯란 堯를 뜻한다. 요의 성은 이기(伊耆), 이름은 방훈(放勳), 호는 도당씨(陶唐氏)이다.  
 4) 제왕운기는 本紀와 檀君本紀를 인용하여 단군의 건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건국년도에 대해서는 인용서를 밝히지 않았다.  
 5) 권제(1387-1445)는 응제시를 지은 권근의 아들  
 6) 권람(1416-1465)은 응제시를 지은 권근의 손자

둘째로는 단군조선의 개국년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고문헌 중에서 단군조선과 관련된 기사가 처음 나오는 곳은 1145년에 김부식이 찬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인데 東川王 24년 조의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평양은 본시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어서 개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개국년을 처음 언급한 문헌은 삼국유사인데, 이 때부터 단군조선 건국년에 관련된 고문헌 기록들의 일부를 표 3에 실었다. 삼국유사에는 두 가지 설이 제시되어 있다. 일연은 먼저 <魏書>를 인용하여 단군이 堯와 같은 때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고<sup>7)</sup>, 두 번째로 요50년 경인년에 세웠다고 하고서 요 원년은 무진년이었기 때문에 이 해는 실제로는 정사년이었다는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요 원년에는 여러 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빙성이 더 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연은 요 원년 무진설을 따른 것뿐이다. 그런데 삼국유사 이후 13세기 말에 출간된 제왕운기부터 동국통감이 출간된 15세기 후반까지 약 200년 동안 삼국유사가 인용한 古記 이외의 모든 고문헌들은 일관되게 단군조선의 건국년이 요의 원년과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세종실록은 심지어 건국일까지 요의 즉위일과 같다고 하고 있다.

이 기록들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단군조선 개국년이 요 원년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요 원년이 무진년이라는 것이다. 일연의 주를 통해서도 당시에 요 원년 무진설이 우리나라에 사실로서 받아들여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의 개국이 무진년이라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제왕운기는 단군조선 개국년이 요의 원년과 같기 때문에 무진년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484년에 서거정 등에 의해 간행된 동국통감에 처음으로 단군조선의 건국년이 요25년이라는 설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이는 단군조선 개국년을 무진년으로 잡은 뒤, 요 원년 갑진설을 따랐기 때문이다. 요의 원년이 갑진년이라면 무진년은 요25년이 되기 때문이다. 이 논리에는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존재한다. 즉 13세기에 서 15세기 후반까지의 기록들은 삼국사기의 고기 인용 부분 이외에는 예외 없이 단군조선이 요나라와 같은 해(또는 때)에 세워졌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해가 무진년이라고 밝기도 한다. 즉 이 시대에 단군조선의 개국년 기사의 주 내용은 요의 원년이라는 것이고, 무진년이라는 것은 부수적 내용이다 (표 3 참조). 단군 원년이 무진년이라는 것은 요 원년 무진설을 따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국통

7) 이 기록은 단군조선이 요 원년과 같은 해라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비슷한 시기 또는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정도로도 볼 수 있다 (김정배 2003).

감은 이를 망각하고 干支만을 중요시하여 단군 건국년을 무진년으로 받아들인 뒤, 요 원년 갑진년설을 채택하여 단군 건국년이 요 25년이라는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요 원년을 갑진년으로 고쳐 잡는다면 단군조선의 개국년도 갑진년(BC2357)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도 간지의 사용이 서기전 24세기까지 거슬러 간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sup>8)</sup> 단군조선의 개국년이 애초에 간지로 알려져 있었을 리가 없으며, 주요 주변국의 개국년과 상대적인 해수로 나타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단군조선 개국년에 대한 고문헌의 기록에서 요의 원년과의 비교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이고 간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동국통감의 발간 이후로 요 원년 갑진설과 단군조선의 개국년 요25년(BC2333) 설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구한말과 대한민국에까지 그 설이 정설로 사용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단군조선의 개국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총 세 가지 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지하여야 할 사실은 본래 단군조선의 개국년은 요 원년과 같은 해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단군의 개국년을 요 25년(BC2333)으로 잡는 것은 15세기 말에 요 원년을 새로이 갑진년으로 채택하면서 생긴 착오로 보인다. 즉 단군조선 개국년에 대한 혼선은 요 원년의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다. 15세기 말에 채택한 요 원년 갑진설을 받아들인다면 단군조선 개국년은 요 원년과 같은 해인 BC2357로 정하는 것이 옳다. 반면에 그 이전에 채택하였던 요 원년 무진년 설을 받아들이면 단군조선의 개국년은 역시 요 원년인 BC2333년 무진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단군조선 건국 기사가 처음 나왔던 13-15세기의 기록에 따라 단군조선의 개국년을 요의 원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 III. 단군조선 개국일

이상에서 단군조선의 개국년에 대해 여러 문헌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개천절 날짜를 정하려면 단군조선의 개국일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단군조선의 개국일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문헌은 없다.

8) 중국에서 간지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商(BC1600 - BC1046)대의 갑골문에서부터이다. 商의 수도는 은허(殷墟)이다.

표 4. 10월 제천의식과 개천절에 대한 문헌 기록 일부.

출전	저자/발간연도	원기록문(제천의식)
三國志 夫餘	陳壽/3세기말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飲酒歌舞 名曰迎鼓
三國志 高句麗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隧穴 亦以十月迎以祭之
三國志 韓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後漢書 濊	范曄(398-445)	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後漢書 韓		馬韓 ...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魏書 高句麗	魏收/554, 559	常以十月祭天, 國中大會
晉書 馬韓	房玄齡/644	至十月農事畢, 亦如之.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謂爲天君
南史 高句麗	李延壽/7세기중엽	以十月祭天大會
北史 高句麗	李延壽/7세기중엽	常以十月祭天
三國史記 新羅	金富軾/1145	眞興王 三十三年 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 七日罷
三國史記 雜誌	金富軾/1145	後漢書 云 <高句麗>好祀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隧{隧}神, 亦以十月迎而祭之 北史 云 □□<高句麗>常以十月祭天,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唐書 云 □□<高句麗 ... 祀靈星及日...每十月王皆自祭 古記 云 □□<濫祚王>二十年春二月, 設壇祠天地. 三十八年冬十月 <多婁王>二年春二月, <古余王>五年春正月·十年春正月·十四年春正月, <近肖古王>二年春正月, <阿莘王>二年春正月, <腆支王>二年春正月, <牟大王>十一年冬十月, 並如上行
三國史記 列傳	金富軾/1145	眞興大王 十二年辛未 ... 始置百座講會及八關之法 弓裔 光化元年 冬十月 始作八關會
高麗史	金宗瑞, 鄭麟趾, 李先齊 등/1454	有摩利山(在府南 山頂有彗星壇 世傳檀君祭天壇)-권 56 지리지
朝鮮王朝實錄	1452-1454(세종실록 지리지)	摩利山(傳朝鮮檀君祭天石壇)-권148 지리지
	1909.1.15	羅喆 등의 檀君教 창립(훗날 대종교)
동아일보	1921.11.2(음10.3)	開天節 慶賀式
官報 제6호	1948.9.8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官報 號外	1949.10.1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함.
官報 제3014호	1961.12.1	공화당 군사정부. 연호에 관한 법률 - 단기연호사용 폐지. 대한민국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구한 말에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한 것은 시월에 추수감사제, 종교의식

(始祖神), 호국의식 등의 성격을 띤 천신제를 열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우리민족의 오랜 전통을 고려하여 이때를 단군조선의 개국일이 있는 달로 삼은 것에 기인한다.

또 3일을 채택한 것은 그것이 예로부터 신성한 수로 여겨져 왔으며<sup>9)</sup>, 달이 생기충만한 초생 상태를 보이는 날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sup>10)</sup>. 실제로 삼국유사에 소개된 단군신화에는 “환인·환웅·단군”, “천부인 세 개”, “무리 3천 명”, “풍백·우사·운사”, “삼칠일” 등 수치 3이 여러 번 등장한다.

비록 음력 10월 3일이 단군조선의 개국일자라는 직접적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2천년 동안 시월에 제천행사를 하며 하늘에 제사를 드려왔던 것은 국내의 여러 문헌에 나타난 주지의 사실이다. <삼국지>와 <후한서>에 따르면 부여에는 영고(迎鼓), 예에는 무천(舞天), 고구려에는 동맹(同盟)이라고 불리는 제천행사가 시월에 거행되었다 (표 3 참조). 또한 황해도 구월산(三聖祠), 강화도 마니산 등지에 제천단이 있어 단군에 제사를 지내왔음이 기록되어 왔다<sup>11)</sup>. 국가적 제천의식 때 국조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묶어 10월에 단군조선의 개국을 기념하였고 보는 것은 크게 무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IV. 토의 및 제언

위의 검토를 종합하면 단군조선의 건국년은 요 원년과 같은 해이고, 양력으로는 BC2357년(요 원년이 갑진년인 경우) 또는 BC2333(요 원년이 무진년 경우) 등이라 할 수 있다. 요 원년에 대한 설들이 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졌던 무진년설과 갑진년설 만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sup>12)</sup>. 또한 개국일은 음

9) 우실하(2004)는 북방 샤머니즘의 ‘3수 분화의 세계관’의 기원에 대해서 “북방 샤머니즘의 중요한 관념 체계인 三界九天說, 宇宙數 관념, 三魂一體說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최초의 태극관념인 三太極/三元太極 관념과도 이어진다. ... 북방샤머니즘의 사유체계에서 성수 3이나 3의 배수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수 3의 기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주의 구조를 상·중·하 삼계 혹은 天界·人界·地界의 삼계로 나누는 사유 체계에서 기원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10) 동아일보 1928년 11월 23일자 개천절 기사

11)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표 3 참조.

12) BC2333년을 택하는 경우는 언뜻 현행과 같은 해로 보이지만 현행 서기전 2333년은 단군개국년을 요 25년으로 잡아 양력으로 변환한 것이다. 현행과 같이 요 원년을 BC2357년(갑진년)으로 잡는다면 단군개국년 역시 BC2357년이 된다. 요 원년 갑진년설을 고수하자면 단군조선 개국년을 고쳐 잡으면 되는 것이다.

력 10월 3일로 삼는 것은 오랜 전통을 이어받는 가장 자연스런 선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단군조선의 건국년월일 지정에 대한 본고의 결론은 요 원년인 BC2333년 무진년 또는 BC2357년 갑진년으로, 건국일은 이 해 음력 10월 3일로 잡는 것으로 요약된다.

1949년 국회에서 제안된, 그러나 채택되지 못했던 안을 따르자면 단군조선의 개국일 BC2333년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이를 개천절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를 반대하였던 의원들의 지적과 같이 이 시대는 아직 음력이 사용되고 있지 않던 때이므로 BC2333년까지 거슬러 음양력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적당한 역법(歲首 결정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이는 개천일을 찾는 의의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sup>13)</sup>. 또한 앞서 강조한대로 단군조선의 개국년은 요 즉위 원년이라는 것에는 상당한 문헌적 뒷받침이 있지만, 요 원년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력 환산이 유일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인이 본 발표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단군조선의 건국년을 요 원년으로 잡자는 것과 함께 개천절을 앞으로는 양력이 아닌 음력 10월 3일로 정하자는 것이다. 태음력은 달의 위상을 따라 날 수를 세어나가는 방법이다. 태양력은 계절의 주기적 변화를 날 수로 세어나간다. 그런데 일년의 길이는 달의 위상주기의 정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태음력이 해의 변화도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1년의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 문제를 갖게 되고, 그 길이를 맞추는 방법이 바로 역법인 것이다. 한해에 달을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바로 고대에 음력을 사용한 나라들의 역법이었던 것이다<sup>14)</sup>.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양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태음력은 달이 차고 이질어짐에 따른 날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조수간만의 정도를 바로 알려주는 등 현실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알려주는 달력이다. 즉 태양력은 태양의 운동에 따른 계절의 변화는 충실히 알려주지만 달의 운동에 따른 지구상의 변화는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다. 동양의 고대사를 살펴볼 때 단군조선시대에도 달의 위상을 따라, 즉 음력으로 날을 세어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개천일을 기념하려면 음력을 따라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13) 그러나 이 변환이 크게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1년의 변화는 분명하기 때문에 수 천년이 지나도 음력이 1-2달 이상 양력과 달라지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14) 이렇게 계절변화를 따르기 위해 보정을 해나가는 역법을 태음태양력(음양력)이라고 한다. 편의상 본고에서는 이 역시 음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949년 10월 1일자 관보에 공고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의 네 날을 양력 일자로 국경일을 삼았다. 이 날들을 태양력으로 정한 이유는 당시 국회 기록에 나타난 김봉조 의원의 발언에 표현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개천절의 시월 삼일 이것은 분명히 작년까지 음력 시월 삼일로 이렇게 거행해왔는데 음력과 양력을 병행하는 것이 도저히 문명국가에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은 역사가에 부탁을 해서 단군이 등극하던 그 개천절을 시방 양력으로 고쳐서 ...”

즉 개천절을 음력일로 삼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음력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이었다. 위의 4대 국경일 중에서 개천절 이외의 세 날들은 모두 근세의 일들이므로 태양력으로 정확한 날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음력으로 기념하던 전통이 없던 날들이다. 따라서 오래 동안 음력을 따라 기념하던 개천절을 이 날들과 똑같이 취급하여 양력으로 기념일을 정한다는 것은 국경일로서의 그 상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음력일로써 개천절을 정하면 양력 환산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논란을 모두 피할 수 있다. 앞서 단군조선의 개국년 문제는 요의 즉위년에 대한 이설들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개국년은 단군조선의 개국일자를 양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천절을 음력으로 정하자는 본고의 제언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개천절이 음력으로 고정되면 양력 날짜로는 매년 변동이 있겠지만, 이 정도 불편함은 음력을 따름으로 인해 생기는 개천절의 상징성을 드높이는 소득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에는 민족의 축제인 설날과 추석, 그리고 석가탄신일과 같이 음력으로 기념일을 삼는 날들이 공인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민족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결과인데, 오로지 개천절만이 그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무관심으로 인해 기념일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개천절이 국초에 우리의 것(음력)을 경시하는 시각과 국제화에 대한 맹목적인 의욕으로 인해 성급히 양력으로 정해졌지만, 이제라도 개천절 본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력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정배, 고조선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단군학 연구, 제9호, 17쪽, 2003
- 동아일보, 1921년 11월 2일(음10. 3)자 개천절 기사
-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서울대학교 출판부, 47-81
- 송호수, 단군사상과 민족주의, 단군, 서울대학교 출판부, 353-382
- 우실하, 동북아 샤머니즘의 성수(聖數: 3.7.9.81)의 기원에 대하여, 단군학 연구, 제 10호, 207쪽, 2004
- 이은봉, 단군신앙의 역사와 의미, 단군, 서울대학교 출판부, 299-331
- 제5회 국회임시회의기록집 제3호, 1949. 9. 21
- 최병헌,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단군, 서울대학교 출판부, 139-157

# 고조선의 천문과 복두칠성

이 용 복

서울교육대학교 / 소남천문학사연구소

## I. 서론

고조선에 대한 것은 고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하여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이라도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조선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 간 많은 이견이 있고 학문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고조선(古朝鮮)이라는 명칭은 고대 조선이라는 의미로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기 사용된다. 조선이라는 명칭은 태조에 의한 조선이 창건되기 이전부터 단편적이지만 중국의 여러 고서에 나타난다.

고조선이 역사서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기원전 7세기 초이다. 이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알고 있는 『관자(管子)』에 □□발조선(發朝鮮)□□이 제(齊)나라와 교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 『산해경(山海經)』에는 조선이 발해만(渤海灣) 북쪽에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기록에 나타난 조선은 대체로 요하(遼河) 유역에서 한반도 서북지방에 걸쳐 성장한 여러 지역집단을 통칭한 것이다. 이외에도 『전국책(戰國策)』, 『염철론(鹽鐵論)』 등과 같은 고서적에 나타나고, 특히 중국 정사(正史)인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에도 보인다.

그러나 고조선에 대한 기록으로 현재에 남아 있는 고대 기록으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나 『제왕운기(帝王韻紀)』와 같이 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있다. 물론 더 많은 기록이 있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전승되어 현재에 남아있는 것이 극히 적은 것이 아쉬운 점이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고조선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고조선의 역사와 그 강역에 대하여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본다. 이어 고조선 강역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적과 발굴된 당시의 청동기 유물을 통하여 천문학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청동기 유물에 나타난 문양을 통하여 천문학적 요소나 흔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고조선의 역사

고려(高麗) 시대에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나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紀)』에는 신화의 형태로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단군의 건국 사실을 전하는 기록은 고려시기에 들어와 처음 보인다. 그러나 이때 들어서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가 처음이 아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는 각각 '고기운(古記云)', '본기왈(本紀曰)'이라면서 신화 형태의 단군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로보아 그 이전에 이미 단군신화를 기록한 사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군의 조선 건국 사실은 일찍이 중국에도 알려져 위(魏)나라의 역사책인 『위서(魏書)』에 기록되기까지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환인(桓因)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홍익인간(弘益人間)의 큰 뜻을 품고 권위의 상징인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지니고 태백산(太伯山) 마루의 신단수(神檀樹) 밑에 내려왔다. 이곳에 신시(神市)라는 사회를 건설하여 풍백(風伯)과 우사(雨師) 및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이곳을 다스렸다고 한다. 그 아들 단군왕검(檀君王儉)은 다시 아사달(阿斯達)에 도읍하여 조선을 개국하였는데 때는 중국의 요(堯) 임금 시절이라 하였다. 또한 훗날의 고구려, 백제, 신라와 남북 옥저(沃沮), 동북 부여(夫餘), 예(濊)와 맥(貊) 등이 모두 이 단군의 자손이라 하였다. 특히 천부인(天符印)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桓雄)이 천제(天帝)인 환인(桓因)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거하면 청동검, 청동거울, 및 청동방울의 3가지로 추측된다.

중국의 산둥성 가상현(嘉祥縣) 자운산(紫雲山) 아래에서 발견된 무씨사당(武氏祠堂) 석실(石室)의 화상석(畫像石)에 그려진 그림도 삼부인(三符印)이 나타난다. 그리고 풍백, 운사, 우사가 보이고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등 단군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 화상석에는 구름을 타고 있으면서 어깨에 날개를 단 천상의 인물과 말들, 그렇지 않은 지상의 인물과 말들이 보인다. 오른쪽 상단에 앞으로 앉은 천상 인물이 들고 있는 세 개의 구슬은 삼부인(三符印)을 그린 것으로 보

이다. 두 번째 층 그림에는 무슨 나팔 같은 것을 입에 대고 부는 풍백과, 두 손에 망치를 쥐고 양 쪽에 있는 북을 치는 운사, 물병을 쥐고 있는 우사가 보인다. 세 번째 층 오른쪽에는 곰과 호랑이가 보인다. 이 무씨사당은 서기 14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무리 늦어도 이 무렵까지는 단군 신화의 골격을 이루는 이야기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이것은 이러한 신화를 가진 민족이 아시아 동북지역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

고조선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단군조선(檀君朝鮮), 기자조선(箕子朝鮮), 위만조선(衛滿朝鮮) 등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고조선을 왕검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리고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 전조선기, 후조선기 및 위만조선기로 나누고 있다(이형구 1999). 전기조선의 시작은 단군이고 후기조선의 시작은 기자(箕子)로 정하고 있다.

고조선에 관한 연구는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이 고조선의 강역에 대하여 문헌 고증을 바탕으로 연구했다(박광용 1980). 당시 실학자들은 역사 인식의 기본으로 화이사상(華夷思想)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고증학적 입장에서 사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강역의 고증을 통하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세웠다(김영호 1984). 이러한 입장을 가진 실학자의 대표적 인물이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 한치윤(韓致淵 1765 ~ 1814) 등이었다. 이러한 실학자들의 연구는 고조선 역사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고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제 침략기 시대에는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시도를 한 시기이다. 고조선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대사 전반을 왜곡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예를 들어 단군사적(檀君史蹟)은 불교 설화에 근거를 둔 가공스런 이야기라고 폄하시키고, 고조선의 역사 전체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역사성을 부정하였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남과 북은 고조선 역사에 대한 연구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남한의 학자들은 고조선의 존재를 역사가 아닌 신화라는 입장에서 접근했다. 특히 고조선의 국가 특징을 연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전반적인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다. 다만 단군조선은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관념적이고 신화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였다. 이 때 민족적

문제 때문에 기자조선(箕子朝鮮)은 부정되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해방 이후 고조선 역사에 대하여 집중적 연구를 진행했다. 기자조선에 대한 부정은 남한과 같다. 남한의 경우는 일본학자들이 연구한 부정적인 입장의 역사관에 영향을 받았으나, 북한은 민족주의적인 역사 인식이 강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김정배 1991). 북한에서 본격적인 고조선 역사의 전환점이 된 것은 1960년대 초에 출간된 이지린(李址麟)의 『고조선연구』였다. 이지린은 고고학적 발굴과 자료들을 이용하여 내용을 보완하여 국가적 체계로서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북한의 고조선 역사 연구와 역사 인식이 남한에 소개되었다. 이 후로 고조선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고조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논쟁의 실마리를 준 것이 발해 연안에서 발굴된 발해연안식(渤海沿岸式) 청동단검(靑銅短劍) 등과 같은 다양한 청동기 유물이다.

### III. 고조선의 강역과 청동기 유물

우리는 고조선의 강역에서 발굴된 대표적 유물이라면 흔히 비파형동검을 든다. 이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 중에서 중국 요령(遼寧)에서 발굴된 전형적인 모습을 한 것이 요령식동검(遼寧式銅劍)이다. 이는 요동(遼東) 지역의 고고학적 성과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 문화가 북한 학계에서는 요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우리 학계도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등 고고학적 유물의 분포와 문헌 사료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에 있었으나 기원전 4~3세기경에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이른바 이동설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대동강 중심설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는 이병도이다. 그의 연구로 삼국유사는 단군이 평양에 도읍 하여 조선을 건국하고, 평양은 서경이라는 주를 달고 있다. 정약용과 한치윤 등 실학자들도 패수를 압록강으로 보고 고조선의 중심을 한반도로 고증하였다.

다음은 요동 중심설이다. 조선시대 권람(權擘 1416 ~ 1465)은 그의 저서 『응제시주(應制詩註)』에서 낙랑을 압록강 북쪽으로 보고, 기자 조선을 요동과 요서 지방으로 비정하였다. 17-18세기의 남인 학자들이 계승한 이 설은 신채호 정인보 등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주장이고 윤내현이 가세하였다. 고조선은 북경 근처 난하(灤河) 유역과 갈석산(碣石山) 지역을 중국과의 경계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이동설로서 고조선 초기 중심지는 요동이었으나 후기에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왔다는 절충설이다. 종래에 부정하던 기자 조선을 동이족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남한 학계의 정리된 견해는 다음과 같다. 고조선은 초기에는 요하 동쪽 해평 개성현에 중심을 두었으나, 후에 와서 왕검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고 본다. 왕의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하를 경계선으로 하여 중국의 연나라와 서로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고 본다. 북한 학계는 단군릉 조성을 계기로 그동안 요동 중심설을 포기하고 대동강 중심설로 견해를 바꾸고 있다.

당시 이 일대에는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과 관련된 문명을 공유하고 있던 여러 집단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가 성장하면서 큰 세력으로 통합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단군 신화는 고조선을 세운 중심 집단의 시조설화(始祖說話)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가, 뒤에 공통의 문화를 가진 고조선 국가 전체의 건국 설화로 확대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 요령식 동검의 모습.

이 요령식동검은 청동기 유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발견된 것만 54점이나 된다. 이 동검은 검심(劍身)과 검과(劍把)를 조합하도록 주조한 것이다(이건무 1992). 그림 1은 우리나라 중서부와 남부지방에서 발굴된 동검들의 모습이다(국립중앙박물관 1992). 모든 동검들의 공통적 특징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이 넓고 둥글게 되어 있어 마치 비파(琵琶)의 모습을 하고 있다. 중앙 부분보다 약간 위에 위치한 곳 좌우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기(突起)를 가진 특이한 형태이다. 돌기에서 위로 갈수록 동검의 폭이 서서히 좁아지고 끝은 뾰족한 형태를 보인다. 이 동검의 중앙에는 길게 둥근 형태로 튀어나온 경부(莖部)가 상하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경부에 가는 홈이 길게 파져있는데 이 형태는 요령지방의 동검에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중서부와 남부지역에서 발굴된 것만 나타난다.



그림 2. 충청남도 아산 남성리(南城里)에서 출토된 조문경(粗文鏡).

고조선 시대의 유물 중에서 많이 출토된 청동기 유물은 청동거울이다. 이 청동거울은 표면에는 다양한 무늬를 새겨 넣고 있다. 대부분 가는 선을 그어서 만든 기하학적 무늬가 대부분이다. 선을 그린 방법 중에서 굵은 선으로 거칠게 그린 거울은 조문경(粗文鏡)이라 하고, 가늘고 정교하고 세밀한 선으로 그린 것을 정문경(精文鏡)이라 하여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는 충청남도 아산 남성리(南城里)에서 발굴한 조문경의 모습이다(국립중앙박물관 1992).

충청남도 논산 훈련소 부근 야산에서 청동거울과 팔주령(八珠鈴), 쌍두령(雙頭鈴), 간두령(竿頭鈴), 청동거울 등이 한꺼번에 발굴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2). 이 중에서 그림 3에 있는 구리거울은 대단히 정교한 문양을 새겨 넣어 놓았다. 수없이 많은 가는 선들을 연결하여 삼각형이나 동심원 무늬를 새겨 넣었다. 특이하게도 동심원은 네 방향에 2개씩 짝을 지어 총 8개를 배치했는데 대단히 정교하게 동심원을 그린 무늬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 구리거울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구리거울 중에서 정문경(精文鏡)으로 가장 뛰어난 유물 중 하나이다.



그림 3. 논산에서 출토된 국보 제141호의 청동거울.

이와 유사한 구리거울이 충청남도 당진(唐津) 소소리(素素里)에서 출토된 정문경 파편은 논산에서 출토되어 국보로 지정된 정문경과 대단히 유사한 형태와 무늬를 보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기하학적 문양의 배치와 세밀하고 가는 선으로 그린 동심원의 모습은 너무도 정교하다. 이 그림은 파편에 나타난 문양을 모사해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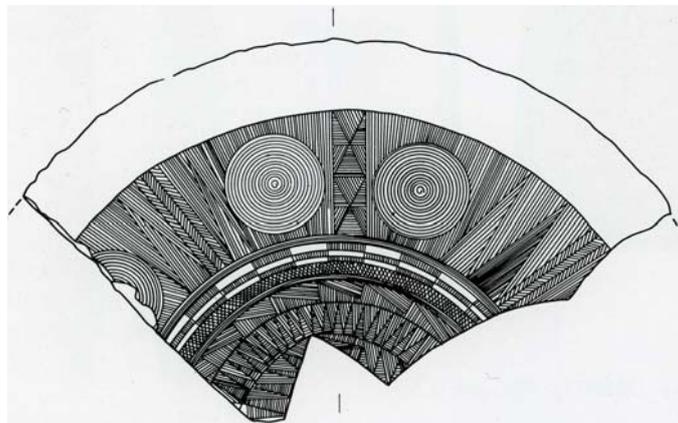


그림 4. 당진 소소리에서 출토된 정문경의 파편.

다음으로 많이 출토되는 청동기 유물은 청동기로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방울이다. 그림 5는 충청남도 논산(論山)에서 일괄 유물로 출토된 청동기 유물이다. 출토된 유물의 명칭은 모서리에 방울이 8개 부착된 팔주령(八珠鈴),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자루에 두 개의 방울이 부착된 쌍두령(雙頭鈴), 손목에 낄 수 있도록 고안된 조합식쌍두령(組合式雙頭鈴), 나무 막대 끝에 꽂아서 흔들어 소리를 낼 수 있는 간두령(竿頭鈴) 등이다.



그림 5. 논산에서 일괄 유물로 출토된 팔주령, 쌍두령, 조합식 쌍두령 및 간두령.

위의 팔주령(八珠鈴)은 모서리를 길게 연장한 팔각으로 된 청동판 끝에 각각 1개씩 방울을 단 의기(儀器)의 일종이다. 이 표면에는 움푹한 부분에 짧은 선을 조밀하게 음각하여 십자(十字) 문양을 새겨 놓거나, 또는 방사선 형태의 일광(日光) 무늬를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짧은 방사선 모양의 선을 음각(陰刻)하였다. 뒷면에는 아예 문양이 없거나 표면과 같은 모양이 새겨져 있고 중심에는 고리가 붙어 있다. 방울은 약간 이글어진 구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청동기 유물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은 전시 또는 생활에 직접 활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특별한 제례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동기 유물의 공통적 특징은 표면에 섬세한 문양을 새겼다는 점이다.

#### IV. 청동기 유물에 나타난 천문학

우리 조상은 예부터 다양한 형태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별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이전 부여(夫餘)는 영고(迎鼓)라 하여 12월 추수를 끝낸 뒤 선달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추수를 감사하면서 노래와 춤을 즐기던 제의(祭儀)를 거행했다. 동예(東濊)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10월에 농사를 마치고 10월에 택일하여 높은 산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던 행사를 했다. 이러한 행사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고구려의 경우 중국의 문헌인 『삼국지』의 위지편 동이전(東夷傳)에 따르면 “고구려 모든 마을의 남녀노소가 밤에 모여 서로 노래와 놀이를 즐기며 10월에 제사를 지내면서 대회를 여는데 그 이름을 동맹이라 한다”고 하였다. 『후한서』의 동이전에도 “10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에 남녀가 모여 춤과 노래를 즐기고 귀신, 영성, 사직에 제사하기를 즐겼는데, 그 이름을 동맹이라 하더라.”라는 기록이 보인다. 신라시대에도 영성제(靈星祭)라 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영성제 이외도 일월제와 오성제를 지내면서 하늘에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이렇게 제천의식은 주로 별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제천의식은 삼국시대 전후에 행해졌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그 전 상고시대부터 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발견된 청동기 유물을 사용하던 고조선 시대에도 당연히 이와 유사한 제천의식이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천의식 중 중요한 대상은 북두칠성이었다고 보인다. 북두칠성은 천구의 북극을 일주운동 하면서 밤 동안 시각을 알려준다. 이뿐만 아니라 초저녁이나 새벽에 북두칠성이 놓인 모습을 보고 계절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역법에 적용한 내용이전한(前漢) 시대 회남왕(淮南王)이었던 유안(劉安)이 저술한 『회남자(淮南子)』의 시칙훈(時則訓)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孟春之月 招搖指寅 昏參中 昴尾中  
 仲春之月 招搖指卯 昏弧中 昴建星中  
 季春之月 招搖指辰 昏七星 昴牽牛中  
 孟夏之月 招搖指巳 昏翼中 昴婺女中  
 仲夏之月 招搖指午 昏亢中 昴危中  
 季夏之月 招搖指未 昏心中 昴奎中  
 ……

위의 내용은 계절에 따라 해가 진 후 초저녁인 혼각(昏刻)에 북두칠성의 자루 끝에 위치한 초요성(招搖星)이 향한 방향에 따라 달의 명칭을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혼각에 초요성이 인방(寅方)을 향하는 달이 인월(寅月)이라 하여 정월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월(子月)부터 해월(亥月)까지 1년 12달의 계절과 관련된 시기를 북두칠성의 손잡이 끝에 위치한 초요성이 향한 방위를 이용하여 정했다. 따라서 선사시대 이전부터 북두칠성은 달력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계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두칠성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별일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여기게 되었다. 能田忠亮(1989)은 중국 고대 서적인 『예기(禮記)』의 월령(月令) 편에 나오는 내용을 분석하여 『예기』의 기록이 언제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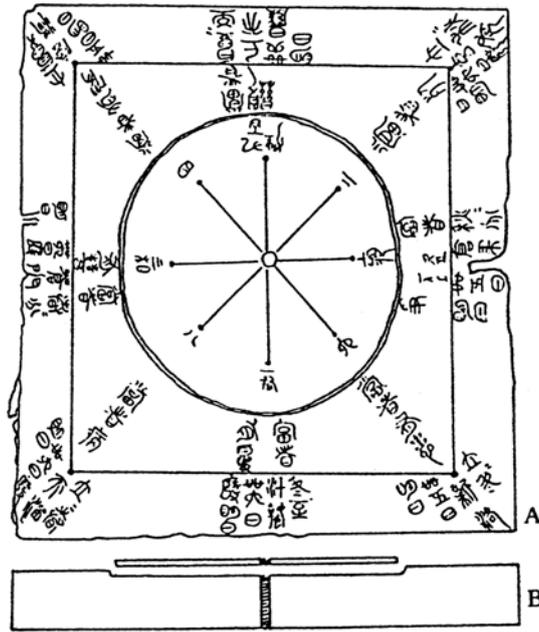


그림 5. 태을구궁점반의 평면과 측면의 모습.

이는 일년의 길이를 8등분한 것으로 24기 중에서 팔정(八正)에 해당한다. 팔정이란 이분이지(二分二至)인 춘분, 추분, 하지 및 동지이고, 사립(四立)인 입춘, 입하, 입추 및 입동을 뜻한다. 이렇게 1년의 기간을 8등분 하는 방법은 이미 『회남자(淮南子)』에 나타난다. 1997년 7월 중국 안휘성(安徽省) 부양현(阜陽縣)에서 한나라시대 조성된 묘 속에서 발견된 태을구궁점반(太乙九宮占盤)은 이를 잘 말해준다(그림 6). 이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는 다양한 유물과 서적이 존재한다.

특히 평양 낙랑 고분에서 발견된 육임식반(六壬式盤)은 그림 6에서 보듯이 중심 원 안에 북두칠성을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28수를 그려 넣고, 그 안쪽에 12 방위와 8방위를 표시하고 있다. 8방위에는 8괘를 표시하여 이분이지와 사립인 팔정(八正)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방위와 계절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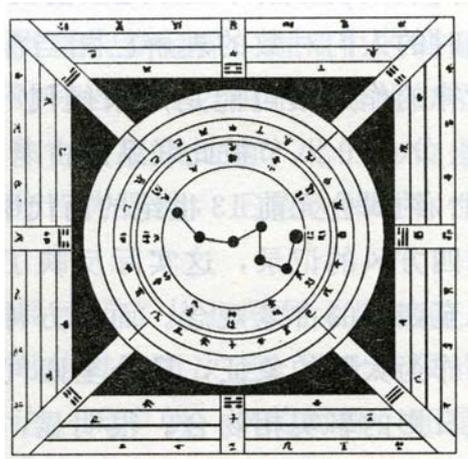


그림 6. 낙랑시대 왕 간(肝)의 묘에서 발굴한 옥임식반(馮時 2005).

고조선 시대의 청동기 유물의 형태와 무늬를 분석해 보면 천문과 관련된 내용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청동기 유물이 제천의식에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천상의 운행 현상을 유물 제작할 때 반영이 되었으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천문 현상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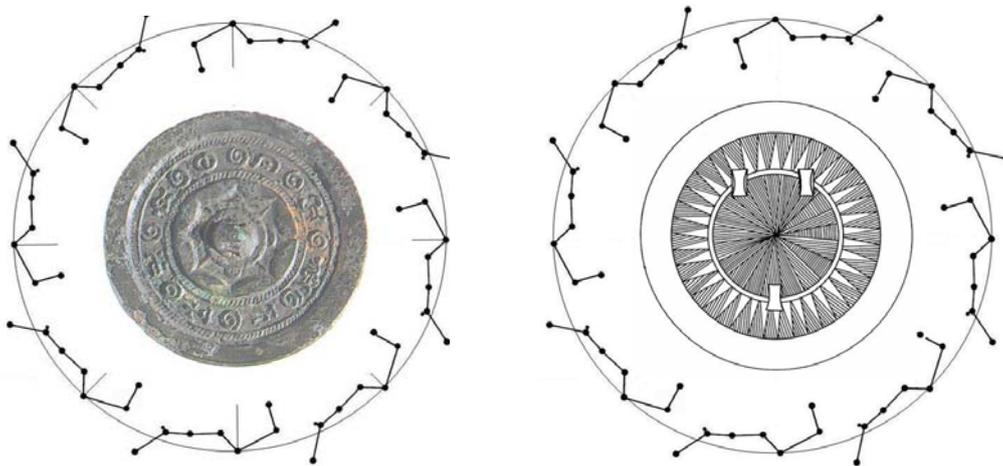


그림 7. 청동거울과 팔방위(八方位)에 따른 북두칠성의 위치 변화.

청동검의 경우는 특별한 문양이 없지만, 청동거울의 경우 선으로 연결해서 만든 무늬는 별이나 태양을 상징하고 있다. 앞의 그림 2에 나타난 무늬를 보면 중심에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원에서 방사선 형태의 삼각형 무늬를 배열하고 있다. 이것으

로 보아 중심에 태양이 위치하고 태양의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강렬한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고 보인다. 그림 3과 그림 4의 청동거울을 보면 중심에 태양인 듯한 원형의 천체가 있고 그 주위 사방위에 2개씩 동심원으로 8개의 원을 그려 놓았다. 이는 8방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태양이 황도(黃道) 위에 있는 별자리 사이를 운행할 때 지나는 8개 지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별의 모습을 강조해서 그려 넣었을 수도 있다.

그림 7의 왼쪽의 유물은 대구 지산동에서 출토된 유물들(국립중앙박물관 1992) 중 구리거울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동환(銅環)과 북두칠성을 배열해서 그린 것이다. 이는 혼각에 북두칠성의 배치 모양이 계절과 관계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특별히 이 동환의 가장자리에는 용도와 의미를 알 수 없는 상징적 기호도 보인다. 그림 7의 오른쪽에 청동 거울은 북한 지역에서 출토된 정문경(精文鏡)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 거울의 중심에는 태양으로 보이는 중심원이 있고 주위에 강한 태양 광선이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청동거울은 단순히 사용자의 모습을 비추어 보던 거울의 기능이 아니라 제천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의기(儀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동거울의 이면에 새긴 무늬는 주로 하늘의 중심적인 천체인 태양을 표시하고, 천체 운행 원리를 포함하고 담고 있다. 태양이 황도를 따라 운행하는 경로와 태양이 계절에 따라 운행하는 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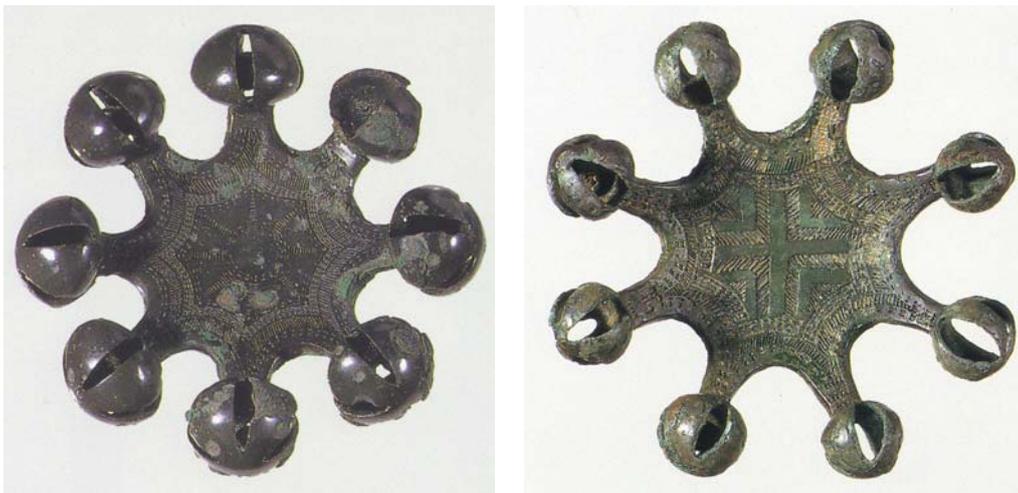


그림 8. 충청남도 논산(論山)과 덕산(德山)에서 발굴된 팔주령(八珠鈴).

다음 청동기 유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8개의 방울이 달려있는 팔주령(八珠鈴)이다. 위의 그림 8에서 보듯이 팔주령의 모습은 마치 원주 위를 운행하는 태양이나 또는 8개의 별들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팔주령의 중심부에는 태양으로 보이는 원형의 원이 그려져 있고 방사선 모양의 선이 그려져 있다. 또는 태양 모양 대신 십자(十字) 문양이 그려져 있다. 팔주령의 중심에 십자(十字) 문양은 지상 또는 하늘의 방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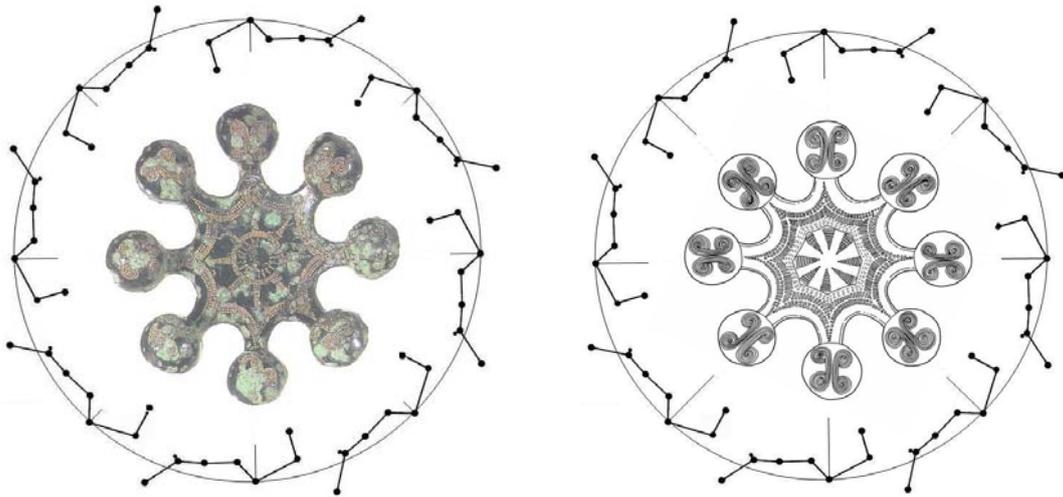


그림 9. 팔주령 주위에 북두칠성을 배치한 모습.

팔주령은 제천의식 때 사용하던 청동방울이다. 이 방울에는 중심에서 방사선 모양으로 8방위를 따라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표현했다. 그림 9에서 왼쪽의 팔주령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발굴된 것으로 중심에 천구북극 또는 태양으로 보이는 작은 원을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선을 연결해 놓고 그 위를 다시 작은 원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 두 번째 원에서는 팔주령의 방울이 있는 방향으로 방사선 지선이 8개가 뻗어나가고 있다. 이는 마치 하늘의 특정 방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의 오른쪽 팔주령은 전라남도 화순 대곡리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것은 중심부분과 방울 위에 대단히 특이한 문양을 새겨 놓았다. 중심은 한 점에서 방사선 형태로 뻗어나가는 모습은 뚜렷하게 특정 방위를 향하고 있다. 마치 나선형으로 회

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8개의 방울에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말려들어가는 아령을 서로 마주 붙여 놓은 모습이다. 따라서 8개의 방울 각각에 4개의 와상 문양을 정교하게 새겨 놓았다. 이는 천국북극을 중심으로 하여 하늘의 특정한 8방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천구북극을 중심으로 하여 천구의 8방위에 있는 특정한 별을 지칭하는 것같이 보이기도 한다.

위의 그림 9에서 보면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방울과 표면에 새겨진 문양은 천체 운동을 알려주는 방위 또는 천체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팔주령의 팔각형을 띠고 있는 외형적 모습은 천구북극을 중심으로 8방위와 우주의 모습을 상징화한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표면에 새겨 놓은 다양한 문양은 천체들의 운행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징화된 우주의 운행 체계는 천구북극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북두칠성을 연상하게 된다. 즉, 일몰 후 혼각에 보이는 북두칠성의 위치를 계절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혼각에 보이는 북두칠성의 놓인 위치를 이용하여 계절의 흐름을 알고 또한 하루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는 상징물로 보인다. 즉, 이 유물에서 계절과 시간이 변하는 우주의 운행 원리를 표시한 것이다.

고대 중국의 『회남자』 시척훈에 기록된 것 같이 계절에 따라 혼각에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이 향하는 방위가 계절이고, 하루 동안 이 자루가 향하는 방위가 변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인 것이다. 역법을 바탕으로 보면 계절에 따라 8개의 방위를 향하는 시기는 팔정(八正)을 의미하고, 하룻동안 8방위를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3시간씩 경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V. 결론

이미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고조선 시대의 유물로 알려진 다양한 청동기 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것이 비파형동검, 청동거울, 팔주령 등이다. 이것들의 용도는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종교적 행사를 할 때 사용되던 의기로 여겨진다. 당시 종교적 행사는 하늘이나 별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의식(祭天儀式)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왔다는 삼부인(三符印)이 비파형동검, 구리거울,

및 팔주령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늘과 통하는 상징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권위의 상징물이기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동기 유물은 고조선 시대 전 지역에서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의기라고 볼 수 있다. 제정일치 시대였던 당시의 최고 지도자는 이러한 유물을 가지고 의식에 사용했다. 이러한 의기에는 당연히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과 천체 운행에 대한 사상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고조선 당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었다. 당시의 우주관의 핵심은 농사활동과 밀접한 계절변화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북두칠성 관측이다.

많은 문화권에서 북두칠성을 대단히 중요한 별자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신앙의 하나로 고조선 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고인돌 중에서 덮개돌에 북두칠성을 새겨 놓거나 또는 바위를 지면에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열해 놓고 칠성방위라 하여 제천의식의 장소로도 사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고구려 시대 까지도 전해져 고구려 고분 벽화 중 별자리가 그려진 것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별자리가 북두칠성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청동기 유물 3가지 중에서 동검은 하늘에 인간의 뜻을 알리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상징물이고, 청동거울은 하늘의 뜻을 보고 읽어내는 의기였고, 팔주령과 같은 방울은 인간의 염원을 하늘에 외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청동기 유물에는 하늘의 운행과 관련된 우주관을 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우주관의 핵심은 북두칠성의 운행에 따른 계절과 시간의 흐름이다. 그러므로 고조선시대 청동기 유물 중에서 동검, 청동거울, 팔주령 등에 북두칠성과 관련된 우주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물들은 모두 제천의식에 사용한 의기라는 점이다. 제천의식은 당연히 천체나 별이 대상이고, 그 천체들의 운행 원리에 대한 신비감이다.

둘째, 유물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당시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다. 청동거울의 원형인 점은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모습이다. 또한 팔주령의 8방위는 계절의 구

분, 시간의 구분, 하늘의 영역 등을 나눈 것이다. 특히 계절에 따라 북두칠성의 자루의 방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물에 나타난 다양한 문양은 태양이나 별이 강한 빛을 방사선 형태로 방출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청동 유물의 표면에 새긴 다양한 문양은 대부분 천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천체의 운행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1992, 한국의 청동기 문화, 범우사
- 김영호 1984, 정다산의 역사사상, 한국의 역사사상, 한국사상전집 5, 삼성출판사
- 김정배 1991, 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 대륙연구소출판사
- 能田忠亮 1989, 東洋天文學史論叢, 月令の觀測年代算定, 恒星史
- 박광용 1980,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론, 6, 1980
- 이건무 1992, 한국의 요령식동검 문화, 한국의 청동기 문화, 범우사
- 이형구 1999, 고조선(古朝鮮)에 대한 제인식(諸認識)- 단군과 고조선, 살림터
- 馮時 2005, 中國古代的天文與人文,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太白山 天祭의 歷史와 祭儀 樣相

김도현

태백산 천제위원회 / 장성여고 / 강원대 강사

## I. 太白山 天祭의 역사

### 1. 天祭의 의미와 역사

국가 차원이나 마을신앙의 대상으로 믿어지는 ‘天神’에 대한 의례는 고대사회에서 주재 집단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부여의 迎鼓, 고구려의 東盟, 백제의 祭天地, 신라의 祭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재자가 국왕으로 대표되는 최고 지배세력에 의해 행해짐으로서 왕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공동체 성원들 간의 통합을 강화하려고 행한 유형이 있다. 둘째는 濊의 舞天에서 보이는 음악 단위의 공동체 의례로 지속되어 음악민들의 일체감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역할과 다른 음악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의례로 작용한 유형이 있다.<sup>1)</sup> 셋째는 馬韓에서 天君이라 불리운 별도의 사제자가 주재하는 天神祭가 행해진 유형이 있다.

이후 제천 의례는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왕권 강화에 대한 이념적 표출로서의 제천의례보다는 건국시조와의 연관성을 통해 정당한 왕권 계승자라는 의식의 확립과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유교·불교와 같은 외래사상의 수용이 더해져 제천의례는 쇠퇴하였다.<sup>2)</sup>

이후 고려시대에 와서 하늘에 대한 제사가 다시 중시되었다. 도교 의례의 일환

1) 박호원,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33쪽.

2)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박호원,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47쪽.

으로 행해진 醮祭는 왕이 직접 주관한 親醮·大醮가 있었고, 祭天壇에서 天地 제사를 지냈다. 당시 고려에서는 고려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고, 왕실의 무병장수와 祈讓, 園丘祭를 통해 祈穀과 祈雨를 기원하며, 天祥祭를 통해 하늘에서 오는 나쁜 것을 막아 달라는 염원으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였다.<sup>3)</sup>

조선시대에는 祈穀과 祈雨를 위해 園丘祭를 행하였으나, 세종 31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세조대에 부활하였으나, 세조 10년까지 園丘祭를 행하였다는 기록만 남아 있다. 이와 함께 국가 祀典에 등재된 ‘風雲雷雨神’도 천신의 범주로 인식할 수 있고, 대한제국시대에 園丘祭를 지냄으로서 조선시대에도 천신 신앙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곳거리 중 ‘천왕곳·제석거리·세존곳’ 등에서도 천신 신앙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신앙과 관련하여 ‘세존주머니’를 모시는 경기도 화성 사례, ‘제석’을 안방에 모시는 충청도 사례, 남쪽지방의 ‘제석단지·세존단지·천왕독’ 등은 천신신앙 확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4)</sup>

## 2. 太白山 天祭의 역사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三國史記』 新羅 逸聖尼師今 5年(138)

… 겨울 10월에 북쪽으로 순행(巡行)하여 몸소 太白山에 제사지냈다.

[자료 2] 『三國史記』 新羅 基臨尼師今 3年(300)

… 3월에 牛頭州에 이르러 태백산에 望祭를 지냈다.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와서 항복하였다.

3) 김철웅, 「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 118집, 한국사연구회, 2002, 136~160쪽.

4) 조홍윤, 「天神에 관하여」, 『동방학지』, 77·78·79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3, 13~39쪽.

[자료 3] 『三國史記』祭祀志 中祀

… 五岳은, 동쪽은 吐含山 大城郡, 남쪽은 地理山 菁州, 서쪽은 鷄龍山 熊川州, 북쪽은 太伯山 奈已郡, 중앙은 父岳 또는 公山이라고도 하였다. 押督郡이었다. …

[자료 4] 『高麗史』地理誌 東界 三陟縣

본래 悉直郡인데 신라 婆娑王 때에 항복하여 왔으며 智證王 6년에 州로 삼고 軍主를 두었으며 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郡으로 만들었다. 成宗 14년에 陟州團練使로 고쳤고 顯宗 9년에 내려서 縣丞으로 하였으며 辛禡 3년에 知郡事로 올랐다. 別號는 眞珠이다. 太白山 【신라 때에 五岳에 비교하여 北岳으로 삼았다.】 …

[자료 5] 『高麗史』列傳 金方慶<sup>5)</sup>

… 忠烈王 9년에 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비니 … 어느 날 先山에 省墓하기를 빌거늘 왕이 아들 金恂을 太白山祭告使를 삼아 보내어 이를 따라가게 하니 고향에 이르러 친구를 위하여 수일 동안 머물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

[자료 6] 『高麗史』列傳 李淑

李淑의 어릴 때 이름은 福壽요 平章郡 사람이다. 어머니는 太白山의 巫女이다. 이숙은 忠烈王의 寵愛를 받았으므로 壁上三韓正匡平章君에 봉해졌고 그 후 뽑혀 元 나라에 가서 太監이 되었다. 왕이 원 나라 조정에 주청할 때는 이숙의 공로가 있었으므로 왕의 대우가 매우 두터웠다. …

[자료 7] 『世宗實錄』 世宗 8年 4月 12日

… 강원도와 함길도의 神稅布는, 처음에 무당들이 백성의 이익을 빼앗기 위하여 함부로 誑誕한 說을 가지고 民俗을 유혹시켜, 太白山의 神에게 제사하고, 혹은 한 자나 되는 베를 사용하여 神의 폐백으로 하여 무당이 취하여 썼는데, 所在한 수령들

5) 다음 자료를 보았을 때 김방경이 다녀간 곳은 태백산임을 알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4권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名宦 條. '金方慶 孝印의 아들이다. 예전에 방경의 어머니가 임신하였을 때에 …', '金恂 方慶의 아들이다. 忠烈王朝에 급제하였다.'

은 무당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미워하여, 드디어 그 베를 취하여 관용으로 쓰게 되니, 監司는 이로 인하여 일정한 공물로 인정하고 수량을 정하여 징수하게 되고, 국가에서도 이에 따라 그 베를 징수하여 歲貢으로 정하되, 모두 베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로는 감사와 수령이 戶數를 계산하여 징수하기를 태연히 꺼리지 않았으며, 그곳의 백성은 제사지낼 때를 당하면, 또 다른 베까지 준비하여 무당에게 주게 되므로, 폐단이 진실로 적지 않으니, 이것은 다른 도에 없는 폐단입니다. 대저 서민이 산천에 함부로 제사 지내면서 베를 폐백으로 사용하는 것도 진실로 禮에 어긋나는 일인데, 국가에서 또한 그 베를 징수하여 국가의 용도에 충당하게 되니, 폐해가 민생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선왕께서 일정한 수량의 供만 받던 일에도 어긋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 베를 사용하여 신을 섬기는 습속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 베를 징수하지 말게 하여, 부당하게 징수하여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폐단을 막을 것.

[자료 8] 『世宗實錄地理志』 三陟都護府

太伯山 府의 서남쪽에 있다. 신라에서 五嶽을 정할 때, 北岳으로 하였다. 사당이 있는데, 이름을 太伯天王堂이라 하였다. 여러 고을 사람들이 봄·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자료 9] 『世祖實錄』 世祖 2年 3月 28日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  
 … 本朝의 嶽鎮海濱, 名山大川의 제사는 모두 삼국과 전조의 구제를 의방해서 한 것이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龍興江은 우리 太祖께서 興運하신 땅이고, 妙香山에 이르러서는 檀君이 일어난 곳이며, 九月山에는 檀君祠가 있고, 太白山은 神祠가 있는 곳이며, 金剛山은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고, 長白山은 先春嶺의 남쪽 甲山의 북쪽에 있어 실로 나라의 北岳이 됩니다. …

빌건대 禮官에게 명하여 考定을 상세히 더하게 하고, 三角山을 中岳으로 삼고, 금강산을 東岳으로 삼고, 九月山을 西岳으로 삼고, 智異山을 南岳으로 삼고, 長白山을 北岳으로 삼고, 白岳山을 中嶺으로 삼고, 太白山을 東嶺으로 삼고, 松嶽山을 西嶺

으로 삼고, …

[자료 10] 『成宗實錄』 成宗 21年 1月 9日

권주가 말하기를,

“신이 보건대 江原道는 그 풍속이 귀신과 淫祀를 숭상하여 太白山에 모든 백성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재계하고 유숙하며 혹은 寡婦가 여러 날 유숙하는 것도 있으니, 풍속을 손상하고 허물어뜨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엄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같은 일은 본도 觀察使가 마땅히 검찰할 것이니, 글을 내려 諭示하라.” 하였다.

[자료 11] 『成宗實錄』 成宗 24年 5月 21日

이덕숭 이 또 아뢰기를,

“濟川亭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것을 위하여 국가에서 이미 魚箭을 주었는데, 또 歸厚署에서 받아들이는 神堂의 退米를 주므로, 이 때문에 棺槨의 재목이 모자라니, 도로 귀후서에 주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顧問하였다. 領事 尹弼商이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歸厚署를 설치하고 太白山 · 鷄龍山 등지의 신(神)에게 바쳤다가 물린 물건을 주어 재목을 사는 데에 쓰게 한 것은 위로 大夫에서 아래로 士庶人까지 다 棺槨을 얻어서 喪用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제천정을 重修하는 중들에게 옮겨 주었으니, 귀후에서는 관곽의 재목을 사지 못하므로 引鉦軍 30명이 다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료 12] 成俔<sup>6)</sup>의 『虛白堂集』 神堂退牛說

… 태백산신이란 무엇인가? 그 산은 동쪽으로 뻗어 大海에 임하여 삼척부가 되었고, 서쪽으로는 영춘, 남쪽으로는 죽계 등 두 고을을 이루었다. 산이 높아도 祀典에

6) 成俔(1439~1504) : 조선 전기의 학자.

올리지 않는 것은 백성에게 施功이 없었기 때문이다. 三道의 사람들이 山頂에 堂을 지어 神像을 모셔 놓고 제사를 올렸다. 歲時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고, 제사를 마치게 되면 각각 神座前에 소를 매어 놓고 돌아가는데, 소를 신좌 전에 매어 놓고 돌아갈 때는 조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뒤를 돌아보면 신이 벌을 준다고 한다. 3일 후에 府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데, 이를 退牛라 한다. 해마다 사월 초파일이면, 그 신이 邑의 城隍에 내려온다고 하여 邑人들은 깃대를 만들어 북과 피리를 성대히 갖추어 그 신을 맞아서 邑吏의 집에 둔다. 그리고 읍민들은 이곳에 몰려들어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계속하여 虛日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5월 5일이 되면 還山시킨다. 이 신에게 제사드릴 때는 조그마한 鮮味라도 먼저 祭床에 올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禍를 입는다고 한다. ...

[자료 13]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三陟都護府 祠廟

太白山祠 산꼭대기에 있는데, 세간에서 天王堂이라 한다. 이 산 곁의 본도 및 경상도 고을 사람이 봄가을에 제사하는데, 神座 앞에 소를 매어 두고는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난다. 만약에 돌아볼 것 같으면 불공한 것을 신이 알고 죄준다 한다. 사흘이 지난 다음 부에서 그 소를 거두어 이용하는데, 退牛라 한다.

『신증』 近山祠 부 남쪽 10리에 있다. 세간에서 大天王祠라 부르며, 고을 사람이 봄가을에 제사한다.

[자료 14]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奉化縣 驛院

道深驛 현 남쪽 5리에 있다. 전에는 현 북쪽 30리에 있었는데, 太白山祭를 폐지한 뒤로 이곳에 옮겼다.

[자료 15] 丁若鏞의 『牧民心書』

慶尙道 觀察使 金緞<sup>7)</sup>가 太白神社를 헐어버렸다고 기록

7) 金緞 : 1577년(선조 10년)에 태어나서 1625년(인조 3년)에 돌아간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士精이며, 호는 南峰·深谷이다. 1597년(선조 30년)에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說書를 거쳐 1608년 賜暇讀書했다. 광해군 때 사시僕寺正·이조참의·동부승지·대사간을 거쳐 각종

[자료 16] 許穆의 『眉叟記言』 退牛條

… 원근에서 서로 다투어 가면서 태백신에게 災厄을 기도한다. 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소를 神祠 밑에 매어 놓고, 祝言을 마치면 소를 그냥 두고 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만약 돌아보면 신에게 바치는 소를 아낀다 하여 신이 歆饗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당 아래 있는 소를 산 밑의 사람들이 잡아먹어도 아무런 재액이 없었다. 이것을 退牛라 했는데, 官府에서 이 말을 듣고 監考를 정하여 날마다 관청에 드리게 했다. 그러다 冲學이란 山僧이 그 사당을 불지르자 祠가 없어졌고, 소를 바치는 일도 없어졌으므로 감고도 폐지하게 되었다.

[자료 17] 許穆의 『眉叟記言』

… 무지한 백성들이 백두옹(白頭翁)을 가리켜 태백산 신령이라 하는데, 태백사(太白祠)의 기도로 길흉을 점친다고 한다. 전에 태수(太守)로 죽은 몇 사람이 모두 백두옹인데, 인심이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혹은 꿈에 백두옹만 보이면 모두 죽었다 하나 이것에는 까닭이 없다.

[자료 18] 許穆의 『陟州誌』

太白山과 관련하여 정상부에 天王祠가 있어 봄 가을로 제사 지내고, 소를 바친다

[자료 19] 『崔先生文集道源記書』<sup>8)</sup>

… 수운 사후에도 설단제천이 거행되었는데, 李弼濟는 관의 추격으로 쫓겨다니다가 태백산간에서 설단제천 후 인근 관아를 습격하였다. …

---

벼슬을 하였으나, 광해군의 학정이 날로 심해짐을 깨닫고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였다. 인조반정이 있을 무렵 沈器遠과 사전에 내통하여 벼슬길에 다시 올랐으나, 大北派로 몰려 유배당하였다. 그 뒤 풀려나 동래부사를 거쳐 1625년(인조 3년)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어릴 적부터 학문에 정진하고 經書에 통달했고, 특히, 점술을 연구하여 天文에 밝았다. 저서로는 深谷秘訣이 있다.

8)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9, 220쪽.(최종성, 「숨은 天祭 -조선 후기 산간제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발표자료집』 (제 149차 연구발표회),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14쪽에서 재인용).

[자료 20] 昭和 十六年 刑公 第 310號/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재판 기록<sup>9)</sup>

1937년에는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은 후, 소화 12년(1938)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 최익한, 유형호, 유형남, 이창순, 이금손, 주인섭, 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다음 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으며,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 ~ 3시 사이에 지냈다고 한다.

위에서 소개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신라 때부터 태백산에서 국가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운영 사례는 국가 주도과 지방 관아가 관여하여 주로 민간인들이 致祭한 형태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예는 [자료 1~5]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三國史記』 新羅 逸聖尼師今 5年·『三國史記』 新羅 基臨尼師今 3年·『三國史記』 祭祀志 中祀·『高麗史』 地理誌 三陟縣條와 함께 『高麗史』 列傳 金方慶條에는 “忠烈王 9년에 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비니 ... 어느 날 先山에 省墓하기를 빌거늘 왕이 아들 金恂을 太白山祭告使를 삼아 보내어 이를 따라가게 하니 고향에 이르러 친구를 위하여 수일 동안 머물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는 신라대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태백산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태백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致祭는 『世祖實錄』 世祖 2年 3月 28日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九月山에 있는 檀君祠와 함께 太白山에 神祠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長白山을 北岳으로 삼고, 白岳山을 中嶺으로 삼고, 太白山을 東嶺으로 삼고, 松嶽山을 西嶺으로 삼고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祀典에 태백산을 포함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조오례의』를 비롯한 각종 기록에서 태백산이 국가 제사 체계 내에 편제되었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祀典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9) 일제 강점기 때의 태극교도 관련 재판 기록과 태백산 천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태백문화원 사무국장인 안호진님이 제공해 주셨다.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드린다.

둘째는 지방 관아가 관여하여 주로 민간인들이 致祭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列傳 李淑條에 ‘이숙(李淑)의 어릴 때 이름은 福壽요 平章郡 사람이다. 어머니는 太白山의 巫女이다. …’라는 기록을 통하여 고려 후기에 이미 태백산에서 巫俗 신앙이 매우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世宗實錄』 世宗 8年 4月 12日, 『成宗實錄』 成宗 24年 5月 21日, 成倪의 『虛白堂集』 神堂退牛說,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三陟 都護府 祠廟, 許穆의 『眉叟記言』 退牛條, 許穆의 『陟州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 관청과 무녀들이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낸 후 두고 오는 배·소 등을 관청이나 무녀가 거두어 사용하였는데, 너무 과하여 민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成宗實錄』 成宗 21年 1月 9日, 許穆의 『眉叟記言』에서는 백성들이 태백산에서의 제사에 너무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에서 太白山社를 헐고, 太白山祭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은 『成宗實錄』 成宗 21年 1月 9日,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奉化縣 驛院 道深驛, 丁若鏞의 『牧民心書』(경상도 관찰사 金縵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태백산에 설치되었던 제당 명칭인 ‘太伯天王堂·天王堂·天王祠·구령탑’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태백산에서 天神을 모시고 天祭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三陟 都護府 祠廟, 許穆의 『眉叟記言』과 『陟州誌』를 보면 ‘太白山祠 = 天王堂’ 이고, ‘太白祠 = 天王祠’ 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록에 나타나는 太白山祠나 太白祠 등으로 불리우는 제당에서도 天神을 모시고 天祭를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태백산제가 곧 천제였다고 볼 수 있다.

[자료 19]에서 동학의 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운 최제우 死後에도 設壇祭天이 거행되었는데, 李弼濟는 관의 추격으로 쫓겨 다니다가 태백산간에서 제단을 만들어 天祭를 지낸 후 인근 관아를 습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인 1937년에는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은 후, 소화 12년(1938)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 최익한, 유형호, 유형남, 이창순, 이금손, 주인섭, 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다음 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으며,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 ~ 3시 사이에 지냈다고 한다.

즉, [자료 19, 20]은 태백산에서의 천제가 태백산 주위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는 종교 집단에서도 태백산에서의 天祭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 태백산 천제단과 그 제의 주체 등의 변화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1. 1949년 자료에 의하면 태백산제는 10월 3일 子時를 기해서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거행되었다.
2. 한국전쟁 중에 헬기 착륙장 조성으로 천제단이 헐렸다.
3. 1967년 봉화군 물야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우성조 씨가 강원도·경상도인의 지원을 받아 천제를 지냈다.
4. 1977년 경 우성조씨가 대중교로 입문하자 강원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둘러싸고 분열하여 강원도 사람들은 소도 당골에 단군성전을 짓고 별도의 제사를 올렸다.
5. 1987년에 태백산천제위원회가 태백시에서 결성되어 태백문화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여 매년 개천절에 天祭를 지내왔다.
6. 2008년 태백산천제위원회를 ‘천제 보존회’로 명칭을 바꾸어 태백문화원장이 보존회장을 겸임하여 매년 개천절 午時(낮 11~01시)에 天祭를 지낸다.

10) 태백산 천제에 대한 기존의 조사 및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으며, 광복 이후의 운영 양상에 대하여는 이들 연구 성과를 참고하였다. 장정룡, 「태백산 천제 -민족 永生을 위한 聖祭-」, 『太白文化』 제 4집, 태백문화원, 1990. 장정룡, 「민족 영생을 위한 성스런 제의 태백산 천제, 강원도 민간신앙」, 『월간 태백』 1월호, 강원일보사, 1991. 임동권,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性과 文化財의 位相」,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김선풍, 「太白山天祭와 檀君神話의 構造」,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최승순, 「崇山意識과 太白山天祭」,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장정룡, 「태백산 천제와 향토축제」,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장정룡, 「한밤움의 성스런 제전 -태백산 天祭-」, 『중등 우리교육』 11월호, 월간 우리교육, 1996. 임동권·민제·김선풍, 『태백산 민속지』, 민속원, 1997. 琴昌憲 外, 「太白市の 民俗資料」, 『太白市の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博物館, 1997, 201~202쪽. 太白市, 『太白市誌』, 1998, 628~629쪽. 김강산, 「태백산 천제(天祭)」, 『江原民俗學』 第15輯, 江原道民俗學會, 2001, 271~293쪽. 이필영, 「태백산 천제단」, 『文化財大觀』 (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文化財廳, 2005.

## Ⅱ. 太白山 天祭壇[天王壇]과 관련 유적

### 1. 개황

태백산 천제단[천왕단]은 태백산 정상에 있으며, 소재지는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 80 및 혈동 산87-2이다. 현재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1991년 10월 23일 지정되었으며, 천왕단과 함께 지정된 자료는 천왕단 뒤쪽 북방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 장군단과 천왕단 남쪽 언덕 아래에 위치한 하단이다.



그림 1. 태백산 천왕단 전경.

그리고 정상에서 500m쯤 아래에 望鏡寺라는 사찰이 있고, 여기에는 龍井이 있어 옛날부터 천제 모실 祭需 준비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망경사 부근에는 ‘朝鮮國 太白山端宗大王碑’라는 명문이 새겨진 端宗碑閣이 세워져 있는데, 그 계기는 1950년대 중반에 한 무녀의 꿈에 단종이 태백산신으로 현몽하여 세웠다고 한다. 이는 18세기부터 단종이 死後 태백산신으로 좌정하였다는 믿음이 태백산 주변·영월 지역 주민들과 무당들 사이에 뿌리 내렸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1)</sup>

태백산 내의 현재 신앙 공간을 크게 정리해 보면 제당골에 있는 서낭당에서 시작하여 장승거리, 반재, 당골을 거쳐, 망경사 입구에 있는 서낭당을 지나, 망경사와 용정, 단종비각, 천왕단, 장군단, 하단을 거쳐 문수봉에 이르는 넓은 영역이 신성 공

11) 김효경, 「단종의 신격화 과정과 그 의미」, 『민속학연구』 5, 국립민속박물관, 1998.

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천제를 위한 실제 종교 공간은 망경사 입구에 있는 서낭당 터부터라고 하며, 여기서부터는 근신하여야 한다.



그림 2. 태백산 망경사 옆 용정.

그리고 대중교 종단은 1987년 지역유지들과 제휴하여 당골에 단군성전을 건립 하면서 태백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天祭에서 분리되어 자체 건립한 단군성전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 2. 天祭壇[天王壇]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중 하나로, 장군단과 하단의 중간에 있는 해발 1,560m의 봉우리에 위치한 중심 제단이다.

천왕단은 그 규모 면에 있어 다른 단과 달리 월등히 크며, 다음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太伯天王堂·神祠·太白山祠·天王堂·太白神社·太白祠·天王祠·구령탑 등으로 일컫기도 하였다.

표 1. 역대 기록에 나타난 太白山 관련 제당, 제의, 제관 명칭.

기록 (시기)	제당/제의/제관 명칭	제사 일시
『三國史記』 新羅 逸聖尼師今 5年(138)	… 북쪽으로 순행(巡行)하여 몸소 太白山에 제사지냈다.	10월
『三國史記』 新羅 基臨尼師今 3年(300)	… 3월에 牛頭州에 이르러 태백산에 望祭를 지냈다.	3월
『三國史記』 祭祀志 中祀	[中祀] … 북쪽은 太白山 奈已郡, …	
『高麗史』 列傳 金方慶	太白山祭告使	1283년
『世宗實錄地理志』 三陟都護府	太伯天王堂	봄·가을
『世祖實錄』 世祖 2年 3月 28日	神祠	1456년
成倪의 『虛白堂集』 神堂退牛說	태백산에 당이 있다.	4월 8일 강림 / 5월 5일 태백산으로 돌아감.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三陟都護府 祠廟	太白山祠[天王堂]	봄·가을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奉化縣 驛院	太白山祭	
丁若鏞의 『牧民心書』	太白神社	1625년 (경상도 관찰사 金緞 在位 시기)
許穆의 『眉叟記言』	太白祠	許穆(1595~1682)
許穆의 『陟州誌』	天王祠	許穆(1595~1682)
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구령탑	1938년

‘太伯天王堂·天王堂·天王祠·구령탑’이라는 명칭은 태백산의 神格을 모두 天神·天王으로 보는 호칭이며, 구령탑은 天의 9개 分野인 九天에서 유래한다. ‘神祠·太白山祠·太白神社·太白祠’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후대에 일부에서 부르는 마고탑은 太初에 천지를 이룩한 거인 할머니가 쌓은 탑이라는 의미로서, 천지가 시작된 공간임을 암시한다.<sup>12)</sup>

12) 이필영, 「태백산 천제단」, 『文化財大觀』(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文化財廳, 2005, 126쪽.



그림 3. 태백산 천왕단 내 제단 및 위패.

1953년 사진 자료에 의하면 제단의 돌이 흐트러져 방추형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sup>13)</sup> 이후 정비하여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현재 제단은 자연석 편마암으로 쌓았으며,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는 둘레 27.5m, 높이 2.4m, 폭은 좌우 7.4m, 전후 8.4m의 약간 타원형을 이룬 원형제단이다. 남쪽으로만 계단이 설치되었고 석단 상부에는 제단이 설치되었다. 제단의 앞면 축대에는 「天祭壇/大倥敎太白支司謹製」라 새긴 글이 남아 있다. 天祭壇[天王壇] 내부에는 장방형으로 축조한 제단이 있으며, 제단 위에는 높이 76cm, 폭 40cm, 두께 30cm 정도의 「한배검」이란 비가 있다. 제관들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은 원형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과 같은 형태로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라는 전통 의식을 반영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태백산 천왕단과 장군단 일원에서 2000년 4월 9일 신인수씨에 의하여 쇠마 4점이 수습되어, 2000년 11월 30일 국가에 귀속된 후,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유물번호:국립춘천박물관 152~155). 4점 모두 말의 등에 안장이 놓여 지고 유물번호 154번을 제외하고 꼬리 쪽에 말띠꾸미개가 간략하게 표현되었다.<sup>14)</sup>

유물번호 154번은 등과 목이 수평을 유지하고, 나머지 3점은 고개를 약간 들고

13) 이준구 제공 사진, 「1953년 천제단」, 『사진으로 보는 태백의 어제와 오늘』(김강산 편), 태백문화원, 1994.

14) 이와 같은 형태의 쇠마는 태백시 도릉,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미로면 내미로리, 원덕읍 이천리, 정선군 남면 낙동리 등 인근의 많은 서낭당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있는 형태이다. 유물번호 152번은 높이 7.2cm, 길이 16.9cm이고, 153번은 높이 10.5cm, 길이 17cm이다. 154번은 높이 9.2cm, 길이 16.6cm이며, 155번은 높이 10.2cm, 길이 14.9cm이다.<sup>15)</sup>

### 3. 將軍壇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중 하나로 중앙에 위치한 천왕단에서 북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데, 지도상에서 해발 1,566m의 「태백산」이라 표기되어 있는 봉우리가 장군단이 있는 지점이다. 유일사 방향에서 등산하면 3개의 제단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단이다. 제단의 높이는 약 2.9m이고, 둘레는 약 20m로 장방형이며 편마암으로 축조하였다. 남쪽으로만 계단을 설치하였고, 내부의 중앙에 70cm 정도의 제단을 쌓았다. 제단 내에는 자연석을 세워 놓았다. 장군단의 神格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sup>16)</sup>



그림 4. 태백산 장군단 전경.

15) 홍성익, 『태백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태백시·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16) 홍성익, 『태백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태백시·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이필영, 「태백산 천제단」, 『文化財大觀』(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文化財廳, 2005, 127쪽.



그림 5. 태백산 장군단 내 제단.

#### 4. 下壇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중 하나로, 천왕단 남쪽 언덕 아래로 0.2km 지점에 있다. 夫蘇壇 또는 丘乙壇으로도 불리운다. 별도로 지내는 제는 없으며, 북쪽으로만 계단이 없고 나머지 세 방향에는 모두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제단 꼭대기의 북쪽면에 45cm 가량의 자연석을 세워 놓았다. 현재의 모습은 최근에 정비한 것으로 단의 총 높이는 약 190cm 정도이고 폭은 약 510×410cm이다.<sup>17)</sup>



그림 6. 태백산 하단 전경.

17) 홍성익, 『태백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태백시·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 Ⅲ. 太白山 天祭의 祭儀 樣相

#### 1. 광복 이전

일제 강점기인 1937년에는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은 후, 소화 12년(1938)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 최익한, 유형호, 유형남, 이창순, 이금손, 주인섭, 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다음 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宿旗·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으며,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 ~ 3시 사이에 지냈다고 한다.<sup>18)</sup>

#### 2. 광복 이후

##### 가. 1949년

1949년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시멘트 단과 한배검의 비석은 없었다. 그리고 제단은 구단탑(九段塔)이라 하여 아홉 段으로 쌓아 올렸다. 그 주위에는 33天旗와 28宿旗를 꽂고, 단의 중앙에는 태극기와 九星旗 또는 七星旗를 세웠고, 제물도 아홉 종류였다.<sup>19)</sup>

崔翼漢氏의 手記(1949년)에 의하면 당시 태백산제는 10월 3일 子時를 기해서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거행하였는데, 중앙에는 태극기를, 중간에는 七星旗와 玄武旗를 꽂고 주변에는 33天旗와 28宿旗를 배치하였다. 祭器는 봉화군 춘양의 鑪器店에서 81개를 맞추어 1회만 사용했다. 모든 참제자는 저녁에 登頂하여 천제를 모시고 아침에야 하산했다.

제관은 모두 白衣 도포를 입었다. 參祭할 사람은 1년 전부터 일체의 부정을 가리고 心身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제물은 모두 날것으로 했는데, 아홉 종류의 제물을 아홉 벌 장만했다. 곧 81개의 제물을 올린 셈이다. 靑玉, 靑松葉, 金, 銀, 珍珠, 白米 외에도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2종류가 더 있었다.<sup>20)</sup>

18) 昭和 十六年 刑公 第 310號 / 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19) 임동권,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성과 文化財의 位相」,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40쪽.

20) 임동권, 「太白山 天祭壇의 歷史성과 文化財의 位相」, 『太白文化』 제 7집, 태백문화원, 1993, 43쪽.

이러한 제사는 강화도 彗星壇에서도 베풀어졌는데, 참성단의 제사가 도교식 醮祭의 형식이었음을 고려할 때 위의 제사 형식도 초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33천기와 28수기의 존재나 9종 9별의 81가지의 제물 등은 유교식 제사와는 무관한 것이다.<sup>21)</sup>

#### 나. 현존 양상

태백산 천제는 1987년 ‘태백산 천제 위원회’가 결성되어 각종 준비와 의례를 주관하여 지내다가, 2008년에는 그 명칭을 ‘천제 보존회’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제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2008년 天祭를 주재하는 인사는 제주(태백시장 박종기), 현관(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태백문화원장 권영한), 번시관(정창교), 집례(안석호), 축관(김영복), 집사(이창복)이다. 실무 준비는 태백문화원에서 주관하며, 매년 10월 3일 천제단에서 午時(오전 11~ 오후 1시)에 天祭를 지낸다. 준비하는 제수는 천주[가양곡왕주]·소머리·오곡[쌀·보리·콩·조·기장]·고사리·미역·대구포·밤·대추·곶감·백설기[1시루]·삼베·물이며, 이와 함께 한라산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산에서 가져온 흙을 각각의 주머니에 담아 올린다. 물은 태백산 정상 아래에 있는 龍井의 물을 이용한다. 메는 준비하지 않으며, 소머리와 떡을 제외하고 다른 제수는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천제단 내부에는 해와 달, 북두칠성을 그린 기를 세웠는데, 동쪽에 세운 해 깃발 안에는 三足鳥를, 서쪽에 세운 달 깃발 안에는 토끼 그림을 그렸다. 이와 같이 해와 달을 그린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圖像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북두칠성이 각 절기의 기준 별자리여서 이를 그린 깃발을 제단 북쪽에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단 외곽에는 28수기와 각종 염원을 쓴 깃발을 세웠다. 28수기는 『天文類抄』·『步天歌』·『星鏡』·「天象列次分野地圖」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을 28개의 주요 별자리를 이용하여 동·서·남·북으로 구분한 후 이를 각각 청룡·백호·주작·현무라는 사신에 대비시켜 만든 별자리 깃발이다.<sup>22)</sup> 구체적으로

21) 이필영, 「태백산 천제단」, 『文化財大觀』(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文化財廳, 2005, 128쪽.

동쪽에 배치한 깃발은 角星旗, 亢星旗, 氏星旗, 房星旗, 心星旗, 尾星旗, 箕星旗를 상징하는 별자리를 각각의 깃발에 그렸으며, 서쪽에 배치한 깃발에는 奎星旗, 婁星旗, 胃星旗, 昴星旗, 畢星旗, 觜星旗, 參星旗를 상징하는 별자리를 각각의 깃발에 그렸다. 북쪽에 배치한 깃발에는 斗星旗, 牛星旗, 女星旗, 虛星旗, 危星旗, 室星旗, 壁星旗를 상징하는 깃발을 그렸으며, 남쪽에는 井星旗, 鬼星旗, 柳星旗, 星星旗, 張星旗, 翼星旗, 軫星旗를 상징하는 깃발을 그려 세웠다.<sup>23)</sup> 이들 깃발 중 제단 내에 배치한 깃발은 노란색 테두리, 동쪽에 배치한 깃발은 청색[초록색] 테두리, 서쪽에 배치한 깃발은 흰색 테두리, 남쪽에 배치한 깃발은 붉은 색 테두리, 북쪽에 배치한 깃발은 남색 테두리로 마감하였다.<sup>24)</sup>

이와 같이 제단 내에 해·달·북두칠성을 그린 깃발을 세우고, 제단 외곽에 28宿旗를 동서남북으로 각각 구분하여 세운 것은 태백산에서 天祭, 즉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에 하늘을 상징하는 주요 요소들을 깃발로 만들어 배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8수기와 함께 ‘世界平和·民族 統一·國泰民安·雨順風調·民族의 靈山 太白山·太白山 天祭[大韓民國 天祭]’라고 각각 쓴 깃발을 만들어 배치하였는데, 이 깃발은 天祭에서 기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938년 이전에 태백산에서 천제를 거행할 때 28수기를 비롯한 별자리 깃발을 세웠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다. 공식적인 기록은 위에서 소개한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은 후, 소화 12년(1938) 6월 16일(음력5월 8일) 윤상명을 비롯한 교도들이 독립 기원제를

22) 박창범,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집, 한국과학사학회, 1998, 113~149쪽. 양홍진·박명구, 「천문유초(天文類抄)에 기록된 사신동물천문도(四神動物天文圖) 연구」, 『한국우주과학학회지』 20집, 한국우주과학학회, 2003, 83~94쪽.

23) 28수기와 그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 1) 1897년(광무 1)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에 오르면서 별자리 28宿의 별을 상징한 28개 旗를 의장에 사용하였다. (예 2) 28개의 깃발을 사용하는 예는 무녀가 기도를 하기 위한 壇을 설치할 때 오방기와 28 將軍旗를 설치하기도 한다. (예 3)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에서 지내는 별신제를 마을에서 천제라 부른다. 전해지는 문적들에서는 천제라는 말을 찾을 수 없지만 마을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간주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곳을 고르다보니까 냇가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 한다. 매년 여름철에 큰물이 지면 바닥 청소가 되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그곳을 가장 깨끗한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별신제에서 모시는 신은 모두 3位로서 天地人을 신격으로 하여 모신다. 별신제를 지낼 때 대나무를 28개 잘라 제당 주변에 두른다. 마을에서 대나무 28개는 하늘의 28宿를 뜻한다고 한다.(나경수,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별신제 조사 연구」, 『민속학연구』 10집, 국립민속박물관, 2002, 5~28쪽.).

24) 2008년 10월 1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열린 ‘『開天節』 고천문 워크숍’에서 현재 태백산 천제를 지낼 때 세운 28수기의 별자리와 세운 방향이 고천문 관련 기록과 비교하였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이 양홍진 박사에 의해 제기되었다. 향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

지내면서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팔만기·오행기·구령기와 함께 일월성신기와 28宿旗를 세웠다는 기록, 1949년 사진과 최익한씨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 태백산 천제를 지낼 때 제단 주위에 별자리 깃발을 세운 전통은 1987년 태백산 천제위원회가 결성되어 천제를 주관하기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제단 주변 들레들에 금줄을 3겹으로 둘러서 참제원들이 각자 소원을 적은 한지를 끼운 후 천제가 끝나고 소지를 올릴 때 함께 태워 참제원들의 염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해 준다.



그림 7. 천제단 입구에 금줄을 친 광경.



그림 8.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천제단 주위의 28수기, 만장기와 참제원들.



그림 9. 2008년 천제 거행 전의 전통제례악 연주.



그림 10. 2008년 천제 거행 전의 천무 공연.



그림 11. 소원을 적은 한지를 금줄에 거는 모습.

1987년부터 태백산 천제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천절에 지낸 天祭 순서는 다음과 같다.<sup>25)</sup>

- 영신굿 : 풍물패가 영신을 위해 풍물을 울리며 천제단 앞에서 영신 맞이굿을 한다.
- 천황굿 사설 구송 : 박용문 外 10명으로 구성된 태백문화원 문화학교 동문들이 천황굿 사설을 구송한다.
- 開儀 : 집례가 천제의 개의를 알린다.

25) 김강산, 「태백산 천제(天祭)」, 『江原民俗學』 第15輯, 江原道民俗學會, 2001, 271~293쪽.  
대한민국천제 보존회, 「대한민국 천제 안내문」, 2008.



그림 12.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집례인 안석호씨가 흘기를 읽으며 진행한다.



그림 13. 제단에 오르기 전에 제관들이 손을 씻는 관세위.

- 燔柴禮 : 草衣를 입은 燔柴官이 쭈을 들고 등단하여 火爐에 쭈을 태워 잡귀를 쫓고 天祭를 하늘에 알린다.



그림 14. 2008년 태백산 천제 중 번시례.

- 降神禮 : 집사의 인도를 받은 제주는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닦고 등단하여 천제단 앞에 꿇어앉는다. 향을 사르고 천잔에 술을 따라 제단 앞에 부어 신을 내리게 하는 의식으로, 제주는 9번 절한다.



그림 15.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제주가 향을 사름.



그림 16. 2008년 태백산 천제 중 강신례에서 제관이 절을 함.

- 參神禮 : 제주는 봉작에게 받은 천잔에 술을 부어 천단에 올리고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9번 절을 한다.
- 奠幣禮 : 제주는 봉지들로부터 받은 폐백[삼종천·오곡·천수]을 천단에 바친다.



그림 17. 2008년 태백산 천제 중 전폐례에서 봉지들이 제수를 천단에 올림.

- 進饌禮 : 제주는 봉찬들로부터 받은 제례 음식물[천채·천소·천과·희생 등]을 천단에 올린다.



그림 18. 2008년 태백산 천제에 따른 제수 진설.

- 告天禮 : 축관이 제수 옆에 꿇어앉아 고천문을 봉독한다. 이때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꿇어 엎드린다.
- 獻酌禮 : 아헌관이 인도되어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등단하여 천향을 피우고 천잔을 올린 다음 9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후 종헌관이 인도되어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등단하여 천향을 피우고 천잔을 올린 다음 9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림 19. 2008년 태백산 천제 중 고천례.



그림 20.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헌관이 헌작례를 행함.

- 送神禮 : 제례의식이 끝나고 신을 배웅하는 의식으로 제주가 다시 등단하여 천향을 피우고 초자로 모든 천잔에 천주를 세 번씩 첨작을 한다. 그리고 제주이하 봉향봉작들은 천단에서 내려와 제자리로 가서 서고 이어서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9번 절한다.
- 飲福禮 : 천단에 바친 제물을 내려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그림 21.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제관들이 음복을 함.

- 燒紙禮 : 신령 앞에서 비는 뜻으로 한지를 불살라서 하늘에 올리는 의식으로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은 차례로 등단하여 소지를 올린다.



그림 22.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제관들이 소지를 올림.



그림 23. 2008년 태백산 천제에서 제관들이 소지를 마친 후 참제원들이 소지를 올림.

고천례를 행하면서 축관이 봉독한 고천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단군기원 4341년 개천절을 맞아 대한민국 천제보존회 회원들과 태백시민 그리고 전국의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태백시장 박종기는 재계목욕하고 정성들여

태백산 천제단에서 삼가 한배 하느님께 고하나이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모두의 시조신이신 한배 하느님이시여

강림좌정하시어 굽어 살피사 애굽히 여기소서

배달겨레의 조상이시며 삼만리 강산의 주신이시며 삼신일체 상제님이신 한배 하느님이시여

영검하신 신통력으로 분열된 겨레와 국토가 하나되게 하시고 국태민안 우순풍조 시화연풍되게 하소서

그리고 험벗고 굶주리고 병마에 신음하는 생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류의 세계평화가 회복토록 도우소서

영검하신 한배 하느님이시여

지금 우리겨레는 어려운 국제환경과 국론분열의 어둠을 지나고 있사온 즉 부디 온전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자애롭고 인자하신 한배 하느님이시여

대자연의 주재자요 천지신명이신 한배 하느님이시여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일상이 편케 하시고 모든 일이 각인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배하느님이시여

이 겨레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홍익인간 이념이 온 누리에 퍼져 지상낙토가 이루어지도록 간구염원하오며 우리들의 정성이 담긴 간절한 제수를 삼가 갖추어 받들어 올리오니 소례를 대례로 여기시와 흠향하소서

#### IV. 太白山 天祭의 의미와 성격

전근대 사회에서 국가 주도로 지내는 천제는 왕실의 권위 확보, 자주성 확립, 기우 등을 목적으로 지냈으나, 민간에서 행해진 천제는 각종 거사 성공을 기원하거나,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추구할 때, 또는 독립 기원·기우·기곡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지내는 예가 매우 많다. 따라서 천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목적하는 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신라대부터 시작된 태백산에서의 제사가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신라에서는 대외 팽창과 정복지 巡狩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祀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태백산이 中祀를 지내는 곳으로서 중시되었으며,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인식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사전 체제에 비록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조선 전기인 세조대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점은 왕조실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에서 태백산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고, 이에 지방 관청과 무당들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종 21년 기사,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奉化縣 驛院 道深驛條, 경상도 관찰사 金綴가 太白神社를 헐어버렸다는 기록 등으로 볼 때 태백산에서의 致祭를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통제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허목의 글을 보면 이후에도 태백산에서의 致祭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백산에서의 치제가 종교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태백산 주변 마을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거리 등의 문제로 인해 태백산에서 제사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태백산 줄기가 내려온 산봉우리나 능선 아래에 상당으로 여기는 천제단[천제당 또는 천지단]을 마을 단위로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마을도 많이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그런데 태백산에서의 천제에 대한 기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낼 때 삼베나 소를 바친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제의 과정을 알려주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까지 천제를 지낼 때 별을 그린 깃발이나 기타 상징물을 활용하였다는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다행히 필자는 오래된 기록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 1938년 기록을 확인하여 28宿旗를 비롯한 각종 깃발과 제단을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 사례를 확인하였다. 1949년 기록에도 태백산에서 10월 3일 子時를 기해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천제를 거행하였는데, 중앙에는 태극기를, 중간에는 七星旗와 玄武旗를 꽂고 주변에는 33天旗와 28宿旗를 배치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동해시 동호동 등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제단과 관련하여 필자의 다음 논문에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도현, 「삼척의 봉수와 관련 민간신앙」, 『강원사학』 19·20합집, 강원대학교 사학회, 2004. 김도현, 「삼척 해안지역 마을신앙 연구」, 『역사민속학』 21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김도현, 「동해시 동호동 천제단 운영과 그 성격」, 『박물관지』 14집,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8년 2월.

28宿旗와 그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예는 대한제국에서 28宿의 별을 상징한 28개 旗를 의장에 사용한 예, 무속에서 28 將軍旗를 설치하여 정성을 드리거나, 전남 장흥군 호계리에서 하늘의 28宿를 상징하는 대나무 28개를 제단 주위에 배치하여 별신제를 지내는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제단 주위에 28개의 별자리를 그린 깃발을 배치하여 천제를 지낸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태백산에서 日月旗·北斗七星旗·28宿旗를 제단 주위에 배치하여 천제를 지내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 33천기와 28수기의 존재나 9종 9별의 81가지의 제물 등은 유교식 제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오히려 도교식 醮祭의 모습을 일부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태백산에 설치되었던 제당 명칭이 ‘太伯天王堂·天王堂·天王祠·구령탑’이라는 것에서도 태백산에서 천신을 모시고 천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기록을 종합해 보면 ‘太白山祠 = 天王堂’ 이고, ‘太白祠 = 天王祠’ 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太白山祠나 太白祠 등으로 불리우는 제당에서도 天神을 모시고 天祭를 지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太白山祭가 곧 天祭였다고 볼 수 있게 한다.

덧붙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태백산 산신으로 좌정한 단종대왕이 이곳을 찾는 무속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두텁게 각인되어 있다는 점 또한 태백산 천제의 지속과 변동 과정에서 주목해야할 요소로 볼 수 있다.

[부록] 2008년 大韓民國 天祭 笏記

지금부터 단군기원 사천삼백사십일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태백산 천제단에서 대한  
민국 천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제관과 모든 참제원은 제자리에 바로 서시오

**燔柴禮**

번시례를 행합니다

번시관은 등단하시요

번시하시요

번시관은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일어나시오

번시관은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 서시오

**降神禮**

강신례를 행합니다

봉향 봉작은 등단하시요

봉작은 촛불을 밝히시오

집사는 제주를 인도하시요

제주께서는 대야에 손을 씻으시오

제주께서는 등단하시요

꿇어 앉으시오

봉향은 천향을 받드시요

제주께서는 천향을 세번 사르시오

오른쪽 봉작은 천잔을 내려 제주께 전하시요

천주를 드리시오

제주께서는 천주를 땅에 세번 부으시오

천잔을 오른쪽 봉작에게 전하시요

봉작은 천잔을 천단에 올려 놓으시오

제주께서는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일어나시오

**參神禮**

참신례를 행합니다  
제주께서는 꿇어 앉으시오  
오른쪽 봉작은 천잔을 내려 제주께 전하시요  
천주를 드리시오  
제주께서는 천주를 왼쪽 봉작에게 전하시요  
왼쪽 봉작은 받들어 천단에 올리시오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은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모두 일어나시오

**奠幣禮**

전폐례를 올립니다  
집사는 읊하고 봉지들을 인도하시요  
곡지 사지 화지를 차례로 제주께 전하시요  
제주께서는 받들어 왼쪽 봉작에게 전하시요  
왼쪽 봉작은 받들어 천단에 올리시오  
곡지는 첫째줄 가운데에 올리시오  
사지는 첫째줄 왼쪽에 올리시오  
화지는 첫째줄 오른쪽에 올리시오  
봉지들은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 가 서시오  
제주께서는 천단앞에 꿇어 앉으시오  
봉향은 천향을 받드시요  
제주께서는 천향을 세번 다르시오  
봉향은 물러나 제자리에 서시오  
제주께서는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일어나 바로 서시오

**進餐禮**

진찬례를 올립니다  
집사는 읍하고 봉찬들을 인도하시요  
천수는 둘째줄 가운데에 올리시오  
천재는 둘째줄 왼쪽에 올리시오  
천소는 둘째줄 오른쪽에 올리시오  
천병은 셋째줄 가운데에 올리시오  
천과는 셋째줄 왼쪽에 올리시오  
천포는 셋째줄 왼쪽에 올리시오  
희생은 앞쪽 가운데에 올리시오  
봉찬들은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 서시오  
제주께서는 천단앞에 꿇어 앉으시오  
봉향은 천향을 받드시요  
제주께서는 천향을 세번 사르시오  
제주께서는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일어나 서시오

**告天禮**

고천례를 행합니다  
집사는 읍하고 축관을 인도하시요  
축관은 제주 왼쪽에 서시오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은 꿇어 엎드르시오  
축관은 고천문을 봉독하시요  
모두 일어나 바로 서시오  
제주 이하 모든 참제원은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모두 일어나 바로 서시요

제주와 축관은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 서시요

**獻酌禮**

헌작례를 행합니다

집사는 읍하고 헌관을 인도하시요

헌관께서는 대야에 손을 씻으시요

헌관께서는 등단하시요

꿇어 앉으시오

봉향은 천향을 받드시요

헌관께서는 천향을 세번 사르시요

오른쪽 봉작은 천잔을 내려 헌관께 전하시요

봉작은 천주를 드리시요

헌관께서는 천잔을 받들어 오른쪽 봉작에게 전하시요

봉작은 천잔을 받들어 천단에 올리시요

헌관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시요

헌관께서는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일어나 바로 서시요

헌관께서는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 서시요

**送神禮**

송신례를 행합니다

집사는 읍하고 제주를 인도하시요

제주께서는 등단하시요

제주께서는 천단 앞에 꿇어 앉으시요

봉향은 천향을 받드시요

제주께서는 천향을 세번 사르시요

제주께서는 일어나 모든 천잔에 초자로 세번 침작하시요

제주이하 봉향 봉작은 모두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 가 바로 서시요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아홉번 절합니다  
일배. 이배. 삼배. 사배. 오배. 육배, 칠배. 팔배. 구배  
모두 일어나 바로 서시요

### 飲福禮

음복례를 행합니다  
집사는 읍하고 삼헌관을 인도하시요  
삼헌관은 등단하시요  
음복위에 정좌하시요  
집사는 천잔을 내려 헌관게 드리시요  
삼헌관은 천주를 마십니다  
삼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가 서시요

### 燒紙禮

소지례를 행합니다.  
제주 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차례로 등단하여 각자 원하는 바를 빌며 소지를 올리  
시오.  
이것으로 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개천절에 남아있는 천문요소와 태백산 깃발 별자리

양 홍 진

한국천문연구원

## I. 서론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의 개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개천절(開天節)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환웅이 천신(天神)의 뜻을 받아 하늘을 열고 개국한 의미를 되새기며 하늘에 제를 지내는 의식이 매년 전해지고 있다. 과거부터 우리 민족은 여러 형태의 제천의식(祭天儀式)을 행해 왔다. 부여의 영고(迎鼓), 예맥의 무천(舞天), 마한과 변한의 계음(契飲), 고구려의 동맹(東盟)과 백제의 교천(郊天) 등이 대표적 제천행사이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어져온 이러한 제천 행사는 추수 감사제의 성격과 종교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제천행사는 후대로 이어져, 구한말에 이르러 시조 단군을 기리기 위한 개천절 행사로 강화 마니산과 강원도 태백산 그리고 황해도 구월산의 천제단(天祭壇)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 개천절 제천 행사는 강화 마니산과 강원도 태백산에서 매년 개최된다. 특히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부르며 가장 귀하게 여겨왔으며, 3이라는 숫자를 길수(吉數)로 여겨왔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1991). 과거부터 이어져온 이들 제천 행사는 1949년 이후 양력 10월 3일로 날짜가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박창범 2008). 이들 두 지역의 제천 행사는 그 방식과 형태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지역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제의 형태와 역사 또한 두 지역에서 매우 다르게 이어지고 있다. 두 제천 행사가 비록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들 제천 행사에는 인간과 하늘을 연결하는 천문(天文) 요소가 남아 전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제천행사에 남아 있는 천문요소를 찾아보고 제천대 구조의 천문

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강원도 태백산의 제천행사 때 사용되는 28수 깃발 천문도의 별 그림 배치 구조와 별자리 모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황해도 구월산에 있는 삼성사(三聖祠)와 제천대는 현재 북한에 있어 연구 자료가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II. 개천절에 남아 있는 천문요소

### 1. 제천대의 천원지방 구조

현재 남아 전해지는 대표적 개천절 제례(祭禮) 장소는 강화 마니산(摩尼山)과 강원도 태백산(太白山) 그리고 북한의 구월산(九月山)이 있다. 이들 제천대(祭天臺)가 언제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전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려시대 이전부터 이곳에서 하늘에 제를 지낸 기록이 남아 있다.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진 세 곳의 제천대는 형태상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 제천대는 민가 근처가 아닌 하늘에 가까운 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단순한 제례 의식의 장소라면 산 아래쪽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늘이 잘 보이는 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천대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쪽 제단은 돌로 쌓아 만든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제단 바깥쪽은 돌로 쌓은 원형의 구조물이 이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단을 통해 원형에서 제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강화도의 경우는 바깥의 원형 구조물이 비교적 큰 반면, 태백산과 구월산의 경우는 사각형의 제단을 가까이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원형과 사각형의 내외 구조는 현재 남아 있는 세 곳 제천대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지다는 동양의 전통 우주론 중의 하나인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구조와 일치한다(Rufus 1936). 천원지방의 우주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경주 첨성대(瞻星臺)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Jeon 1998).

신라 선덕여왕 2년(633)에 만들어진 경주 첨성대는 원통형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래쪽은 넓고 위쪽은 좁은 구조이며 가장 위쪽은 정자(井字) 모양의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撰集廳 1454). 높이 약 9m의 첨성대 남쪽 가운데에는 가로

세로 1m의 문이 뚫어져 있으며 사각 문 안쪽의 아래쪽은 돌과 흙으로 메워져 있으며, 남문 위쪽으로는 여러 개의 돌이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 사각형의 정자석(井字石)이 놓여 있다. 첨성대 위쪽의 정자석 안쪽에는 절반만 사각 돌판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공간은 과거 바닥에서 계단을 놓고 남문으로 들어온 관측자가 첨성대 내부를 통해 위쪽으로 올라와 관측기기를 놓고 관측하였던 장소로 생각되고 있다(전상운 2000).

그런데 이러한 첨성대의 구조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위쪽의 정자석은 안쪽의 사각으로, 아래쪽의 원통은 바깥쪽의 원 구조로 보이게 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경주 첨성대의 구조는 천원지방의 구조인 셈이다. 천원지방의 제천대 구조가 신라의 천문대인 첨성대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또한 제천대에서 사각형과 원형을 이어주는 계단이 경주 첨성대의 구조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1. 개천절 천제단의 천원지방 구조 (마니산, 태백산, 구월산).

## 2. 강화 마니산의 칠선녀와 북두칠성

강화 마니산 제천 행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곱 선녀를 상징하는 칠선녀(七仙女)가 등장하는 것이다. 칠선녀 기록은 단군이 단을 쌓고 천제를 지낼 때 일곱 선녀가 합 그릇을 받들고 있었다는 기록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근래에 들어 강화도 칠선녀는 성화채화와 제천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칠선녀는 하늘의 빛을 받아 불을 피워 인간에게 전해주는 채화(採火)와 채화무(採火舞)를 통해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칠선녀의 역할과 유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칠선녀의 이름을 통해 이들이 하늘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칠선녀는 일곱 명의 여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천추선녀, 천기선녀, 천선선녀, 천권선녀, 옥형선녀, 개양선녀, 요광선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들 칠선녀의 이름은 다름 아닌 바로 북두칠성의 일곱별의 이름인, 천추(天樞), 천선(天璇), 천기(天璣), 천권(天權), 옥형(玉衡), 개양(開陽), 요광(搖光)과 같다.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칠선녀는 마니산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단순한 제례가 아닌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제천의식이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과거 천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천추, 천선, 천기, 천권은 북두칠성 국자 모양의 네 개의 별이며, 옥형, 개양, 요광은 바로 북두칠성 국자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별이다(남병길, 유경로 편 1986). 이외에도 북두칠성의 일곱별은 탐랑(貪狼), 거문(巨門), 녹존(祿存), 문곡(文曲), 엄정(廉貞), 무곡(武曲), 파군(破軍)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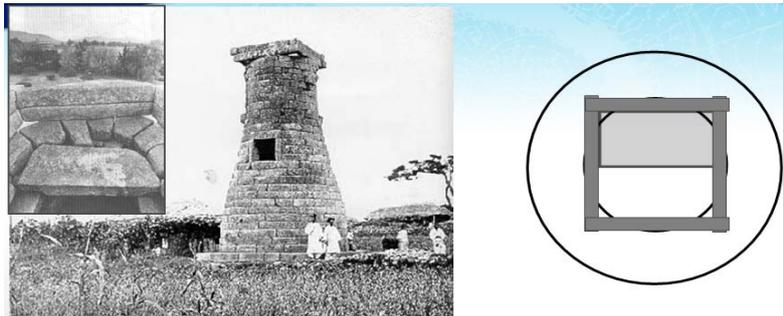


그림 2. 경주 첨성대의 천원지방 구조(오른쪽;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형상화).



그림 3. 강화 마니산의 칠선녀(왼쪽), 북두칠성의 일곱별과 그 이름(오른쪽).

### III. 태백산 천제와 깃발 별자리

#### 1. 태백산 천제의 역사

태백산은 과거부터 천제를 올린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태백산 정상에 천제단(天祭壇)에서 천제를 지내고 있다. 환단고기(桓檀古記)와 부도지(符都誌)를 비롯해 여러 사서에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낸 기록이 남아 있다(태백문화원 2007). 태백산 제례 기록이 남아 있는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三國史記]

逸聖尼師今 五年 十月 北巡親祀太白山

일성 이사금 5년 10월에 왕이 친히 북으로 순행하여 태백산에 올라 제사를 지냈다

#### [世宗實錄 地理誌]

太伯山載府西南新羅擬五岳爲北岳有祀名曰太伯天王堂諸郡人民春秋祀之

태백산은 (삼척)부의 서남쪽에 있는데 신라 때 오악 가운데 북악이라 하였다.

태백산에 (천)제를 지내는 태백천왕당이 있는데,

여러 고을 백성들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태백산 제례 의식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일부 주민과 종교단체에 의해 천제로 이어졌다. 이후 1987년 태백시에서 태백산 천제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현재의 개천제가 시작되었다. 태백산 개천대제는 개천절 오시(午時 : 11시~13시)에 태백산 천제단에서 진행된다. 태백산 천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천제를 지내는 동안 제단 주변에 별자리 깃발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제천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제천대 주변에는 28수를 각각 그려놓은 28개의 깃발과 해와 달과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깃발이 배치된다. 제천의식에서 별자리 깃발이 등장하는 일은 특이한 것으로, 언제 어떤 이유로 별자리 깃발이 제천의식에 사용되

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별자리 깃발 사용에 대한 최근 기록은 1938년 태극교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고자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독립기원제(獨立祈願祭)를 지낼 때 태극기, 28수 별자리, 오행기, 일월성신기, 구령기 등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김도현 2008; 朝鮮總督府 1941). 일제강점기 시절 종교 단체에 의해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1941년 재판 기록에 따르면 독립기원제는 28수 깃발과 일월성신기(日月星辰旗) 등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천제(天祭)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태백산 천제 깃발 별자리 - 해, 달, 북두칠성 그리고 28수 별자리 깃발.

현재 태백산 천제에서 사용하는 별자리 깃발은 1987년 만들어져 전해진 것으로 가로 72cm 세로 108cm의 크기로 되어 있다. 깃발을 깃대와 연결하는 한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면에는 한 변이 18cm인 정삼각형의 작은 깃이 여러 개 달려 있으며, 이들 깃은 파랑, 빨강, 노랑, 검정과 흰색의 모두 다섯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

## 2 깃발 별자리의 배치 방향과 색깔

태백산 천제단은 남향으로 배치되어있다. 천제단의 사각 제단 바깥쪽은 원형으로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데 원형의 남쪽은 일부가 개방되어 계단으로 연결되어있

다. 원형의 돌담 안쪽에는 세 개의 깃발이 놓이는데 해와 달을 상징하는 삼족오(三足鳥)와 토끼가 그려진 것 그리고 북두칠성을 그린 깃발이 사각 천제단 좌우와 뒤쪽에 배치된다. 북두칠성 깃발에는 북두칠성과 함께 북두칠성 국자 안쪽에 위치한 천리(天理)의 네 별과 태(太), 천(天), 자미(紫微)의 별들이 북두칠성의 위쪽에 그려져 있다. 한편, 북두칠성 깃발에서 대부분의 동양 천문도에서 볼 수 있는 보성<sup>1)</sup>(輔星)은 그려져 있지 않다. 그림 5는 해와 달과 북두칠성의 깃발인데 이들 깃발의 깃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그림 5. 태백산 깃발 별자리 모양 - 해, 달, 북두칠성.

천제단 바깥쪽 원형 주위에는 28수 별자리 깃발이 배치된다. 28수 별자리 깃발은 지리적 방향에 따라 네 가지 색깔로 나뉘어 일곱 개씩 놓이게 된다. 해를 상징하는 삼족오 깃발의 바깥 동쪽에는 녹색 깃의 깃발인 각수(角宿), 항수(亢宿), 저수(氐宿), 방수(房宿), 심수(心宿), 미수(尾宿), 기수(箕宿)가 배치된다. 계단이 있는 남쪽에는 붉은색 깃의 두수(斗宿), 우수(牛宿), 여수(女宿), 허수(虛宿), 위수(危宿), 실수(室宿), 벽수(壁宿) 별자리 깃발이, 달을 상징하는 깃발 바깥의 서쪽에는 규수(奎宿), 루수(婁宿), 위수(胃宿), 묘수(昴宿), 필수(畢宿), 자수(觜宿), 삼수(參宿)의 별자리가 흰색 깃발에 그려져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북쪽에는 검정색 깃의 별자리가 그려진 정수(井宿), 귀수(鬼宿), 류수(柳宿), 성수(星宿), 장수(張宿), 익수(翼宿), 진수(軫宿)의 일곱 깃발이 원형 바깥을 둘러싸고 있다. 원형 바깥쪽의 별자리 깃발의 색깔은 동양의 오행(五行) 이론에 맞도록 색깔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별자리 배

1) 보성(輔星, Alcor 4.0등급)은 북두칠성의 국자 손잡이 끝 쪽의 두 번째 별(Mizar 2.3등급)의 옆에 위치한 어두운 별이다. 이 별은 큰곰자리(UMa)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력이 좋은 사람은 맨눈으로도 가까이 있는 Mizar와 Alcor(80 UMa)를 분리해서 볼 수 있다. 이 두 별은 겉보기 쌍성으로 물리적으로 연관은 없으나 같은 시선 방향에 놓여서 쌍성처럼 보인다.

치는 동양의 전통 별자리 배치 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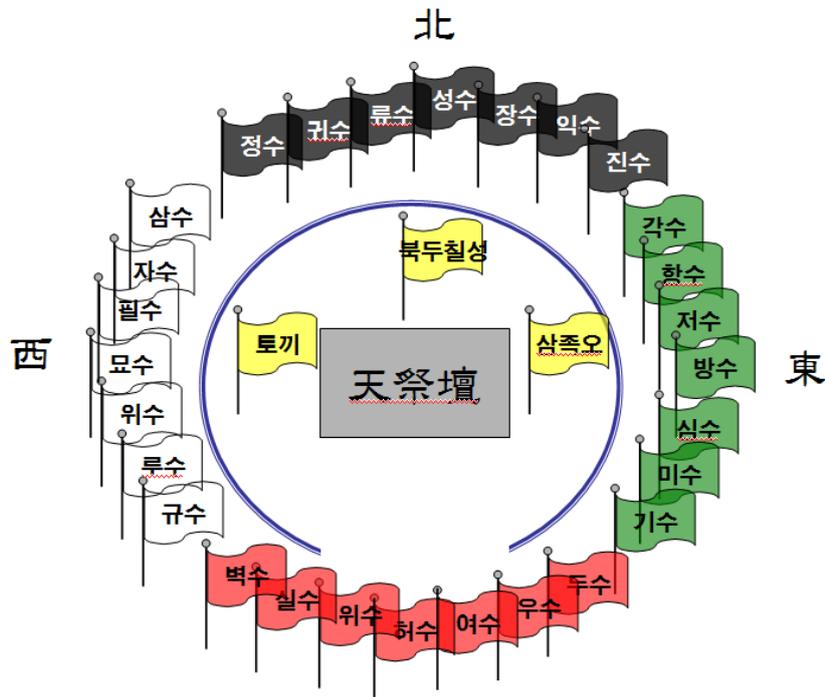


그림 6. 태백산 제천 행사에 사용되는 현행 깃발 별자리의 배치 방향과 구조.

표 1. 천문유초와 깃발 별자리의 28수 별자리 배치 및 색깔 비교.

28수 별자리	별자리 방향 및 색깔	
	천문유초	깃발 별자리
角亢氏房心尾箕	동방 - 청색	동방 - 청색
斗牛女虛危室壁	북방 - 흑색	남방 - 적색
奎婁胃昴畢觜參	서방 - 백색	서방 - 백색
井鬼柳星張翼軫	남방 - 적색	북방 - 흑색

천문유초<sup>2)</sup>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 따라 별자리를 배치하고 그들의 색을 기록해 놓았다(이순지, 유경로 편 1986). 천문유초와 태백산 깃발 별자리의 별자리 배치를 비교해보면 동쪽과 서쪽의 별자리 배치는 동일한 반면 남쪽과 북쪽의 별자리

2) 천문유초(天文類抄)는 조선 세종시대 천문학자 이순지(李純之)가 편찬한 천문학 서적이다. 상·하권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8수 별자리와 삼원(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의 별자리 그림과 설명이 실려 있다.

배치가 서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천문유초와 깃발 별자리의 28수 별자리 배치 방향 및 색깔에 대해 보여준다. 천문유초에 의하면 28수 별자리는 별자리 이름과 함께 방향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색깔도 정해지게 된다.

태백산 천제에서 사용되는 깃발 별자리의 경우 28수(宿) 별자리의 고유 방향과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별자리 깃발의 색깔도 남북의 별자리에서 서로 바뀌어 그려져 있다. 별자리 배치 방향이 바뀌면 단순히 남북의 별자리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 배치 방향도 역전된다. 천문유초와 천상열차분야지도<sup>3)</sup>의 별자리 순서의 경우 반시계 방향인 동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별자리가 배치되지만 깃발 별자리의 경우 북쪽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별자리가 배치된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28수 별자리를 그려 놓은 천문도 테두리에 방향을 적어 놓았는데, 남북 방향에 비해 동서 방향이 반대로 그려져 있다. 이는 하늘의 별자리를 지면에 그렸을 경우 좌우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 3. 깃발 별자리의 별 그림 분석

깃발 별자리의 별 그림은 별자리 구성에서 동양의 전통 별자리 체계인 28수(宿) 별자리를 보이고 있다. 천문유초를 살펴보면 28수 별자리는 여러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수(宿)”는 2~19개의 작은 별자리로 되어있다. 28수 별자리는 대표 별자리와 그 주변의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자리 영역과 별의 개수는 28수 별자리가 모두 다르다. 28수 별자리가 차지하는 하늘에서의 영역과 별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별자리와 별들의 상대적 크기는 다른 별자리와 비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전통 천문도에서 밝기에 따른 별의 크기를 가장 잘 표현한 천문도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이다. 별자리 깃발에 그려진 28수 대표 별자리의 크기와 별의 상대적 크기를 천상열차분야지도와 비교하면 모든 별자리의 크기가 각기 다른 비율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8개의 깃발 별자리가 하나의 통일된 비율의 천문도가 아닌 다양한 비율로 그려져 있어 깃발 상호간의 별자리 연결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28개의 깃발이 하나의 큰 천문도로 보이지 않는다.

3)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는 조선 태조 4년(1395)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온 하늘의 별을 돌에 새겨 그린 천문도이다. 고구려의 천문도가 전해져 만들어진 이 천문도는 1,467개의 별을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새겨 넣은 과학적인 과학유물이다. 현재 국보 228호로 지정된 태조 본과 보물 837호로 지정된 숙종본 석각 천문도가 남아 있다.

깃발들마다 별자리의 비율뿐만 아니라 하나의 깃발에 있는 별의 크기에 있어서도 전통 천문도에서 보이는 별 크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 그림을 보면 단연 눈에 띄는 두 개의 별이 있다. 천문도에서 가장 큰 두 별은 노인성(老人星, Canopus)과 낭성(狼星, Sirius)이다. 실제 이들은 우리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두 별인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경우 중국의 천문도와 달리 밝기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별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별의 크기는 실제 밝기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려졌음이 확인되었다(박창범 1998). 우리 전통 별 그림과 같이 깃발 천문도에도 별의 크기가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깃발 천문도의 별들은 2~3 종류의 크기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과 비교하면 별의 크기가 많이 단순화 된 형태이다. 그러나 일부 별들은 하나의 깃발에 밝은 별과 어두운 별이 서로 반대 크기로 그려져 있기도 하다. 우리 전통 별 그림의 특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밝기에 따라 별의 크기로 잘 표현된 별 그림이 요구되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 그림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문도에는 네 개의 원이 있는데, 이들은 주극원, 적도, 황도, 그리고 지평선이다. 이들 중 28수 대표 별자리의 위치를 살펴보면 주극원과 지평선 사이에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40° ~ -40°의 적위 범위에 분포한다. 주극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28수 별자리는 규수(奎宿)이며 지평선 가장 가까이에는 미수(尾宿)가 위치한다. 28수 대표 별자리는 적도와 황도의 아래와 위쪽에 폭 넓게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 분포의 특별한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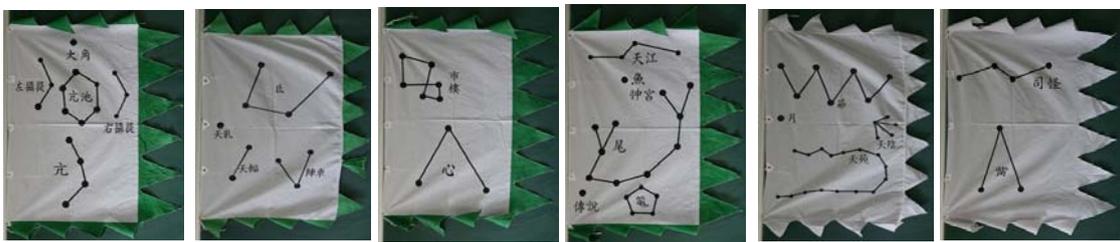


그림 7. 태백산 깃발 별자리 그림 - 왼쪽부터 亢, 氏, 心, 尾, 昴, 觜 별 그림.

한편, 28수 깃발 별자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별자리는 대표 별자리가 깃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한쪽에 치우쳐 그려져 있는데, 항수, 심수, 자

수는 깃발의 아래쪽에 그려져 있고, 저수, 미수, 묘수는 깃발의 위쪽에 그려져 있다 (그림 7). 그림 7에서 해당 별자리의 대표 별자리의 위치를 살펴보면 항수와 심수는 깃발 중심에서 위쪽에, 저수와 미수는 가운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깃발 별자리를 복원할 때 대표 별자리 위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깃발 별자리에서 대표 별자리를 비롯한 주변 별자리의 배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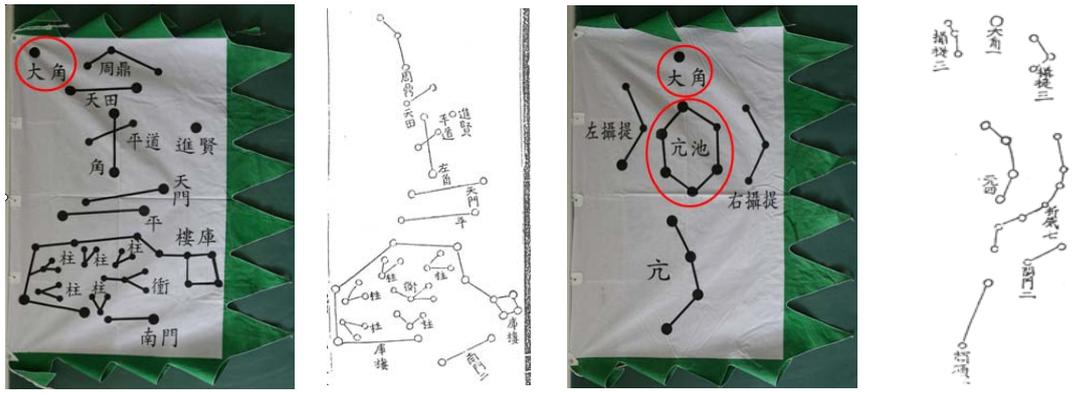


그림 8. 깃발 별자리와 천문유초의 별 그림 - 角宿(좌측), 亢宿(우측).

천상열차분야지도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천문유초에는 28宿와 三垣의 별자리를 하나씩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깃발 천문도와 별자리를 비교 연구하기에 적당하다. 깃발 천문도에서 고려할 사항은 깃발에 그려진 별들의 위치, 별의 개수, 별자리 연결선, 별자리 이름 등이다. 실제 깃발 천문도는 해당 별자리의 일부 또는 전체 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깃발에 그려진 별자리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28수 대표 별자리가 모든 깃발에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깃발에서의 위치와 주변 별자리의 선택여부는 임의적이다. 전체 별자리를 모두 그리기 힘든 상황이면 대표 별자리를 중심으로 일정한 영역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깃발 천문도에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깃발에 그려진 일부 별들은 두 개의 깃발에 겹쳐서 그려져 있거나 다른 별자리에 그려진 예도 있다. 대각(大角)의 경우 항수의 별인데 각수와 항수에 모두 그려져 있으며, 항지(亢池)는 저수 별자리인데 항수에 그려져 있는 등 다수의 별들이 다른 별자리에 그려져 있기도 하다(그림 8). 미수 깃발 별자리를 살펴보면 별자리 이름과 별의 위치가 잘못 그려져 있다. 미수 아래쪽에 위치한 구(龜)의 별자리 이름이 잘못 쓰여 있으며 어(魚)와 부열(傳說)의 별자리도 미수의 왼편이

아닌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그려져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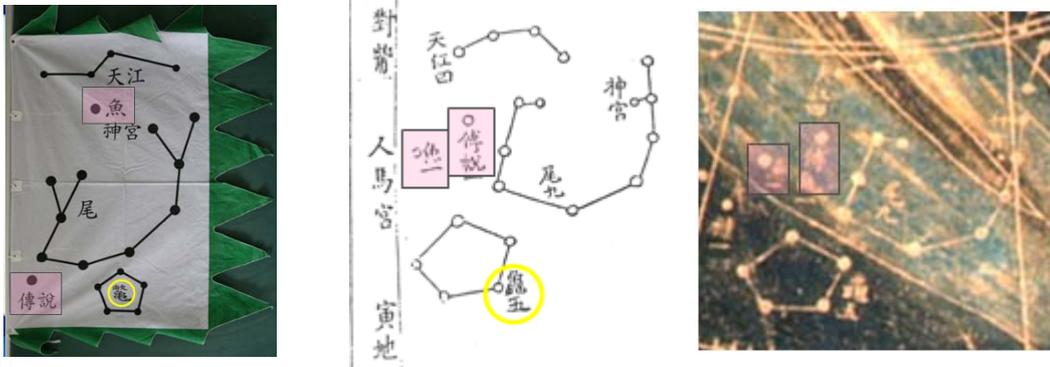


그림 9. 尾宿 별 그림 - 깃발 천문도(좌), 천문유초(가운데), 천상열차분야지도(우).

깃발 별자리의 별자리 중에는 별자리의 모양과 연결선이 천상열차분야지도나 천문유초와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있다. 이들 별자리를 통해 깃발 천문도를 만들 당시 어떤 천문도를 참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대표적 전통 별 그림은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와 천문서적인 천문유초(天文類抄), 보천가(步天歌), 성경(星鏡) 등에 남아 있다. 깃발 별자리 중에서 눈에 띄는 성수(星宿)와 익수(翼宿)의 별자리를 이들 자료와 비교해 보았다.

그림 10은 두 별자리를 그린 각각의 천문도 그림을 보여준다. 묘수의 경우는 성경의 그림과도 다른 독특한 별 그림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깃발 별자리의 천문도는 성경의 별 그림을 기초로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성경<sup>4)</sup>은 18세기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이 편찬한 천문서적으로 서양 천문학이 중국에 전해져 별의 위치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별 목록 서적이다. 동양의 전통 천문도를 그리고 있는 성경의 별 그림은 별 좌표의 정밀성에 비해 별의 상대적 크기나 모양은 다른 별 그림에 비해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 한국 전통 천문도의 경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 그림이 가장 정밀하고 완성도 높으며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천문서적

4) 성경(星鏡)은 조선 철종 12년(1861)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이 편찬한 천문서적이다. 청(淸)의 周餘慶이 1844년 펴낸 ‘欽定儀象考成 續編’의 별 목록 중에서 동양의 전통적인 별들을 1861년으로 세차 보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남쪽 하늘 130개를 더하여 총 1449개의 별 목록과 함께 별 그림을 적어 놓은 책이다.

의 별 그림으로는 이순지에 의해 편찬된 천문유초가 가장 대표할만하다. 이들 별 그림은 우리 전통 천문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태백산 깃발 별 그림의 복원에 적절한 참고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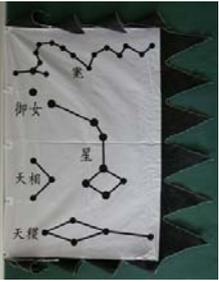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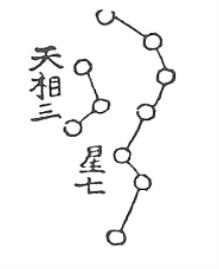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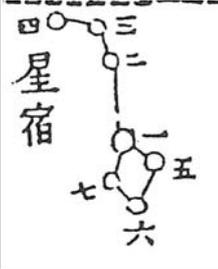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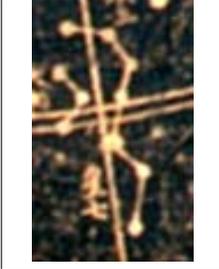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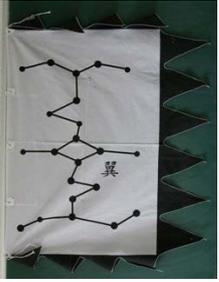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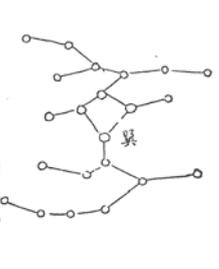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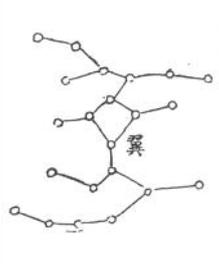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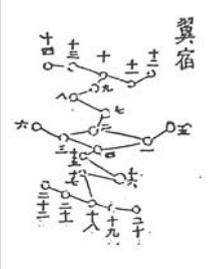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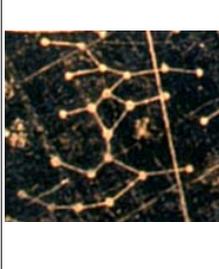
깃발 별 그림	天文類抄	步天歌	星鏡	天象列次分野之圖
				
				

그림 10. 천문도 별 그림 비교 - 星宿(위)와 翼宿(아래).

#### IV. 결론 및 토의

과거 제천의식의 장소로 전해지는 강화도 마니산, 강원도 태백산, 황해도 구월산에는 여러 천문관련 요소들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높은 산에 만들어진 이들 제천대는 안쪽의 사각 대와 바깥쪽의 둥근 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과거 동양의 우주론인 천원지방의 구조를 본 뜬 모양을 보여준다. 또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사각 계단과 원형 구조가 계단으로 연결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천원지방의 건축 구조는 신라 경주 첨성대로 이어졌다.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진 경주 첨성대는 천원지방의 구조뿐 아니라 계단 구조까지 공통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과거 제천대가 단순히 제례 의식을 행하는 장소만이 아닌 천문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재 남한에 전해지는 마니산과 태백산의 제천 행사를 살펴보면 더 많은 천문요

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강화도 마니산에는 개천절과 주요 행사 때 칠선녀(七仙女)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하늘의 빛을 모아 불을 피워 인간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칠선녀가 바로 북두칠성인 일곱별을 나타내는데, 칠선녀에게 주어진 이름으로부터 이들이 북두칠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백산에는 개천절 제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천제단 주변에 해와 달과 북두칠성 그리고 28수 별자리를 상징하는 깃발이 배치된다. 별자리 깃발은 동양의 전통 별자리인 28수를 상징해서 그리고 있는데, 현재 사용된 별자리 깃발은 1987년 다시 복원한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깃발 별 그림을 비교한 결과 깃발 별자리의 배치, 색깔, 별자리 모양과 크기 등 여러 곳에서 실제 우리 전통 별자리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깃발 별 그림을 현재 전해지는 여러 서적이나 천문도의 별 그림과 비교한 결과 깃발 천문도의 별 그림은 우리 전통 별자리를 대표하는 천상열차분야지도나 천문유초의 보다는 성경의 별 그림에 기초해서 그려졌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으나 성경의 별 그림은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므로, 태백산 깃발 별 그림에 우리의 전통 별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나 천문유초의 별 그림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강화도 마니산과 태백산의 제천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황해도 구월사의 삼성사와 제천대의 자료를 통해 그곳에 남아 있는 천문요소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감사의 글]

태백산 천제에 사용되는 별자리 깃발을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신 태백문화원 권영한 원장님과 안호진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진 촬영을 도와주신 신지선 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김도현 2008, 太白山 天祭의 歷史와 祭儀 樣相, 제2회 고천문위크숍 논문집,  
한국천문연구원
- 남병길, 유경로 편 1986, 星鏡-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여강출판사, 231
- 박창범 1998, 天象列次分野之圖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2) 113-150
- 박창범 2008, 개천절 일자 문제 고찰과 제언, 제2회 고천문위크숍 논문집,  
한국천문연구원
- 이순지, 유경로 편 1986, 天文類抄-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여강출판사, 3-4
- 전상운 2000, 한국과학사, 사이언스북스, 69-82
- 朝鮮總督府 1941, 昭和十六年 刑公 第310號/事件番號 昭和16年 刑 第936號 재판  
기록
- 撰集廳 1454, 世宗莊憲大王實錄(朝鮮王朝實錄) 卷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部,  
奎章閣
- 태백문화원 2007, 태백산천제소개책자-태백산천제참고문헌, 태백산 천체위원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04-605
- Jeon, S. W. 1998, A History of Science in Korea. Jimoondang, 60
- Rufus, W. C. 1936, Korean Astronomy, Transactions of the Royal Aisatic  
Society, Korea Branch, 7

# 조선의 하늘을 살폈던 서운관에 대하여

이 기 원

한국천문연구원

## I. 서론

아득한 옛날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밤하늘을 관측하였으며 이는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하늘이 열린 이후 조선의 하늘에서 일어난 천문현상들은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서운관(書雲觀)은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중국식 관제체제에서 탈피하여 당시의 태사국(太史局)과 사천감(司天監)을 통합하여 만든 천문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이후에 몇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때 만들어진 서운관이라는 명칭과 그 직제는 조선왕조에도 이어져 태조 4년(1395년)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석각하고, 세종 때는 자주적인 역법을 만들고 또한 많은 천문의기를 제작하여 비로써 조선인의 시각으로 천문현상을 정밀하게 관측하게 된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서운관이 올해로 700주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여 고려시대 서운관을 중심으로 시대별 천문 기관 직제와 관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시대별 천문 기관의 직제 및 관원

### 1. 고조선

B.C. 2333년에 개국한 단군조선(박창범 2008)에서 천문을 담당했던 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고인돌에 새겨진 북두칠성(이용복 2008)이나, 천원지방 구조로 만들어진 마니산 첨성단(양홍진 2008), 그리고 당시에 일어난 천문 현상의 기록(Rufus 1936, 박창범 1993) 등으로부터 고조선시대에도 최소한 천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측을 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 2. 삼국시대

<삼국사기>는 1145년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역사서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자 각 왕국의 천문 기관의 직제를 살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먼저 고구려 차대왕 4년 5월에 오성(五星)이 동쪽에 모였는데 일자(日者)가 왕이 노여워 할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 점성적 해석을 고하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부터 고구려시대에는 천문을 관측하는 ‘일자(日者)’라는 관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체계적으로 천문 현상을 관측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평양전도>등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첨성대에 대한 기록들이 다(나일성 2000 참조). 일자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의 고구려 건국 신화 내용 중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일자가 나에게 말하기를(日者天降我曰) ‘장차 나의 자손으로 …… 도읍을 정할만하다’고 하였습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따라서 처음에는 점술적 예언을 관장한 신(神)을 지칭하는 말이 후에는 천문 관측과 점술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변화되었을지도 모른다.

백제에는 일관부(日官部)라는 부처(部處)가 있었으며, 시조 온조왕 25년과 43년의 기록에는 ‘일관(日官)’이라는 직책이 언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백제의 일관은 고구려의 일자의 마찬가지로 당시엔 기이한 천문 현상에 대하여 점을 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삼국사기>에는 없지만 <일본서기>에 의하면 A.D. 554년 역박사(曆博士) 고덕왕손(固德王孫)과 A.D. 602년에 관륙(觀勒)이 역서를 가지고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A.D. 675년 일본이 첨성대(占星臺)를 건설하는데 백제의 천문학자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기록들이 있다(Jeon, 1974). 따라서 백제에는 천문 관측을 수행하는 일관부라는 기관이 있었으며, 역박사라는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신라는 A.D. 633년에 첨성대(瞻星臺)를 세웠다는 기록<sup>1)</sup> 외에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천문 기관이나 직책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의 통일신라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록들이 보인다. 먼저 <삼국사기>에 의하면 성덕왕 16년에는 산학박사(算學博士) 1인을 두었으며, 1년 뒤인 성덕왕(聖德王) 17

1) 제작 시기와 관련해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당나라 태종 정관 7년 계사(633년)에, <증보문헌비고>에는 선덕왕 16년(647년)에 만든 것으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양홍진 개인서신).

년(A.D. 718년)에는 처음으로 누각전(漏刻典)을 설치하였으며 박사 6인과 사(史) 1인을 두었다. 그 후 경덕왕 8년(A.D. 749년)에는 천문박사(天文博士) 1인과 누각박사 6인을 두었다. 천문박사는 후에 사천박사(司天博士)로 개칭되었으며, 김유신(金庾信) 열전(列傳)에 의하면 대력(大曆) 연간에 (A.D. 766 - 779) 그의 적손(嫡孫) 윤중(允中)의 서손(庶孫)인 [김]암(巖)은 사천대박사(司天大博士)였다.

### 3. 고려시대

<고려사>에 의하면 서운관은 천문(天文), 역수(曆數), 측후(測候), 각루(刻漏: 물시계)의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고려초기에는 태복감(太卜監)과 태사국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태복감은 여러번 명칭이 변경된 후 충렬왕 34년(1308년)에 태사국과 합쳐서 서운관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편과 개칭을 거친 후 공민왕 21년에 다시 서운관으로 복원되었으며 이 명칭은 조선시대 초까지 이어졌다. 고려시대 천문 기관의 개편과 명칭의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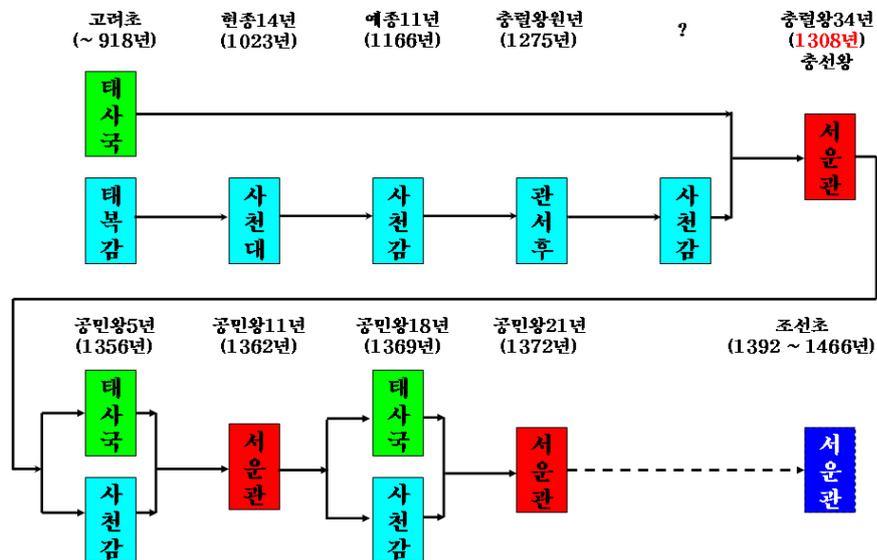


그림 1. 고려시대 서운관의 개편과 명칭변화과정.

조선후기 성주덕(成周惠)이 편찬한 <서운관지(書雲觀志)>에 의하면, 서운관이란 명칭은 <좌전(左傳)>에 이르길 “분지(分至: 춘분, 하지 등)에는 반드시 운물(雲物)을 기록[書]한다”(이면우 외 2003)는 문장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고려사>에는 당시 천문기관의 직제, 품계 및 정원이 나와 있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참고로 고려초 태복감과 태사국의 직제, 품계 및 정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울러 비교를 위해서 표 1의 마지막 열에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태조 1년 서운관의 직제, 품계 및 정원을 함께 표시하였다.

먼저 천문 기관의 직제를 살펴보면, 고려시대 초기에는 중앙 관청으로는 각각 복서(卜筮)와 천문(天文)을 담당하는 태복감과 태사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지방 관청으로는 서경(西京: 평양) 유수부(留守府)에 각루원(刻漏院)이 있었다(참고로 조선초에는 함경도와 평안도에 장루서掌漏署가 있었다. 이기원 2008 참조).

다음으로 고려초의 관직명을 살펴보면, 영(令), 감(監), 소감(少監), 승(丞), 박사(博士), 정(正) 등은 삼국시대에도 사용 되었던 명칭들이다. 그리고 설호정(挈壺正)은 물시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책인데 서운관으로 개편되면서 이후에는 중앙관청에서는 사라지지만 조선초의 지방관청인 장루서에서는 여전히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1년(1439)년의 기록에 의하면 장루서의 설호정은 중국의 관제(官制)이기에 장루서승(掌漏署丞)으로 고쳤다고 한다. 그러나 몇 가지 생소한 직책명들도 보인다. 사관정(四官正)은 춘(春), 하(夏), 추(秋), 동(冬)의 네 관정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정확한 직무는 알 수 없으나 충선왕 때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후에는 사라지게 된다. 보장정(保障正)은 북송(北宋)의 수도 변경의 영화를 회고한 맹원로(孟元老)의 저서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姜漢椿, 1998)에 “황궁(皇宮)의 정원에는 태사국의 관리인 보장정이 시간을 재면서 매 시간마다 상아패를 들고 상주하였다(.....上有太史局保障正測驗刻漏 逐時刻執牙牌奏)”라는 내용으로 보건데 시간을 측정하고 알려주는 직무를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영대랑(靈臺郎)은 천문관측을 수행했던 곳인 영대(靈臺)와 관련된 관직명으로 보인다. <고려사> 충렬왕 7년(1281)의 기록에 의하면 원나라 수시력(授時曆)은 중국의 태사원(太史院)에서 영대를 짓고 의상(儀象)을 만들어 날마다 측정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수시력을 나누어주기 위해 고려에 온 [왕]통([王]通) 등은 도일사(道日寺)에 숙소를 잡고 낮에는 해 그림자의 변동을 측정하고 밤에는 천문을 살펴서 고려의 지도를 구해보았다(.....

求觀我國地圖)라고 한다. 따라서 영대는 오늘날의 천문대에 해당하며 영대량은 이 천문대와 관련된 직책이었을 것이다[김영주(2007)는 영대를 천문관찰을 통해 재이(災異)와 상서(祥瑞)를 살피고, 재이가 없을 때는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종 14년(1023년)에는 태복감이 사천대(司天臺)로 개칭되었으며, 문종(1046 - 1083)때에는 이 사천대와 태사국의 직제가 개편된다. 종 3품 기관이었던 사천대의 경우는 정 3품의 판사(判事)직(1인)과 종 7품의 주부(主簿)직(2인)을 더 두면서 정 3품의 관청으로 격상 되고, 반면 태사국은 정 3품의 관청에서 종 5품의 관청으로 그 위상이 격하 되었다. 그러나 정원의 규모면에서는 태사국은 15명으로 14명의 사천대보다 1명이 더 많았다. 예종 11년(1116년)에는 사천대가 사천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고려사>에 의하면 이때 또한 평양대도호부의 각루원을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으로 고치고, 그 정원은 한정하지 않고 상참(常參; 6품 이상) 관원이 겸임하게 하고, 참외(參外; 7품 이하) 3명(각각 7, 8, 9품)으로 하였다고 한다.

충렬왕 원년(1275년)에 사천감은 관후서(觀候署)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사천감으로 바뀌었으며 충렬왕 34년(1308년)에 사천감과 태사국은 서운관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조직개편은 충렬왕이 아닌 충선왕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할 만한 사항은 비록 후에 폐지되지만 겸임 관직인 제점(提點)이라는 직책이 있었으며 후에 폐지되지만 조선시대에는 서운관에 제조(提調)직을 두게 된다. 또한 영(令)은 후에 판사로 고쳤다. 이전의 문종 때 직제와 비교해 볼 때 사진(司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품계가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물시계를 담당했던 설호정이 장루(掌漏)로 변경되고 그 품계도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308년 이후도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때 완성된 직제는 조선 태조 1년(1392)년 직제와 비교할 때 일부 관직명의 변화와 정원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품계나 명칭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조선시대 서운관 직제의 근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민왕 재위기간에는 무려 4번의 통합과 분리가 있었지만 공민왕 5년에 사천감에 복조교(卜助教) 1인이 추가된 것 외에는 특별한 변동 없이 복고(復古)와 복귀를 반복하였다. 조교라는 관직명 또한 교수와 더불어 삼국시대에 이미 사용했던 명칭이다. 그러나 <고려사>에는 언제부터 서운관에 영사직(領事職)을 두었

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서운관에는 영사가 있었으며 신창 원년(1388년)에 정몽주는 영서운관사로 임명되었다.

고려시대 천문 기관의 직제, 품계 및 정원과 더불어 표 2에는 <고려사>에서 언급된 천문관련 관원들의 이름과 당시 직책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직함을 표기할 때 ‘(품계)+ 관청명+ 직책’으로 하며, 단 영사(領事), 판사(判事), 지사(知事)와 같은 직책일 경우 영(領), 판(判), 지(知)를 관청 앞에 사용하였다(윤국일 2005). 즉, 판사일 경우에는 판서운관사로, 정(正)일 경우에는 서운관정과 같은 식으로 표기하였다. 표 2를 보면, 이 규칙이 고려시대에도 잘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 태조 4년(1395)의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제작에 참가한 서운관 관원들 중 노을준(盧乙俊), 지거원(池巨源), 최융(崔融) 등은 고려시대의 서운관 관원이었다[권중화(權仲和)와 더불어 이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성래(2006, 2008)를 참조]. <고려사>에는 천문관련 관원의 직책과 관련하여 일관(日官)이라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특정한 직책에 대한 별칭이 아닌 서운관(혹 태사국) 직책들에 대한 일반적 별칭인 듯하다. <고려사>에서는 최사겸(崔士謙), 최자호(崔資顥), 오윤부(伍允孚) 등을 일관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또한 정종 12년(1046년)의 기록에는 ‘서웅(徐雄: 지태사국사)은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일관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특별히 200일의 휴가를 주라’라고 적고 있다. 표 2에는 포함 되지 않았지만, <고려사>의 기록들에 의하면 천상열차분야지도 제작에도 참여하고 후일 조선시대 서운관의 영사직을 지낸 권중화는 천문 보다는 풍수지리에 밝은 듯 하다. 그리고 정확한 직책명은 언급되고 있지 않았지만, 문종 6년(1052년)에 십정력(十精曆)을 만든 김성택(金成澤), 칠요력(七曜曆)을 만든 이인현(李仁顯), 현행력(見行曆)을 만든 한위행(韓爲行), 둔갑력(遁甲曆)을 만든 양원호(梁元虎), 태일력(太一曆)을 만든 김정(金正) 등도 고려시대 천문 관원이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요한 사실중의 하나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부터 서운관의 우두머리는 영사였으며 정몽주는 영서운관사 중의 한 명이였다. 마지막으로 천문 인원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사실은 신돈(辛旽)도 서운관의 관원이었으며 직책은 겸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였다.

#### 4. 조선초

태조 이성계는 1392년 조선왕조를 건국하고 먼저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비하는데 이때 서운관은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채용하면서 정원은 늘렸다(표 1. 참조). 또한 겸승(兼丞)과 겸주부(兼主簿) 직을 신설하여 각각 2인을 두어서 조선초 서운관의 관원은 총 34명이었다. 이후 몇 번의 직제 개편이 있었으며 세조 12년(1466년)에는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치고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의 삼학(三學)체제로 개편하였다. 연산군 12년(1506년)에는 잠시 사력서(司曆署)로 격이 낮아졌지만 곧 이전의 체제로 복귀 되었다. 이후 고종 31년(1894년)에 관상국(觀象局)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조선은 관상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서운관지(書雲觀志; 성주덕 1818)>나 <운관방목(雲觀榜目)>(음양과의 합격자 명단; 관상감 1865), <운관선생안(雲觀先生案)>(서운관 관원의 명단; 관상감 ~19C)이라는 책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때의 찬란했던 과학기술에 대한 향수로 서운관이라는 명칭을 더 선호 한 듯하다.

표 3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서운관 직제와 추정 정원을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비교를 위해 서운관이 관상감으로 바뀐 세조 12년의 직제와 추정 인원도 함께 표시하였다(이기원, 2008). 먼저 태조 2년(1393년) 2월 10일 기록에 의하면 삼사좌복사(三司左僕射; 정 2품) 권중화의 직책은 영서운관사였다. 따라서 고려말 뿐만아니라 조선초에도 서운관에는 영사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의정(정 1품)이 서운관사의 영사직을 겸했다는 기록은 태종 17년(1417년) 12월 3일 기록에 처음 나온다.

태종 3년(1403년 6월 29일)에는 판사와 정(正) 1인을 각각 멸(滅) 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세종 2년(1420년 3월 13일)에는 27명의 서운관 관원이 너무 많아 17명으로 줄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아마도 이 인원은 중 5품 이하의 관원들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종 7년(1425년)의 기록에 의하면 서운관에 천문습독(天文習讀)을 20인으로 풍수학습독(風水學習讀)을 10인으로 정하였으며, 세종 13년(1431년)에는 또다시 천문습독 10인을 증원하였다. 금루는 세종 7년에 서운관에서 분리되었다가 세종 18년(1436년)에 다시 합속 시키게 된다(이면우 외, 2003). 따라서 표 3에서 세종 7년과 13년에는 금루의 인원을 서운관의 인원에서 제외 하였다. 세종 27년(1445년)에는 주목할 만한 기록이 보이는데, 그해 3월 5일 기록에 의하

면 서운관에는 성명(星命)과 복과(卜課)를 하는 장님[課命盲: 경국대전을 포함한 이후의 법전들에서는 명과맹(命課盲)으로 표기하고 있다] 10인을 서운관에 소속시켰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으로부터 조선시대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조 12년(1466)에는 문무백관 관제를 재정비하면서 서운관을 관상감으로 개칭함으로써 약 160년간 사용되어져온 서운관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제조(提調)직과 관련해서 세종 5년(1423년)에는 풍수학제조(風水學提調)를 2인으로 정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단종 1년(1453년)의 기록에는 음양학(陰陽學)제조라는 직책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들은 서운관 소속이 아닌 실안제조(實案提調)이다. 세조 8년(1462년)의 기록에 의하면 ‘서운관은 본래 제조가 없으니 음양학제조로 개칭하여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세조 10년(1464)년 4월 22일의 기록에 의하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순지(李純之)가 서운관 제조(書雲觀提調)였다.

고려시대의 경우에서처럼, 조선초 서운관 관원들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조사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태종 17년 이후의 모든 영의정들은 서운관의 영사직을 겸했을 것이지만, 기록상에서 언급된 영사들로는 유정현, 황희, 이직, 정인지, 수양대군 등이 있다. 또한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당시 천문도 제작에 참여한 서운관 관원의 직책과 성명이 나와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판서운관사 유방택, 영관사(영서운관사) 권중화, 판사(판서운관사) 최용, 판사(판서운관사) 노을준, 정(서운정) 윤인용, 판사(판서운관사) 지거원, 승(서운관승) 김퇴, 장루 전윤권, 장루 김자수, 시일 김후 10인이다. 아마도 이들은 서운관의 천문학 분야 관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천문도가 만들어지기 전후 기간동안 서운관의 관원으로 풍수학을 담당했던 이양달(李陽達)(태조 2년 2월 10일, 3년 6월 27일, 태종 8년 6월 12일 등)의 이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관상감의 직제는 세조 때 시작되어 성종 16년(1485년)에 완성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한 여러 법전들에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관상감은 정 3품의 기관이지만 당시 80여개의 관청 중 영의정이 영사직을 겸한 몇 안 되는 중요한 관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서운관의 직제와 관원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상감의 직제와 관원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 조선시대 법전, 판서지 등에 나타난 관상감의 직제에 대해서는 이기원(2008)을, 조선후기 관상감 천문학의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는 허윤섭(2000)을 참고하길 바란다.

### III. 요약

이상에서 고려시대 서운관을 중심으로 한 역대 천문 기관의 명칭, 직제, 관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고조선시대 천문기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삼국사기>의 일관부, 누각전 등의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삼국시대부터는 체계적으로 천문을 관측한 기관이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천문기구 대해서는 <고려사>에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고려초에는 당시 중국의 관제를 모방한 태복감과 태사국이 있었지만 몇 차례의 개편을 거치면서 충렬왕 34년에 서운관이란 독자적인 명칭의 기관으로 통합 및 개편 된다. 이후에도 또한 몇 번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때 만들어진 서운관의 명칭과 직제는 조선왕조로 이어졌다. 비록 세종 12년에 관상감이란 이름으로 개칭되면서 약 160년간 사용되어진 서운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만들어진 고려시대 서운관은 조선 태조가 국초에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석각하고, 세종대왕이 자주적 역법을 만들고 또한 많은 천문의기를 제작하여 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근간이 되었으며, 아울러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서운관이라는 명칭은 애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여 조선의 하늘을 살폈던 서운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서운관은 올해로 700주년이 되지만 그동안 연구는 미진하였다. 따라서 차후에 더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姜漢椿 譯註, 1998, 東京蒙華錄全譯, 貴州人民出版社
- 김영주 2007, 공론권으로서의 첨성대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연합회, 7, 1
- 나일성 2006,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성래 2006, 금헌 유방택의 생애와 사상, 제1회 고천문위크숍 논문집
- 박성래 2008, 금헌 유방택의 생애와 사상, 제12회 정기학술발표회, 서산문화발전연구회
- 박창범 2008, 개천절 일자(日字) 문제 고찰과 제언, 제2회 고천문위크숍
- 윤국일 옮김, 2005,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 이용복 2008, 고조선의 천문과 북두칠성, 제2회 고천문위크숍
- 이기원 2008, 조선시대 서운관의 직제와 시험제도, 한국지구과학회지, xx, xx
- 이면우, 허운섭, 박권수 역 2003, 서운관지, 소명출판사
- 박창범, 라대일 1993, '단군조선시대 천문현상기록의 과학적 검증', 한국상고사학보, 14, 95
- 양홍진 2008, 개천절에 남아 있는 천문학적 요소, 제2회 고천문위크숍
- 허운섭 2000, 조선후기 觀象監 天文學 部門의 조직과 업무-18세기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eon, S. W. 1974,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Traditional Instruments and Techniques, MIT Press
- Rufus, C. W. 1936,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6, 1

표 1. 고려시대 천문 기관의 직제, 품계 및 정원.

시대	고려초		문종 (1046 ~ 1083년)		충선왕	공민왕 5년		공민왕 11년	공민왕 18년	공민왕 21년	태조 1년 (1392년)
	태부감	태사국	사천대	태사국		사천감	태사국				
기관명			판사 (判事) 1명		서윤관 제집(提點: 후 폐지) 1명 영(후 판사) 1명			판사			서윤관
정3품		영(丞)	감 1명		정(正) 1명				판사 2명		판사 2명
중3품									정 2명		정 2명
정4품									부정 2명		부정 2명
중4품		소감(少監)	소감 2명		부정 (副正) 2명						
정5품											
중5품		사관정 (四官正)	사관정 각 1명	판사, 지국사 (知局事), 영 각 1명	승 1명			이하 충선왕 때의 서윤관 직제와 동일			승 2명 겸승(兼丞) 2명
정6품											
중6품		승(丞)	승 2명		주부 2명						주부 2명 겸주부 2명
정7품											
중7품			주부 (主簿) 2명	승 1명	장루 (掌漏) 2명						장루 4명
정8품		영대랑 (靈臺郎)		영대랑 2명	시일 (視日) 3명						시일 4명
		보장정 (保障正), 설호정 (掣壺正)		보장정 1명 설호정 2명	사력 3명						사력 4명
중8품		사진 (司辰)		사진 2명	감후 3명						감후 4명
정9품		사력(司曆), 감후(監候)		사력 2명 감후 2명	사진 2명						사진 2명
중9품	복박사 (卜博士), 부정(卜正)		복박사 1명 부정 1명		사진 2명						
계			14명	15명	21명	15명	15명	21명	15/15명	21명	34명

표 2. &lt;고려사&gt;에 언급된 천문관련 관원.

관 직 명	성 명	비 고
사천공봉(司天供奉)/ 사천관(司天官)	최지몽(崔知夢)	945년 (혜종2년), 곤봉직(供奉職)
태사승(太史丞)	유인택(柳仁澤)	1011년 (현종 2년)
태사승(太史丞)	강승영(康承穎)	1015년 (현종 6년)
태사령(太史令)	강승영(康承穎)	1016년 (현종 7년)
태사령(太史令)	김종윤(金宗允)	문종(1019-1083)이 명을 내림
사천소감(司天少監) 지태국사(知太局事)	임광한(林匡漢)	1040년 (정종 6년)
지태국사(知太局事)	서웅(徐雄)	1046년 (정종 12년)
태사승(太史丞)	유득소(柳得韶)	1047년 (문종 원년)
춘관정(春官正)	유팽(柳彭)	1047년 (문종 원년)
주부동정(注簿同正)	김위제(金謂磾)	오연총(1055-1116년) 열전에 언급됨. 동정직(同正職)
태사령(太史令)	음덕전(陰德全), 오지로(吳知老)	오연총(1055-1116년) 열전에 언급됨
사천소감(司天少監)	최자현(崔資顯)	오연총(1055-1116년) 열전에 언급됨
태사감후(太史監候)	장완(張琬)	1057년 (문종 11년), 송나라 귀화인
태사감후(太史監候)	이신황(李神旣)	1058년 (문종 12년)
판사천태사국사 (判司天太史局事)	유득소(柳得韶)	1075년 (문종 29년)
설호정(挈壺正)/일관(日官)	최사겸(崔士謙)	1078년 (문종 32년)
지태사국(知太史局事)	양관공(梁冠公)	1081년 (문종 35년)
지태사국사(知太史局事)	최사겸(崔士謙)	1090년 (선종 7년)
사천소감(司天少監)	황충현(黃忠現)	1092년 (선종 9년)
사진(司辰)	황완(黃玩)	1095년 (숙종 초)
사천복정(司天卜正)	유녹춘(柳綠春)	1101년 (숙종 6년)
춘관정	음덕전(陰德全)	1101년 (숙종 6년)
추관정	최자호(崔資顯)	1101년 (숙종 6년)
사천소감(司天少監)	최자호(崔資顯)	예종(1105-1122년)때
사천소감(司天少監)	허신경(許薰卿)	예종(1105-1122년)때
사천감(司天監)	김자기(金子期)	정중부(1106-1179년) 열전에 언급됨
사천감(司天監)	음중인(陰仲寅)	정중부(1106-1179년) 열전에 언급됨
태사령(太史令)	허자단(許子端)	정중부(1106-1179년) 열전에 언급됨
사천감(司天監)	전간(全幹)	한인인(? - 1122년) 열전에 언급됨
태사령(太史令)	양린(梁麟)	이자겸(? -1126년) 열전에 언급됨
동관정(冬官正)	양해(梁獬)	이자겸(? -1126년) 열전에 언급됨
지태사국사(知太史局事)	김덕명(金德明)	최충현(1149-1219년) 열전에 언급됨
판사천대사(判司天台事)	최윤단(崔允旦)	최충현(1149-1219년) 열전에 언급됨
태사감후(太史監候)	유원도(劉元度)	1158년 (의종 12년)
사천감(司天監)	박강재(朴剛才)	김희제(? -1227년) 열전에 언급됨
(일관日官)	백수한(白壽翰)	1127년 (인종 5년)
사력(司曆)	고린간란가 (高隣幹蘭哥)	1228년 (고종 12년), 동진(東眞)에서 귀순
판사천사(判司天事)	안방열(安邦悅)	1255년 (고종 42년)
판태사국사(判太史局事)	안방열(安邦悅)	배중손(? -1271년) 열전에 언급됨

표 2. 계속.

관 직 명	성 명	비 고
사천감(司天監)	오윤부(伍允孚)	1271년 (원종 12년)
판관후서사(判觀候署事)	오윤부(伍允孚)	충렬왕(1275-1308) 재위 무렵
(일관日官)	문창유(文昌裕)	1278년 (충렬왕 4년)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윤귀택(論龜澤)	김주정(? - 1290) 열전에 언급됨
서운제점(書雲提點)	최성지(崔誠之)	1309년 (충선왕 원년)
서운부정(書雲副正)	민함계(閔涵季)	충혜왕(1330-1344) 재위 무렵
전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손원(孫遠)	1342 (충혜왕 3년)
서운부정(書雲副正)	정운경(鄭云敬)	충목왕(1344-1348) 재위 무렵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강보(姜保)	1351년 (공민왕 원년)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진영서(陳永緒)	1356년 (공민왕 5년)
사천소감	우필흥(于必興)	1357년 (공민왕 6년), (1359년)
하관정(夏官正)	위원경(魏元鏡)	1358년 (공민왕 7년)
판사천감사(判司天監事)	진영서(陳永緒)	1358, 1359, 1369 (공민왕 18년), 1370년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우길생(禹吉生)	1363년 (공민왕 12년)
서운부정(書雲副正)	정거길(鄭居吉)	1363년 (공민왕 12년)
겸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신돈(辛旽)	1365년 (공민왕 14년)
서운정(書雲正)	장보지(張輔之)	1363년 (공민왕 12년)
(일관日官)	노을준(盧乙俊)	~ 1370년 (공민왕 19년)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장보지(張輔之)	1378년 (신우 4년), 1382년 (신우 8년)
서운부정(書雲副正)	노영수(盧英壽)	1381년 (신우 7년)
서운부정(書雲副正)	오사충(吳思忠)	1382년 (신우 8년)
서운관승(書雲觀丞)	지거원(池巨源)	1383년 (신우 9년)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최융(崔融)	1383년 (신우 9년)
서운관정(書雲正)	최천검(崔天儉)	1384년 (신우 10년)
전 서운부정(書雲副正)	방흡(方洽)	1385년 (신우 11년)
서운부정(書雲副正)	김언경(金彦卿)	1387년 (신우 13년)
영서운관사(領書雲觀事)	정몽주(鄭夢周)	1388년 (신창 원년)

표 3. 조선초(태조 - 세조 12년) 서운관의 직제와 인원(출처: 이기원 2008).

문헌 품계	태종 3년	태종3년 ~ 세종 2년	세종 2년	세종 7년	세종 13년	세종 18년	세종 27년	세조 12년
정1품			(영사 1명)	(영사 1명)	(영사 1명)	(영사 1명)	(영사 1명)	(영사 1명)
정2품	(영사 1명)	(영사 1명)						
중2품								(제조 2명?)
정3품	판사 1명(1명)	(판사 1명)	(판사 1명)	(판사 1명)	(판사 1명)	(판사 1명)	(판사 1명)	(판사 1명)
중3품	정 1명(1명)	관정 (1명)	(정 1명)	(정 1명)	(정 1명)	(정 1명)	(정 1명)	(정 1명)
중4품	(부정 2명)	(부정 1명)	(부정 1명)	(부정 1명)	(부정 1명)	(부정 1명)	(부정 1명)	(부정 1명)
중5품	(승 2명)	(판관 1명)	(판관 1명)	(판관 1명)	(판관 1명)	(판관 1명)	(판관 1명)	판관 1명(2명)
	(점승 2명)	(점승 2명)	(점승 2명)	(점승 2명)	(점승 2명)	(점승 2명)	(점승 2명)	(점승 0명)
중6품	(주부 2명)	(주부 2명)	(주부 2명)	(주부 2명)	(주부 2명)	(주부 2명)	(주부 2명)	(주부 2명)
	(점주부 2명)	(점주부 2명)	(점주부 2명)	(점주부 2명)	(점주부 2명)	(점주부 2명)	(점주부 2명)	(점주부 0명) 친문학교수 1명 풍수학교수 1명
중7품	(장루 4명)	장루 4명	장루 2명	(장루 2명)	(장루 2명)	(장루 2명)	(장루 2명)	직장 (2명)
	(시일 4명)	시일 4명	시일 2명	(시일 2명)	(시일 2명)	(시일 2명)	(시일 2명)	봉사 (2명)
중8품	(사역 4명)	사역 4명	사역 2명	(사역 2명)	(사역 2명)	(사역 2명)	(사역 2명)	사역 減
								부봉사 1명(3명)
정9품	(감후 4명)	감후 4명	감후 2명	(감후 2명)	(감후 2명)	(감후 2명)	(감후 2명)	친문학훈도 1명 지리학훈도 1명
								명과학훈도 2명
중9품	(사신 4명)	사신 4명	사신 2명	(사신 2명)	(사신 2명)	(사신 2명)	(사신 2명)	참봉 1명(3명)
				친문습득 20명 풍수학습득 10명	친문생 30명 풍수생 10명	친문생 30명 풍수생 10명	친문생 30 풍수생 10명	(친문생 30명) (지리생 10명)
기타							명과학 10명	(명과학 10명)
추정인원	32명	27명(31명)	17명(21명)	(51명)	(61명)	(101명)	(111명)	(116명)

표 4.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서운관 관원.

연도	기록	관직	성명
1393	태조 02년 02월 10일	삼사좌복야(정 2품) 영서운관사	권중화(權仲和)
1393	태조 02년 08월 17일	전(前) 서운부정	김보(金寶)
1394	태조 03년 08월 07일	서운부정	진언상(陳彦祥)
1394	태조 03년 08월 11일	판서운관사	윤신달(尹莘達)
		서운부정	유한우(劉旱雨)
		겸판서운관사	최융(崔融)
1395	태조 04년 03월 09일	서운부정 역임	이민도(李敏道)
1398	태조 07년 04월 15일	겸서운주부	김서(金恕)
	태조 07년 04월 17일		
1400	정종 02년 12월 19일	서운주부	김자수(金子綏)
1402	태종 02년 01월 16일	판서운관사	황하준(黃河濬)
1402	태종 02년 02월 05일	서운관사(판서운관사)	황하준
		서운관사(판서운관사)	지거원(池巨源)
1403	태종 03년 08월 20일	판서운관사	장사언(張思彦)
	태종 03년 09월 28일		
1404	태종 04년 04월 11일	판서운관사	황하준
1404	태종 04년 05월 05일	판서운관사	민약손(閔若孫)
1405	태종 05년 03년 03일	서운관승	박염(朴恬)
1406	태종 06년 01월 24일	서운관 사진	위사옥(魏思玉)
1406	태종 06년 06월 06일	서운부정	박염
1406	태종 06년 08월 11일	봉사(갑술년), 서운부정(제수했음)	진언상
1407	태종 07년 10월 01일	서운부정	윤돈지(尹敦智)
1408	태종 08년 06월 12일	전(前) 서운정	이양달(李陽達)
1408	태종 08년 08월 01일	전(前) 서운관승	김협(金浹)
1409	태종 09년 03월 22일	서운관제조	우희열(禹希烈)
1409	태종 09년 06월 26일	판서운관사	이제무(李齊茂)
	태종 09년 07월 02일		
1409	태종 09년 07월 03일	서운감후	김종선(金種善)
1410	태종 10년 01월 26일	서운부정	김서(金恕)
1410	태종 10년 04월 06일	서운관승	유당생(柳塘生)
		판서운관사	이제무
		서운정	애순(艾純)
		서운부정	임을재(林乙材)
		겸서운정	최덕의(崔德義)
1411	태종 11년 01월 05일	서운정	애순
1411	태종 11월 10월 24일	서운정	애순
		서운부정	장득수(張得壽)
1412	태종 12년 03월 08일	서운관승	황사우(黃思祐)
		서운감후	강숙(姜淑)
1412	태종 12년 07월 16일	서운정	장득수
1412	태종 12년 07월 19일	판서운관사	최덕의
1413	태종 13년 07월 01일	서운관승	최거경(崔居涇)
1413	태종 13년 07월 27일	판서운관사	애순
1414	태종 14년 08월 20일	서운정	장득수

표 4. 계속.

연도	기록	관직	성명
1416	태종 16년 05월 03일	서운부정 서운장루	김후(金候) 박영생(朴英生)
1417	태종 17년 06월 06일	판서운관사	최덕의
1417	태종 17년 12월 03일	영서운관사	유정현(柳廷顯)
1417	태종 17년 12월 27일	전(前) 서운부정	조의구(趙義珣)
1418	태종 18년 05월 21일	서운부정 서운관 시일	김후 이양일(李良日)
1420	세종 02년 07월 19일	서운정	유당(柳塘)
1421	세종 03년 02월 06일	서운부정	조의구
1425	세종 07년 12월 16일	서운관직무겸임(영서운관사)	이직(李稷:영의정)
1426	세종 08년 03월 08일	서운부정	김영유(金永柔)
1428	세종 10년 03월 30일	서운정	박염
1428	세종 10년 10월 28일	서운정	정균(鄭均)
1430	세종 12년 07월 07일	전(前) 서운장루	최양선(崔揚善)
1431	세종 13년 07월 11일	서운관사(판서운관사) 서운부정	황사우 박염
1432	세종 14년 05월 17일	판서운관사	이양달
1434	세종 16년 07월 25일	전(前) 서운감후	정습(鄭習)
1435	세종 17년 11월 07일	영서운관사	황희(黃喜)
1438	세종 20년 04월 14일	검서운관장(영서운관사)	
1440	세종 22년 01월 14일	서운부정	신정도(申丁道)
1441	세종 23년 09월 21일	서운부정	최용(崔郿)
1441	세종 23년 12월 07일	판서운관사	문민(文敏)
1442	세종 24년 10월 23일	서운부정	이계전(李季甸)
1443	세종 25년 01월 30일 (세종 25년 02월 02일)	서운부정 (풍수학)제조 (풍수학)제조	최양선 이정녕(李正寧) 정인지(鄭麟趾)
1443	세종 25년 02월 02일	서운부정	최양선
1443	세종 25년 10월 25일	서운관사(판서운관사) (서운)주부 (서운)주부	이순지(李純之) 김담(金淡) 박윤창(朴允昌)
1443	세종 25년 11월 14일	판서운관사 서운주부 서운주부	이순지 박윤창 전담(全淡;김담)
1444	세종 26년 11월 05일	서운관사(판서운관사)	이순지
1446	세종 28년 05월 24일	풍수학제조	이정녕?? 정인지??
1447	세종 29년 04월 27일	서운관정	조의(趙誼)
1448	세종 30년 06월 02일	서운관정	정균(鄭均)
1448	세종 30년 07월 24일	전(前) 서운장루	문득겸(文得謙)
1448	세종 30년 08월 08일	서운사역	문맹검(文孟儉)
1448	세종 30년 08월 09일	전(前) 서운장루	문득겸
1449	세종 31년 05월 21일	전(前) 서운부정	김담
1449	세종 31년 07월 19일	서운부정	윤통(尹統)
1449	세종 31년 12월 22일	전(前) 서운관관	신희(申熙)

표 4. 계속.

연도	기록	관직	성명
1450	문종 즉위 12월 07일	서운관관 서운주부	신희 문맹검
1451	문종 01년 07월 27일	서운관사(판서운관사)	한검(韓劍)
	문종 편수관 명단	영경연예문관서운관사(영서운관사)	정인지
1453	단종 01년 10월 11일	영경연서운관사(영서운관사)	세조(수양대군)
1454	단종 02년 01월 15일	서운부정	박수미(朴壽彌)
1454	단종 02년 03월 09일	영집현전경연예문춘추관서운관사 (영서운관사)	세조
1455	단종 03년 01월 24일	영집현전경연예문춘추관서운관사 (영서운관사)	수양대군
1456	세조 02년 11월 08일	서운사신	전성(全性)
1457	세조 03년 03월 15일	판서운관사	양성지(梁誠之)
	세조 03년 06월 28일		
	세조 03년 08월 02일		
1457	세조 03년 09월 06일	서운부정	안효례(安孝禮)
1459	세조 05년 12월 17일	서운관사(판서운관사)	신희
1464	세조 10년 04월 22일	서운관제조	이순지

# 종합토론 : '하늘이 열린 날, 天文을 얘기하다' 발표 요약

이 용 삼

충북대학교 / 소남천문학사연구소

개천절을 앞두고 10월 1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열리는 고천문학 워크숍 '하늘이 열린 날, 天文을 얘기하다'에서는 5편의 연구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에 앞서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장은 “개천절에 남아 있는 천문학적 요소와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 천문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애국가에서부터 하늘님인 우주를 숭상하는 전통을 이어받은 하늘의 자손이었음에도 그동안 하늘을 잊고 살았다. 이제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開天節)을 맞아 우리민족의 천문(天文)활동과 관측기록 등 사료와 유물을 분석해 옛 천문 지식을 복원하고 수백, 수천 년의 오랜 천문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로, 국내에서도 자연과학인 천문학과 인문학인 역사를 연계하는 융합 학문으로 자리잡아가기를 소망하였다.

## 1. 개천절 일자(日字) 문제 고찰과 제언 (발표 : 박창범)

박창범 교수는 현행 양력 10월 3일인 개천절 날짜를 음력 10월 3일로 개천절 일자(日字)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개국일인 개천절의 전통은 과거 2,000년간 이어진 10월 제천의식의 전통에 따라 음력 10월 3일에 기념행사와 제천의식을 해왔다. 그러나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한 과정은 정부수립 초기인 1949년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문명국가에서 음력과 양력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양력 10월 3일로 정한 것이다. 박창범 교수는 “태음력을 사용했던 고대 전통을 따라 동양 고대사를 볼 때

단군조선 시대에도 달의 위상을 따라 ‘태음력’으로 날을 세어나갔을 것” 이라면서 음력으로 개천절을 기념해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발표자는 민간과 종교단체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전통에 따라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아 기념행사와 제천의식을 해왔던 것에 주목하여 “설날, 석가탄신일 등 음력 기념일이 공인되고 있는 마당에 개천절만 무관심으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10월 3일 개국일은 음력으로 재고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단군 조선의 개국년도의 문제점도 제언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수정안으로서 제시되었던 “단국 개국일을 양력일로 환산하여 이를 개천절로 삼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단군 개국일을 양력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국년과 그 해의 일자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단군 개국년은 중국 요(堯)의 즉위년에 대해 상대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단군 개국년을 알기 위해서는 요의 원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요의 원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중국 요 25년에 해당하는 B.C. 2333년이지만, 역사서들은 단군조선의 개국년을 요 원년, 요 25년, 요 50년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요 원년 자체도 B.C. 2333년, B.C. 2357년이라는 설이 존재한다.

13~15세기 출간된 『三國遺事』, 『帝王韻紀』, 『世宗實錄』 등은 단군 개국을 요 원년으로 잡고 있으나, 15세기 『東國通鑑』은 요 건국은 B.C. 2357년과 단군조선 건국은 B.C. 2333년(요 25년)설을 채택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東國通鑑』이 요 25년 설을 채택한 것은 앞선 역사서를 따라 단군 원년을 무진년(B.C. 2333년)으로 잡은 뒤 요 원년을 무진년이 아닌 갑진년(B.C. 2357년)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라며 “단군 원년이 무진년이 아니라 요 원년이라는 점이 앞선 기록들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3~15세기 역사서에 일관되게 남아있는 ‘단군 개국년=요 원년’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요 원년이 B.C. 2357년이라면 단군 개국도 B.C. 2357년이어야 한다.

토의 내용 중에 법제당시 개천절 날자가 “문명국가에서 음력과 양력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기독교의 가장 큰 기념일인 부활절의 경우도 태양력으로만 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활절은 양력으로 표현되는 춘분이 지난 후 음력 보름인 망월(望月)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활절의 날자는 매년 춘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의 날짜로 정해지고 있음은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을 음력일 사용도 가함을 지지하고 있다.

## 2. 고조선의 천문과 북두칠성 (발표 : 이용복)

고조선의 여러 청동기와 고인돌 유물에 남은 암각화 등을 보면 북두칠성이 시간이나 계절, 방위와 관련해 공통적인 면을 제시하고 있다. 북두칠성의 두포(斗杓)가 향한 방위가 계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고조선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당시 천문지식은 상당히 중국의 수준 못지않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후 고조선 문화를 계승한 고구려는 일찍부터 고분 벽화에 별자리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고분 벽화 속에 북두칠성을 가장 많이 묘사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자연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일상화 된 종교 속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두칠성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각별한 애착이 드러나는 점을 근거로 들어, 북두칠성이 고대 이래 우리 전통 천문학의 특징을 이룬다고 해석했다.

고구려 고분의 별자리로부터 이를 저본(底本)으로 삼은 조선 초기의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를 보면 중국의 전통 별자리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고조선의 천문 지식으로부터 계승하여 발전시켜 고구려에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고구려의 천문에 대한 전통과 지식이 고려로 전승되고, 이어서 조선으로 넘어갔다고 본다. 개천절을 즈음하여 고조선의 천문을 통하여 고조선 문화의 특징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이다.

토의 내용 중 고조선 시대 청동기 유물 속에 나타난 천문 현상이 어떤 것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천문 현상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우선 청동기 유물 중에서 청동거울은 천구북극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관을 보여주고, 또한 천체들이 그 주위를 운행하는 원리를 담은 상징적인 형태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청동방울인 팔주령은 천구북극을 중심으로 한 위치를 8지역으로 나누어 이를 북두칠성과 연관 지었다. 즉, 계절에 따라 일몰 직후인 혼각에 북두칠성이 놓인 모습은 계절을 알려주고, 하룻동안 위치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다. 북두칠성의 계절에 따른 운행과 위치 변화는 고조선 시대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별자리임과 동시에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상이 청동

유물 속에 구현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 3. 太白山 天祭의 歷史와 祭儀 樣相 (발표 : 김도현)

고대사회에서 천신제(天神祭)가 행해진 유형은 주재자가 국왕으로 왕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통합을 강화하려 것과 읍락 단위로 읍락민들의 일체감 조성하려는 역할의 유형과 사제자가 주재하여 행해진 유형이 있다. 천제(天祭)의 의미와 역사를 보면 제천 의례는 왕권 강화에 대한 이념적 표출로서의 제천의례보다는 건국시조의 연관성을 통해 정당한 왕권 계승자라는 의식의 확립과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유교·불교와 같은 외래사상의 수용이 더해져 제천의례는 쇠퇴하였다.

고려시대는 제천단(祭天壇)에서 천지(天地) 제사를 지내므로 고려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고, 왕실의 무병장수와 기양(祈讓), 환구제(圜丘祭)를 통해 기곡(祈穀)과 기우(祈雨)를 기원하며, 천상제(天祥祭)를 통해 하늘에서 오는 나쁜 것을 막아 달라는 염원으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기곡(祈穀)과 기우(祈雨)를 위해 환구제(圜丘祭)를 행하였으나, 세종 31년에 폐지되었다가 세조대에 부활하였다. 이후 세조 10년까지 환구제를 행하였다는 기록만 남아 있으나, 대한제국시대에 환구제를 지냄으로서 조선시대에도 천신 신앙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태백산에서 제사(太白山 天祭)를 지낸 기록역사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의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신라시대부터 태백산에서 국가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운영 사례는 국가 주도와 지방 관아가 관여하여 주로 민간인들이 치제(致祭)한 형태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백산에서의 천제가 태백산 주위에 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는 종교 집단에서도 태백산에서의 천제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해방 이후 태백산 천제단과 그 제의 주체 등의 변화상을 소개하였다.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태백산에서의 제사가 조선 전기인 세조대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민간에서 태백산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태백산에서의 천제에 대한 기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의 과정을 알려주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필자는 오래된

기록은 아니지만 1938년 기록을 확인하여 28수기(宿旗)를 비롯한 각종 깃발과 제단을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 사례를 확인하였다.

태백산 천제의 제의(祭儀) 양상(樣相)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인 1937년에는 태극교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1950년대 무렵에도 태백산에서 10월 3일 자시(子時)를 기해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천제를 거행하였는데, 중앙에는 태극기를, 중간에는 칠성기와 현무기(玄武旗)를 꽂고 주변에는 33천기(天旗)와 28수기(宿旗)를 배치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제물들은 유교식 제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오히려 도교식 초제(醮祭)의 모습을 일부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존하는 태백산 천제는 1987년 ‘태백산 천제 위원회’가 결성되어 매년 10월 3일 천제단에서 낮 12시부터 1시 사이에 천제를 지내고 있다. 제단 주위에는 28수기(宿旗)와 각종 만장기에 쓴 깃발을 통해 무엇을 기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태백산사(太白山祠)나 태백사(太白祠) 등으로 불리우는 제당에서도 천신(天神)을 모시고 천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각종 기록들을 종합하면 태백산제가 곧 천제(天祭)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태백산 천제단(天祭壇; 天王壇)과 관련한 유적들은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으로 천제단과 장군단(將軍壇)과 하단(下壇)이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되어 있다.

#### 4. 개천절에 남아 있는 천문요소와 태백산 깃발 별자리 (발표 : 양홍진)

우리 민족은 과거부터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 의식을 행해왔다. 그 대표적 장소가 바로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과, 태백산 천제단 그리고 구월산의 삼성사 등이다.

양홍진 박사는 “강화도 마니산의 제천대는 신라 첨성대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단지 제의만을 올리는 제단이 아니라 천문 관측도 하던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단 구조를 보면, 마니산 참성단뿐 아니라 태백산 천제단, 구월산 삼성사(북한)의 제천대들은 모두 바깥쪽은 원형(圓形), 안쪽은 방형(方形)을 한 독특한 모습을 갖췄는데,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지다”라고 믿던 동아시아 고대인의 ‘천원지방(天圓地方)’ 우주관과 매우 흡사한 것이다.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지 않던 시대에 과학이 종교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마니산의 제천대가 천문대로

사용했던 문헌 사료는 “조선 시대 국가천문기관인 ‘서운관’의 기록집 『書雲觀志』를 보면, 특별한 천문 현상이 나타날 때 천문학자들이 마니산에 가서 천체를 관측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관천대(천문대)가 여러 곳에 생기기 전까지 마니산은 천문 관측소로 이용됐을 것”을 제시하였다. 또 제천제의 성화 채화 때 등장하는 ‘칠선녀’가 민속신앙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북두칠성’의 일곱별을 각각 상징한다고 풀이함으로써 천문학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오랜 시간이 흘러 제천행사의 역사와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들 세 곳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제천의식이 전해져 왔다고 알려져 있다. 구월산의 삼성사는 현재 북한에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없으나, 강원도 태백시에서 개최되는 태백산 천제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복원된 제천행사로 뚜렷한 천문요소가 남아 있다. 매년 개천절에 진행되는 개천대제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별자리 깃발이 등장한다. 천제를 지내는 동안 둥근 천제단 바깥의 네 방향에는 각각 7개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별자리 깃발이 색깔에 맞추어 놓이게 된다. 이들 28개의 별자리는 동양의 대표적인 전통별자리이다. 그리고 천제단 안쪽에는 북두칠성과 해와 달을 상징하는 별자리 깃발이 위치한다. 천체를 지내는 동안 이들 별자리 깃발은 천제단 주변을 둘러싸고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주제는 태백산 천제 깃발 별자리 연구를 통해 별자리의 배치와 깃발 별자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별자리 비교를 통해 깃발 천문도는 성경(星鏡)의 별 그림을 기초로 그려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자리 배치 뿐 아니라, 별 그림에서도 깃발 별 그림은 우리 전통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나 천문유초의 별자리와 여러 곳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깃발 별 그림과 관련해 별 그림의 오류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깃발 별 그림의 수정과 복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개천절과 관련된 천제단과 경주 첨성대와의 구조적 연관성과 의미를 포함하여 마니산 칠선녀의 의미와 태백산 깃발 별자리의 모양과 배치,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직접 참가하여 수집한 많은 영상자료들을 발표하였다.

## 5. 조선의 하늘을 살폈던 서운관에 대하여 (발표 : 이기원)

이기원 박사는 고려시대 천문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기관의 명칭의 변화에 대해

서 간략히 소개하고 조선의 하늘을 살폈던 서운관(書雲觀; 이후 ‘관상감’으로 개칭)의 직제와 인원수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서운관은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중국의 관제에서 탈피하고자 당시 대사국과 사천감으로 분리되어 있던 천문관련 기관을 합치면서 만든 명칭으로 2008년 올해로 700주년이 된다. 조선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전승하여 서운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관원은 총 34명이었다. 이후 몇 차례 명칭과 직제개편이 진행되었으나 인원수는 점차 증가되었다. 1446년(세종 12)에는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개칭하고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의 삼학(三學)체제로 개편하였다. 1506년(연산군 12)에 사력서(司曆書)로 축소 개편되었다가 다시 이전 체제로 복귀되었다. 그 후에도 조선시대 관상감은 인원의 증감과 직제의 변경이 있었지만 대체로 400년간 운영되어오다가 1894년(고종 31)에 관상국(觀象局)으로 개칭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서운관(書雲觀; 관상감)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기존 연구내용과 추가된 연구내용을 잘 정리하여 서운관의 역사, 직제와 인원 변화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고려시대부터 서운관에 영사직(領事職)이 있었음을 밝혔고 또한 조선시대에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서운관에는 성명과 복과를 하는 맹인 그리고 기존연구들에서는 도외시되었던 장인(匠人), 서리, 노비 등의 인원도 법으로 정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발표와 관련하여 토론회장에서 나온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상감 인원의 변화요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 또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는가?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향후 관상감 제도변화 요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할 계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18C)의 관상감에서 인쇄한 역서가 약 30만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역서와 관련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제기되었다. 물론 일반백성들이 사용한 역서는 어려운 수학공식이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진(日辰)이나 연신방위도 등의 정보가 수록된 것이었다.

## 참가자 명단

김갑성, 경희대학교 천문우주학과, kskim@khu.ac.kr  
 김광동, 한국천문연구원, kdkim@kasi.re.kr  
 김도현, 장성여자 고등학교, kiseal@hanmail.net  
 김동준,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tkmwhiz@naver.com  
 김록순, 한국천문연구원, rskim@kasi.re.kr  
 김명진, 한국천문연구원, skarma@kasi.re.kr  
 김봉규, 한국천문연구원, bgkim@kasi.re.kr  
 김상범, 쑥 연구소, ghinghin@hanmail.net  
 김상혁, 한국천문연구원/소남천문학사연구소, astro91@kasi.re.kr  
 김현구, 한국천문연구원, hgkim@kasi.re.kr  
 류재곤, 유방택기념사업회  
 민영철, 한국천문연구원, minh@kasi.re.kr  
 박부무, 유방택기념사업회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ydpark@kasi.re.kr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박창범, 고등과학원, cbp@kias.re.kr  
 변재규, 서울대학교/한국천문연구원, mirach99@kasi.re.kr  
 성숙경, 한국천문연구원, sksung@kasi.re.kr  
 송두중, 한국천문연구원, djsong@kasi.re.kr  
 안영숙,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그룹 그룹장, ysahnn@kasi.re.kr  
 양홍진, 한국천문연구원, hjyang@kasi.re.kr  
 윤명진, 옛기술과 문화  
 윤한배, 한국천문연구원, hbyoon@kasi.re.kr  
 이광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천문전공, ghlee@astro.snu.ac.kr  
 이기원, 한국천문연구원, kwlee@kasi.re.kr  
 이봉렬, 국립중앙과학관, brlee74@mest.go.kr  
 이용복,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학과, yblee@snue.ac.kr

이용삼, 충북대학교, leeysam@hanmail.net  
이우백, 한국천문연구원, wblee@kasi.re.kr  
이성은, 한국천문연구원, selee@kasi.re.kr  
이지나, 한국과학기술원/한국천문연구원, chlee@space.kaist.re.kr  
임인성, 한국천문연구원, yim@kasi.re.kr  
장서원, 한국천문연구원, seowong@kasi.re.kr  
조일현, 경북대학교/한국천문연구원, ihcho@kasi.re.kr  
최규철,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ckc21@kasi.re.kr  
최보실, 한국천문연구원, cbs@kasi.re.kr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ghchoi@kasi.re.kr  
최용식, 옛기술과 문화  
최진,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한국천문연구원, dreamstree@hotmail.com  
최현아,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messier-45@hanmail.net  
최호성, 공군사령부/한국천문연구원, hschoi@kasi.re.kr  
Katsuhide Marubashi, 한국천문연구원, kmaru@kasi.re.kr

## 언론 보도 자료

## 한겨레

2008년 10월 02일 목요일 015면 문화생활



지난해 개천절에 태백산 천제단에서 개천대제가 열리는 동안 하늘을 상징하는 별자리 깃발들이 제단을 둘러싸고 있다. 동근 천제단 바깥의 네 방향에 7개씩 모두 28개의 별자리 깃발이 놓이는데, 이런 별자리 깃발의 모양과 배치는 동양의 대표적 28개 별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홍진 박사 제공

## “마니산 제천대는 천문관측소였다”

### 한국천문연구원 워크숍

‘하늘’에 제를 올리는 개천절의 제천 의례는 고대인들의 천문 지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실제로 제천대가 오랜 동안 천문 관측의 공간으로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고천문학계에서 제시됐다. 또 학자들은 현행 양력 10월3일인 개천절의 날짜를 ‘음력 10월3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1일 대전 천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하늘이 열린 날, 천문을 얘기하다’라는 주제로, 밤하늘의 별자리를 헤아리던 고대인의 마음과 천문 지식을 복원하려는 고천문학 워크숍을 열었다.

### 고대 제천의례는 천문학과 분리 안돼 개천절, 음력으로 바뀌어야 주장도 제기

이 자리에서 양홍진 박사(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는 “신라 첨성대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강화도 마니산의 제천대는 단지 제의만을 올리는 제단이 아니라 천문 관측도 하던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단 구조를 보면, 마니산 참성단뿐 아니라 태백산 천제단, 구월산 삼성사(북한)의 제천대들은 모두 바깥쪽은 원형, 안쪽은 사각형(방형)을 한 독특한 모습을 갖췄는데,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지다”라고 믿던 동아시아 고대인의 ‘천원지방(天圓地方) 우주관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지 않던 시대에 과학이 종교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얘기다.

이곳이 천문대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문헌 사료도 있다. 양 박사는 “조선 시대

국가천문기관인 ‘서운관’의 기록집 <서운관지>를 보면, 특별한 천문 현상이 나타날 때 천문학자들이 마니산에 가서 천체를 관측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관천대(천문대)가 여럿 생기 전까지 마니산은 천문 관측소로 이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천제의 성화 제화 때 등장하는 ‘철선녀’가 민속신앙으로 뿌리깊게 자리잡은 ‘복두칠성’의 일곱 별을 각각 상징한다고 풀이했다. 이용복 서울고대 과학교육과 교수는 여러 청동기와 고인돌 유물에 남은 별자리 그림 등을 볼 때 고조선의 천문 지식이 고대 천문학의 본산이던 중국에 못잖은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고구려 고분의 별자리, 또 이를 바탕으로 삼은 조선 초기의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면 중국의 전통 별자리들

과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이런 (독자적) 천문 지식의 전통은 고구려가 이어받은 고조선의 천문 지식에서 비롯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분과 생활 유물들 곳곳에서 복두칠성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각별한 애착이 드러나는 점을 근거로 들어, 복두칠성이 고대 이래 우리 전통 천문학의 특징을 이룬다고 해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고천문학과 현대우주론을 두루 연구하는 박창범 고등과학원 교수(천문학)는 중국과 우리의 천문역법 사료를 비교하며 현행 양력 10월3일인 개천절 날짜를 음력 10월3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개천절 날짜는 1949년 국회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양력 10월3일로 정했다. 박 교수는 “동양 고대사를 볼 때 단군조선 시대에도 달의 위상을 따라 ‘태음력’으로 날을 세어나 갔을 것”이라며 “대략 2천년 전부터 축제와 제천제가 함께 열렸던 개천일을 기념하려면 당연히 음력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재 천문연구원장은 “개천절에 남아 있는 천문학적 요소와 의미를 찾아 보고 우리 천문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천문학은 관측기록 등 사료와 유물을 분석해 옛 천문 지식을 복원하고 수백~수천년의 오랜 천문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로, 국내에서도 자연과학인 천문학과 인문학인 역사를 아우르는 융합 학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 “개천절 날짜, 음력 10월 3일로 바꿔야”

## ■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 워크숍’

오늘은 제4340주년 개천절이다. 과연 하늘이 열린 날은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이 맞을까. 마니산 등에서 열리는 제천 행사에는 조상들의 천문학 유산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개천절과 관련된 과학적 의미를 찾기 위해 국내 천문학자들이 1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모여 ‘하늘이 열린 날, 천문을 얘기하다’란 주제로 제2회 고천문 워크숍을 열었다. 박석재 천문연구원장은 “우리는 단군 때부터 하늘을 사랑하며 살아온 민족”이라며 “우리의 천문 역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음력도 생활정보 알려주는 실용적인 달력”

박성범 고등과학원 물리학과 교수는 이날 “개천절도 민족의 축제인 설날과 추석, 불교의 석가탄신일처럼 음력 10월 3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개천절을 양력으로 정한 것은 1949년 국경일 제정 당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태음력을 서양의 태양력보다 결정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단군조선 시대에도 음력으로 날을 세웠을 테니 우리도 음력으로 기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3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는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예부터 3을 신성한 수로 여겼으며, 음력 3일이 달이 경기 중반인 초승상태로 변하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달의 위상이 따라 날을 정하는 음력은 양력과 어긋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날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역법이다.



국경일 제정때 양력 택한 건 음력 경시 탓  
칠선녀는 복두칠성 상징... 서로 이름 일치  
천제 별자리 깃발 위치도 천문도에 맞춰야

박 교수는 “음력에 달의 변화에 따른 날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조수간만의 정도를 알려주는 등 현실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알려주는 실용적인 달력”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논란이 있는 단군조선의 개국 원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박 교수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지만 단군 이야

기가 처음 나왔을 때 중국 요와 같은 해에 단군조선도 세워졌다고 알려졌다”며 “이때를 단군의 개국년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며 음력으로 맞추면 연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 ●강화 마니산은 천문 관측장소로도 이용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문적인 서문관저에 따르면 강화 마니산은 특이한 천문현상이 있을 때 학자를 보내 하늘을 관측하던 장소로도 이용했다.

마니산 제천행사나 성화를 제할 때 등장하는 칠선녀의 본질도 이번에도 새로 밝혀졌다. 칠선녀가 복두칠성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양 박사는 “칠선녀는 각각 이름을 짓고 있는데 천주, 천선, 천기, 천권, 옥형, 가왕, 요광으로 불린다”며 “이 이름은 복두칠성의 각 별 이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개천절에 강원 태백시에서는 “개천대제”가 열린다. 천제를 지내는 동안 풍년 제단 바깥에는 풍사남 북으로 각각 7개의 별자리 깃발이 세워서 맞춰 놓인다. 우리 고유의 옛게 별자리표 표현한 조선시대 천문도 ‘천상열차본지도’와 일치한다. 다만 양 박사는 “개천대제에 쓰이는 별자리 깃발 위치를 천상열차본지도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름북 서울교대 과학교육과 교수는 “고조선의 청동기 유물이나 안와와 등을 보면 복두칠성이 시금이나 계류, 방위와 관련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며 “당시 유물을 볼 때 고조선의 천문학은 중국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고구려와 고려, 조선으로 계승됐다”고 말했다.

김성연 동아사이언스 기자 [stein@donga.com](mailto:stein@donga.com)



개천절에 열리는 ‘태백산 개천대제’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28개 별자리를 상징하는 별자리 깃발이 나무된다. 이 별자리는 조선 시대 천문도인 ‘천상열차본지도’에 나타난 별자리와 일치한다(왼쪽). 마니산 용성대에서 단군이 하늘로 올라간 날을 기념하는 이천제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 마니산은 조선시대 때 특이한 천문현상이 나타나면 학자를 보내 하늘을 관측하던 장소로도 이용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 大田日報

2008년 09월 30일 화요일  
022면 사람

### 고천문 워크숍 개최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석재)은 개천절을 앞두고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내 대회의실에서 제2회 고천문 워크숍 ‘하늘이 열린 날, 천문을

얘기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하늘이 열린 국경일을 기념하고, 개천절에 남아 있는 천문학적 요소와 그 의미를 찾아 천문학적, 과학사적, 문화사적 관점에서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충청투데이

2008년 10월 01일 수요일 006면 사회

# “양력 개천절 음력으로 바로잡아야”

## “정부수립 초 다수결 결정 잘못...전통 고려 음력이 맞아”

고등과학원 박창범 박사

양력을 기준으로 정한 '개천절 (10월 3일)'을 민족 전통적인 음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등과학원 소남전문학사연구소 박창범 박사는 30일 '개천절 일자(日字) 문제 고찰과 제언'이라는 논고를 통해 '양력 10월 3일로 정한 현재의 개천절 일자'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편의성과 현실성을 근거해

다수결이라는 비학문적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1949년 9월 21일 제5회 국회임시회 속기록'을 보면 '단국 개국일에 대한 학살이 구구하고,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 등을 이유로 표결을 통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단군조선 개국년은 삼국사기 등 여러 국내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요

(堯)의 원년인 기원전(BC) 2333년으로 삼을 수 있고 개국일의 경우 일자를 정확히 밝힌 문헌은 없으나 수천년 전부터 음력 10월 3일이 추수감사제와 종교의식 등의 성격을 띤 친신제를 지냈던 오랜 전통을 고려할 때 단군 개국일을 음력으로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박 박사의 논고는 1일 한국전문연구원에서 열리는 '제2회 고(古)천문 워크숍'에서 발표된다.

김경환 기자 [kmusic7@occtoday.co.kr](mailto:kmusic7@occtoday.co.kr)

### 한국일보

2008년 10월 01일 수요일 A28면 문화



## “개천절은 음력으로, 개국연도는 堯 원년으로”

박창범 고등과학원교수 고천문학 워크숍서 제기

개천절을 앞두고 현재 기원전 2333년(요·堯 25년) 10월 3일로 삼고 있는 단국의 개국 일자를 재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고천문(古文天)을 연구하는 박창범(사진) 고등과학원 교수는 "10월 3일 개국일은 음력으로 지내야 하고, 개국연도는 '요 25년'이 아닌 '요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문을 10월 1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열리는 고천문학 워크숍 '하늘이 열린 날 천문을 이야기하다'에서 발표한다.

10월 3일이 개천절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정부수립 초기인 1949년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다. 그 이전에도 민간과 종교단체

에서는 부여의 열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2,000년간 이어진 10월 3일 제천의식의 전통에 따라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아 기념행사와 제천 의식을 해 왔다.

박 교수가 문제 삼는 것은 개천절이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지정된 점. 그는 "법률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문명국가에서 음력과 양력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비학문적 방식으로 하루 만에 양력 10월 3일로 결정됐다"며 "태음력을 사용했던 고대 전통을 따라 음력으로 개천절을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날, 석가탄신일 등 음력 기념일이 공인되고 있는 마당에 개천절만 무관심으로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국 연도 문제는 더 복잡하다.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중국 요(堯)나라가 세워진 지 25년에 해당하는 BC 2333년이다. 하지만 역사자들은 단군조선의 개국년을 요 원년, 요 25년, 요 50년 등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요 원년 자체도 BC 2333년, BC 2357년이라는 설이 존재한다. 13~15세기 출간된 <삼국유사><제왕운기><세종실록> 등은 한글값이 단군 개국을 요 원년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15세기 <동국통감>은 요 간국 BC 2357년, 단군조선 간국 BC 2333년(요 25년) 설을 채택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 교수는 "동국통감이 요 25년 설을 채택한 것은 앞선 역사서를 따라 단군 원년을 무진년(BC 2333년)으로 잡은 뒤 요 원년을 무진년이 아닌 갑진년(BC 2357년)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라며 "단군 원년이 무진년이 아니라 요 원년이라는 점이 앞선 기록들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13~15세기 역사서에 일관되게 남아 있는 '단군 개국년-요 원년'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이 경우 요 원년이 BC 2357년이라면 단군 개국도 BC 2357년이어야 한다. 그러나 박 교수는 13~15세기 견해를 따라 단군 개국연도에 대해 요 원년 BC 2333년 설을 지지하고 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mailto:hee@hk.co.kr)



10월 4일 KBS 1 방영



10월 3일 TJB 방영





